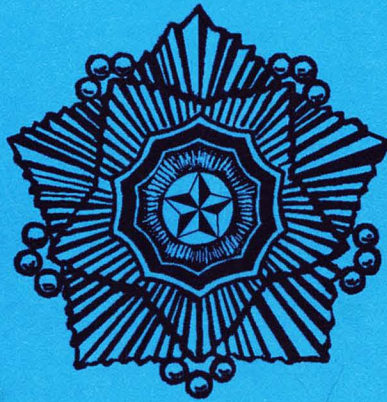


# 조선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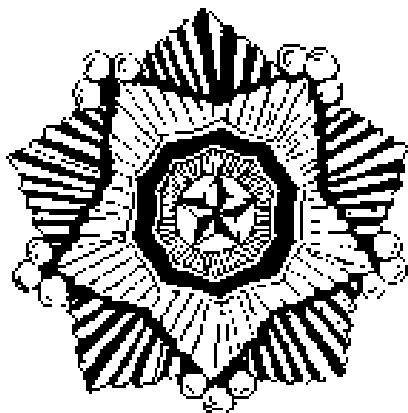
당창건 65돐기념  
특간호



# 10

주체 99(2010)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10호

(루계 제 756 호)

## 차 례

어머니 .....	4
당창건 65 뛴을 뜻깊게 맞는 자랑 안고 선군시대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	5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7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 .....	7
수령님 그리는 마음 .....	7
력사의 기록 .....	8
주체문학의 대강 .....	19
10 월의 송가 .....	20
《ㄷ.ㄷ》의 열혈투사들처럼 .....	22
우리 당 기발 .....	23

수령형상작품창작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신 품.....	24
행운의 한생 .....	25
한 당원의 어제와 오늘, 래일.....	26
오늘소식을 들었습니까 .....	28
믿음의 정치철학은 천하를 얻고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한다.....	29
장산리의 추억 .....	32
12 월과 12 월 .....	33
열병식의 유래 .....	44
위대한 령도자 <b>김정일</b> 동지의 명언.....	45
밑거름과 열매 .....	45
영광의 노래 드리노라 .....	46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완성되기까지 .....	47
우리 당중앙의 트랙 .....	48
나의 당원증번호 .....	48
당이여 그대결에는 이 아들이 있다.....	49
태양같은 영원한 사랑의 력사.....	50
빛나는 예지와 끝없는 열정을 지니시고 .....	51
향도의 별빛 .....	51
찬란한 향도의 별빛을 우러러.....	52
크나큰 믿음, 끝없는 사랑.....	52

구운 감자 이야기 .....	53
사랑의 대지를 품어안은 위인의 숭고한 세계 .....	54
백학들이 날아들 때면 .....	58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결작 .....	59
내 고향 옹달샘 .....	63
붉은 오각별 .....	64
축포의 불보라 .....	76
인연과 뿌리 .....	77
지원군환송대회에서 .....	78
중국고전소설 《량산백과 축영대》 .....	79

# 조선로동당은 선군혁명의 전위대이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어머니당이다.

—공동구호에서—

추억에 남는 시

## 어머니

김 철

내 이제는  
다 자란 아이들을 거느리고  
어느덧 귀밑머리 희여졌건만  
지금도 아이적목소리로 때없이 찾는  
어머니, 어머니가 내게 있어라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

놓치면 잃을듯  
떨어지면 숨질듯  
잠결에도 그 품을 더듬어 찾으면  
정겨운 시선은  
밤길도록 내 얼굴에 머물러있고  
살뜰한 손길은  
날이 밝도록 내 머리를 쓰다듬어주나니  
이 어머니 정말  
나를 낳아 젖먹여준 그 어머니가...

내 조용히 눈길을 들어  
어머니의 모습을 다시 쳐다보노라  
그러면... 아니구나!  
이 어머니  
나 하나만이 아닌  
이 땅위의 수천만 아들딸들을  
어엿한 혁명가로 안아키우는  
위대한 어머니가 나를 굶어보나니

그 시선 한번 강도에 비끼면  
황량하던 폐허에도 온갖 꽃이 만발하고  
거인의 그 손길 창공을 가리키면  
전설속의 천리마 네굽을 안고 나는  
아, 이런 어머니를 내 지금껏  
아이적목소리로 불러왔던가  
이런 어머니의 크나큰 품이  
나의 작은 요람까지 지켜주고있었던가

송구스러워라 이 어머니를  
나에게 젖조차 변변히 먹여줄수 없었던  
한 시골아낙네의 이름과 나란히 한다는것은  
그러나 어이하리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어머니란 이 말보다

그대에게 더 어울리는 뜨거운 말을  
이 세상 어느 어머니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했거니...

그대는 어머니!  
피도 숨결도 다 나누어주고  
운명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며  
바람도 비도 죽음까지도  
다 막아나서주는 우리들의 어머니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영원한 삶의 품! 혁명의 어머니!

인류력사 백만년에 수억만의 어머니들이  
그리고 애달프게 기원하던 아침이  
오직 그대의 예지 그대의 신념  
그대 필승불패의 향도를 따라  
이 땅위에 찬연히 밝아왔나니

웅석과 어리광판으로야 어찌  
그대 사려깊은 눈빛을 마주볼수 있으랴  
당이어 어머니시여  
그대 현명한 스승의 시선  
그대 로숙한 사령관의 안광이  
저 멀리 내다보는 미래의 언덕으로  
내 걸으리라—  
그대 나를 위하여 마음 기울인  
그 모든 낮과 밤을 다 안고 걸으리라

무엇을 아끼랴 그 무엇을 서슴으랴  
그대 숭엄하고 존엄높은 모습에  
한줄기 빛이라도 더해드릴수 있다면  
내 불붙는 석탄이 되어  
어느 발전소의 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  
그대의 은정 가없이 펼쳐진  
저 푸른 이랑들을 더 푸르게 할수만 있다면  
내 한줌 거름이 되어  
어린 모 한포기를 살찌운들 무슨 한이 있으랴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어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목소리로 부르고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 없이 나는 못 살아!

# 광창전 65돐을 뜻깊게 맞는 자랑스러운 원근시대 문학작품창작에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자

오늘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선군의 위력으로 우리 식 사회주의의 일대 번영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전당, 전군, 전민이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바라보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를 향하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는 력사적시기에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은 지난 65년간 당의 령도를 따라 주체문학건설에서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자랑스러운 로정을 돌이켜보며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주체문학의 일대 전성기를 마련해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위대성과 함께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것은 사회정치적생명체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이바지할 사명을 지닌 우리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며 가장 영예로운 과업이다.》

조선로동당의 창건은 우리 작가들의 운명개척에서와 참다운 민족문학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작가들은 력사상 처음으로 위대한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으며 자기 운명과 창작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 보람찬 작가적 삶을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인류의 자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작가들은 시대정신의 대변자, 사회력사운동의 추동자로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이것은 작가들이 스스로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가 되어 시대와 력사앞에 지닌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작가들은 오직 로동계급의 당과 수령의 옳바른 령도를 받아야만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투쟁에서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있으며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할수 있다.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때문에 우리의 오랜 작가들은 해방직후 모든것이 복잡한 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당을 받들고 인민들과 고탁을 같이하면서 사람들을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하였다.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와 장편서사시 《백두산》, 단편소설 《개선》 등을 비롯하여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동지의 위대성을 형상한 작품들과 가사 《애국가》, 《인민공화국선포의 노래》, 장편소설 《땅》을 비롯한 수많은 작품들은 당과 수령의 품속에 안겨 재생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작가들의 심장에서 나온 창조물이다.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엄혹한 조국해방전쟁의 시련속에서도 작가들에 대한 당과 수령의 령도와 믿음은 변함이 없이 더욱 자애롭고 뜨거웠으며 그것은 위대한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우리 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비범하고 세련된 령도를 받는 최대의 행운을 누림으로써 주체문학건설에서 새로운 력사적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문학에 대한 령도의 자욱을 새기시던 첫 시기부터 문학은 우리 당의 사상적무기이며 작가는 당사상전선을 지켜선 전초병이라는 혁명적인 문예관을 지니시고 작가들의 필봉이 언제나 당을 옹호하는 혁명의 보검으로 빛나도록 정력적으로 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밑에 1970년대 문학예술혁명의 불길속에서 우리 문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확립되고 주체성과 민족성이 구현된 문학으로 확고히 전변되었다. 우리 문학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이 이룩한 혁명적 문예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수령형상문제를 문학의 근본핵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옳게 해결하며 문학사업전반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함으로써 주체가 튼튼히 선 당적이고 로동계급적이며 인민적인 참다운 문학으로 그 면모를 일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체문학의 원형이며 시원인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조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옮길데 대한 탁월한 사상을 내놓으시고 이 중대하고 책임적인 사업을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끄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우리 문학이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을 형상하도록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길을 력사상 처음으로 개척하시였다.



오늘 우리 수령형상문학은 총서 《불멸의 력사》와 《불멸의 향도》, 《충성의 한길에서》의 장편소설들과 기념비적서사시들을 비롯하여 문학의 모든 종류와 형태들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빛나게 창조됨으로써 우리 문학은 백두산3대장군형상을 기본으로 하여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다.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지금 우리 문학은 소설, 시, 아동문학, 평론 등 모든 분야에서 류례없는 혁신적발전을 이룩하였으며 강성대국건설대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무한대한 정신력을 안겨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있으며 주체문학의 보물고를 빛나게 장식하고있다.

실로 우리 문학의 모든 부문에서의 전면적개화발전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시고 우리 문학을 주체적문예사상의 빛나는 실현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창작적성으로 맞이하고 또다시 뜻깊은 당창건 65돐을 맞는 력사적인 순간에 우리 작가들은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자랑스런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지난날을 다시금 뜻깊게 회고해보며 주체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전성기를 마련할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있다.

오늘 우리 문학앞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높이 받들고 문학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킴으로써 강성대국건설에 떨쳐나선 천만군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훌륭한 문학작품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위업수행에 힘있게 고무추동하며 인민들에게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려는 사상적각오와 우리 식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게 하는 정신적양식으로 된다.

작가들은 혁명의 필봉으로 당을 받드는 선군혁명투사가 되어야 한다. 한편한편의 작품이 당의 사상이 맥박치고 당의 의도가 뚜렷이 반영되면서도 철학적무게가 있게 써야 한다.

위대한 장군님과 뜻도 마음도 하나가 되고 장군님의 발걸음에 보폭을 맞추며 오늘의 강성대국건설에서 장군님께서 지니신 신념과 의지, 배짱을 반영한 작품,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위대성을 소리높이 노래하는 작품들을 그 어느때보다 많이 써내려 군대와 인민들에게 장군님과 당의 위대성을 더 깊이 체득시킬뿐아니라 승리에 대한 신심을 주고 무적의 힘을 주어야 한다.

작가들은 글대포로 미제국주의,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반공화국책동을 짓밟개버

려야 한다. 작가들은 작품을 잘 써냄으로써 오늘과 같은 긴장하고 침예한 정세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어나가고있는가 하는것을 인민들에게 알려주어 그들이 위대한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 민족적궁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시대정신이 약동하고 대고조의 기상이 나래치는 명작을 쓰려면 현실체험을 잘하여야 한다. 강성대국건설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전장의 현실을 잘 알아야 시대정신이 나래치는 훌륭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근 반세기전에 창작된 **김일성**상계판작품 경희극 《산울림》이 오늘도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천리마시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도록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는것은 현실속에서 천리마시대의 전형을 찾고 새것에 대한 민감성으로 새로운 예술형식을 탐구하였기때문이다.

우리 작가들은 초강도강행군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을 따라가는것을 생활의 철칙으로 여기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군중들과 고락을 같이하며 명작을 창작하여야 한다.

모든 작가들이 당이 바라는 명작을 창작하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흠모심을 간직하고 향도의 당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니고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투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명작창작으로 우리 당의 선군위업에 이바지할수 있는 실력가로 튼튼히 준비되어야 한다. 당이 요구하는 명작은 작가의 창작적재능과 높은 실력에 의해서만 창작될수 있다. 모든 작가들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높은 정치적식견과 창작적기량, 다방면적인 지식을 가진 실력가로 자신들을 철저히 준비함으로써 문학전선에서도 최첨단돌파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오늘 혁명의 참모부이며 향도적기치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성과적으로 맞이하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우리 작가들은 인류문학의 리상이며 최고봉의 혁명적문학인 주체문학, 선군문학의 기수로서의 크나큰 행복과 자부심에 차넘치고있다.

모두다 주체적문예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문학력사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철저히 옹호고수하며 우리 당의 선군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혁명적인 문학작품창작에서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우리는 1930년 7월 3일 카륜의 진명학교 교실에서 차광수, 김혁, 최창걸, 계영춘, 김원우, 최효일동무들로 첫 당조직을 꾸렸다.》

《그후 우리는 첫 당조직에 건설동지사라는 소박한 명칭을 붙이였다. 그 명칭은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의 첫걸음을 떼였고 생사를 같이할수 있는 동지들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결속시켜 혁명을 심화발전시키며 종국적인 승리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포부와 의지를 그대로 담고있었다.》

《우리는 그때 첫 당조직의 결성을 기념하여 권총이 아니라 대포라도 쏘고싶은 심정이였다. 자기의 당조직을 가지고 조선의 당원으로 시대와 역사앞에서 혁명을 위해 일생을 바치겠다고 엄숙히 선서한 우리의 기쁨과 자부심은 참으로 말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할수 없었다.》

##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

박 웅 전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리움의 노래는  
허기져 쓰러진 초막가의 모닥불가  
독립만세 부르다 쓰러진 철창가  
쫓겨간 이역의 먼 하늘밑에서  
아 그 이름도 그리웠던 한별의 노래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오매에도 기다려온 백두의 장군  
장장 수십성상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해방을 안고오셨나니  
삼천만은 감격에 넘쳐 불렀더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해방의 은인

반만년 처음보는 자유의 강산에  
재생의 봄빛 함뿔 뿌려주신분  
분여지의 발머리, 공장과 교정에서  
만나뵈온 감격 너무도 꿈만 같아  
또다시 뵈고싶은 자애로운 영상  
아 그 이름도 그리운 건국의 아버지

불비 쏟아지는 포화속에서도  
북두칠성 바라보며 부르고 또 부르면

가 사

멸적의 투지와 용맹을 안겨주고  
크나큰 승리와 위훈을 펼쳐주던  
싸우는 조선의 노래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최고사령관

세월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해지더라  
세상에 부러움 없는 행복을 안겨준  
한없이 고마운 감사의 노래  
해와 달이 다하도록 모시고 따르리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 피눈물의 언덕을 넘어  
선군천만리 애국장정으로  
수령님위업 대를 이어 꽃피워갈수록  
꿈결에도 못 잊어 부르고 또 불러  
이 세상 그리움의 절정을 이룬  
아 《**김일성**장군의 노래》여

우리 장군님 불멸의 위업으로  
수령님의 평생소원 다 풀어드리실  
장엄한 강성대국선포의 노래도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되리라!

## 수령님 그리는 마음

김 석 렬

한평생 인민을 그리도 사랑하신  
아버이 그 녀원이 꽃피나는 내 나라  
강성대국 좋은 날을 눈앞에 그려보니  
아 더더욱 그리워라 우리 수령님

인민이 잘 사는 락원을 세우시며  
걸으신 자욱우에 이 조선 빛나네

오늘 위해 바쳐오신 그 로고 생각하니  
아 더더욱 그리워라 우리 수령님

인민의 세상에 태양으로 빛나시며  
천만년 축복을 안겨주실 아버지  
거룩한 혁명생애 가슴에 새길수록  
아 더더욱 그리워라 우리 수령님





# 역사의 기록

김 대 성

1

미제야수들이 일으킨 전쟁은 불과 한해동안에 삼천리강토를 초토화하여 재더미로 만들었다. 남진하여 락동강을 넘어섰던 전선은 청천강이북으로 이동했다가 재진격하여 전쟁이 일어났던 그 계선에 이르러 고착되었다.

전선은 이제 어느쪽으로 이동할 것인가?

적아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고있었다.

미제침략자들은 원산을 비롯한 동해안에 대대적인 무력을 상륙시켜 공화국북반부를 통채로 삼키거나 그럴수 없는 경우엔 청천강이남지역이라도 타고앞으려고 끈덕지게 발악했다. 그러나 기운이 진한 이 승냥이는 이발을 갈며 으르렁거릴뿐더는 맥을 추지 못했다. 이제 와서는 미제침략군을 포함한 16개국 무력침공자들과 남조선피뢰군이 정세를 역전시킬 그 어떤 전략이나 작전적기능도 수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총참모장인 남일은 군대와 인민이 결사의 각오를 안고 떨쳐나 해안방어준비를 하고있는 동해안지역을 돌아보는 과정에 드디어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때, 이제는 승산이 있다!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한것이다.

그는 평소애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몹시 흥분해서 얼굴이 불빛하게 달아올랐고 두눈이 번쩍거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이러한 전선실태를 빨리 보고드려야 했다.

마침 최고사령부에서 긴급호출무전이 왔다.

남일은 동해안지구방어를 책임진 장령들과 서둘러 작별인사를 하고나서 밖으로 나와 위장장물을 친 야전차에 올랐다.

《운전사동무, 빨리 떠나자구. 어서!》

그가 운전사를 이렇게 부리나케 다그어대기도

처음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임의의 순간에 출발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있던 젊은 운전사는 즉시 운전대를 쥐고 시동변을 밟았다.

야전차가 꿈무니로 흰연기를 내뿜으며 부르릉거리는데 작전가방과 배낭을 한쪽 어깨에 걸친 부관이 경악을 하며 달려와 앞을 떡 막아섰다.

《안됩니다! 운전사동무, 당장 발동을 끄시오!》

남일은 그에게 사정하듯 말했다.

《부관동무, 그러지 말고 어서 차에 오르라구. 내 급한김에 동무를 깜박 잊었됐구만.》

짱짱하게 생긴 부관은 끄떡없이 버티고서서 완강히 거절했다.

《총참모장동지, 어서 차에서 내리십시오. 공습이 심할텐데 대낮에 어떻게 장거리운행을 한다고 그러십니까.》

남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미간에 깊숙이 주름이 패이고 두눈은 마주보기 두려울 정도로 엄격해졌다.

《어서 떠나자구. 시간이 없소.》

부관은 그래도 물러서지 않았다.

《총참모장동지, 우리가 여기로 떠나올 때 장군님께서 하신 간곡한 당부를 잊으셨습니까?》

남일은 때없이 가슴이 뭉클해져서 웅대를 못하고 그대로 굳어졌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적들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예견되는 동해안지대로 떠나는 남일에게 구체적인 임무를 주시고나서 잠시 생각에 잠기셨다가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하시였다.

하여 남일은 최고사령부지휘처앞에서 장군님을 모시고 사진을 찍는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찍은 사진을 보면서 총참모장동무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장군님, 건강하십시오.》

《고맙소. 동무는 그 지역에 처음 나가보는것만

큼 차를 지나치게 빨리 몰지 말며 특히 적기의 공습에 주의를 돌려야 하겠습니까.》

참으로 마디마디 사랑에 넘친 간곡한 당부이었다.

장군님께서는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신 듯 대기중에 있는 야전차의 출발준비정형을 친히 료해하시고 남일의 부관과 운전사에게 이르시었다.

《동무들은 총참모장의 신변호위를 잘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주의해서 모시오.》

부관은 방금전 남일에게 장군님의 그 간곡하신 당부를 상기시킨 것이었다.

남일은 군모채양을 들어올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 멀리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보았다.

마치 전쟁이 끝나기라도 한듯이 하늘은 가없이 맑고 푸르렀다. 오늘따라 웬일인지 적기가 한대도 얼씬하지 않았다. 유리하게 변화되고있는 전선실태가 몸으로 느껴지는 듯싶었다.

순간도 지체할수 없었다. 어서빨리 최고사령부에 돌아가 경애하는 장군님께 승산이 확고해지는 전선실태를 자세히 보고드림으로써 그이의 전략적구상실현에 도움을 드려야 했다.

《어서 가자구.》

야전차는 여전히 끄떡도 하지 않았다.

남일은 별안간 두눈을 홉뜨며 앞을 막아선 부관을 사납게 쏘아보았다.

《동무! 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야! 순간도 지체할수 없소! 빨리 차에 오르지 못할가?》

그제서야 부관은 얼른 옆으로 비켜섰다.

야전차는 박차를 가한 준마처럼 차체를 들썩이더니 부르릉! 앞으로 달려나갔다. 부관은 날랜 솜씨로 야전차의 뒤좌석에 뛰어올랐다. 남일은 피륙 손목시계를 보았다. 오후 두시였다. 전속으로 내달려야 오늘중에 최고사령부가 자리잡고있는 건지리에 당도할수 있었다.

《운전사동무, 속도를 더 올리라구. 어서!》

야전차는 바퀴에 불이 일도록 냅다 내달렸다.

## 2

남일은 전쟁전에 교육성 부상이었다.

해방직후 교육부문에서 제일로 걸린것은 교과서였다. 전국도처에 학교를 내고 교원진영을 꾸리며 학생들에게 학습장과 연필을 마련해주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들이 련이어 취해졌지만 교과서가 없어서 애를 먹고있었다.

남일은 이러한 실태를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드리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교과서가 없다고 우는소리만 할게 아니라 해외에서 사범대학을 나오고 교

편을 잡은 경력이 있는 동무가 직접 교과서를 집필하면 좋을거라고 따듯이 일깨워주시었다.

그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고무된 남일은 정력을 기울여 해방된 조국의 실정에 맞는 두권의 수학교과서를 집필하였다. 그는 수학교과서에서 단순히 사물들의 량적관계와 공간적모양에 대한 표상과 리해를 주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우리 나라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주게 함으로써 애국심을 키워주는데 각별히 모를 박았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것처럼 분망하시건만 시간을 내시여 그가 집필한 교과서를 보아주시고 남일동무가 교육국(당시) 부국장사업을 하면서 교과서를 집필하자니 정말 수고가 많았겠다고, 교과서를 재미나게 잘 썼다고 치하해주시었다.

남일은 그때 난생처음으로 자신에 대한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보았다.

그는 자기가 해방된 조국에 찾아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지식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더 잘 받들어나가리라 재삼 결의다졌다. 그는 교육국이 교육성으로 승격되고 교육성 부상이 된 후에도 짬짬이 교과서집필을 계속했다.

작년 6월 25일.

그날은 일요일이었다. 남일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재에 들어가 곧 출판에 넘기게 될 교과서원고를 최종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라의 교육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창조물을 내놓게 되는 이런 순간이 참으로 행복했다. 부엌에서는 대학교원인 안해가 별식을 차리는지 달가닥거리며 고소한 냄새를 풍기고있었다.

갑자기 썰가당! 하고 가마뚜껑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뒤이어 그 무엇에 뒤쫓기우는듯 다급한 발걸음소리가 울리더니 서재의 문이 쾅 열렸다. 남일은 홉칫 고개를 돌렸다. 문지방에는 무엇때문인지 해쓱하게 질린 안해가 서있었다.

《웬일이요?》

안해는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가까스로 눌렀다.

《전... 전쟁이 터졌대요.》

《뭘라구?!》

남일은 뒤늦게야 창밖에서 울리는 몹시 흥분되고 격한 녀성방송원의 목소리를 들었다.

별안간 눈앞에서 소중한 그 무엇이 탁 깨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것은 해방된 조국에서 인민들이 땀흘려 이룩한 안정된 생활이었고 아름답게 꽃피운 행복이었고 귀중한 평화였다.

즉시 내각에 달려간 그는 자기를 전선에 내보내 줄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곧 민족보위성 부상으로 조동되어 인민군대 대렬보충사업을 책임졌다.

반미성전에 온 나라가 떨쳐나섰다. **김일성**종합대학을 비롯한 전국의 대학들과 전문학교, 고급중학교들에서 피끓는 청년학생들이 다투어 전선에 탄원했다. 공장과 농촌에서 일하던 여성들과 아바이들도 손에 총을 잡겠다고 나섰다. 남반부의 해방된 지역들에서는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이 의용군에 자원입대했는데 그 수는 무려 수십여만명에 달했다.

반공격으로 남진하는 인민군대는 남녘동포들의 환호를 받으며 적들을 락동강이남으로 몰아냈다.

련속되는 패전에 당황망조한 미제침략자들은 태평양방면에 배치하였던 룡해공군과 지중해연안에 배치하였던 함대의 일부 그리고 《유엔군》의 모자를 씌운 추종국가군대들까지 조선전선에 끌어들었다.

인민군대는 전략적으로 일시적인 후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은 생사존망의 위기에 처했다. 적들의 선발대가 희천과 초산에까지 깊숙이 들어왔다. 남일은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지는 전선형편을 최고사령관동지께 직접 보고드려야 하는 때가 몹시 괴롭고 고통스러웠다. 당장은 정세를 역전시킬 대책이 없기때문이었다. 그의 얼굴엔 컴컴하게 그늘이 졌고 미간엔 주름이 깊이 패었다.

최고사령부가 압록강이 지척인 고산진에 자리를 잡은 후의 어느날이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남일에게 반공격을 위한 작전을 세울것을 명령하시였다.

지금형편에서 반공격이라니?!

남일은 놀라도 이만저만 놀라지 않았다.

미제침략자들은 제공권과 제해권을 다 장악한 조건에서 이해중으로 전쟁을 계속하고 이른바 갑은절 축배를 압록강과 두만강기슭에서 들야망으로 총공세준비에 광분하고있었던것이다. 적아간의 역량대비는 너무도 엄청났다. 지금형편에서는 후퇴해들어온 인민들까지 손에 총을 잡고 군대와 함께 사생결단하고 적들과 맞서싸워야 현계선에서 가까스로 지탱해낼수 있었다.

그러니 반공격에 대해서는 엄두도 낼수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선뜻 대답을 올리지 못하고 굳어져버린 남일의 비장하고 침통한 기색을 유심히 여겨보시다가 빙그레 미소를 지으시였다.

《허, 거 인상이 말이 아니로구만. 몸이 말짱니까? 아니면 무슨 고민거리라도 있소?》

남일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다. 밝은 인상을 지으려고 애썼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고 저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이 나왔다.

그는 사태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으니 총참모장으로서 정말 면목이 없었다.

《어디 동무의 심정을 솔직히 말해보시오. 난

요즘 무엇때문인지 몹시 고통스러워하는 동무를 대하기가 딱해서 그러니다.》

남일은 겨우 고개를 들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전히 밝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신채 자기를 지켜보고계시였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중임을 지니고도 속수무책으로 마음고생을 할바엔 손에 총을 쥐고 전선에 나가 싸우고 싶습니다.》

《그렇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나직이 뇌이시며 알릴듯말듯 안색을 흐리시였다.

《지금과 같은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총참모장인 동무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동무는 이제 판이 글렀다고 생각하는게 아닙니까?》

준절하신 물음이었다.

남일은 흠칫 몸을 떨며 황급히 말씀드렸다.

《그런건 아닙니다. 우리가 사생결단하고 싸우면 현계선에서 지탱해낼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반공격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건데… 동무는 전쟁의 승패가 무엇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봅니까?》

깊은 의미가 담겨진 물음이었다.

남일은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앞에 펼쳐져 있는 작전도를 바라보았다.

전선형편이 일목료연하게 함축되어있는 작전도에는 서로 대치된 적아간의 무장장비상태와 군집단들의 기동상태, 예비대보유정형 등이 각종 부호로 표시되어있었다. 재삼 주시해봐도 반공격의 가능성을 찾을수가 없었다. 일반군사상식으로 보아도 반공격을 하려면 아군의 역량과 무장장비가 적들보다 두배이상은 강해야 했다.

말 못 하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일깨워주시였다.

《물론 전쟁은 전쟁이니만치 수적우세와 기술적우세를 무시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승패를 결정하는 기본요인은 전쟁에 참가한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상태입니다. 동무는 총참모장이기때문에 땅크나 비행기보다 그것을 먼저 볼줄 알아야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며칠간 총참모장동무가 여기에 지켜있어야 하겠소.》

**김일성**동지께서는 곧 부관을 불러 전선시찰을 나갈수 있게 야전차를 준비하라고 이르시였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장군님께서 전선시찰을 나가시다니?!

남일은 다급히 말씀드렸다.

《장군님, 그건 위험합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난 전선에서 싸우고있는 우리 전사들과 그들

을 성심성의로 원호하고있는 인민들을 만나보고싶어서 그렇니다.》

벌써 마당에 들어서는 야전차의 동음이 울렸다.

외투를 입고 채양이 없는 털모자를 쓰신 **김일성**동지께서는 밖으로 나가 야전차에 오르시였다.

그날 눈보라는 왜 그리도 세찼던지... 련 사흘째 눈보라는 더 기승을 부렸다.

남일은 최고사령부 작전대앞을 잠시도 떠나지 못했다. 그의 온 신경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시찰하시는 전선에 쏠려있었다.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가 없었다.

조국과 민족,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 오직 한분 위대한 장군님께 달려있었다. 그이의 안녕은 곧 온 나라 인민들의 행복이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서는 친히 전선에 나가시고 참모장인 나는 여기 작전대앞에 서있으니...

생각할수록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눈보라가 아우성치는 림성골엔 인차 어둠이 깃들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둠은 짙어졌다. 부관이 급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 무전문을 내밀었다. 그것을 얼른 받아친 남일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전선시찰을 끝내고 돌아오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만포에 들리셨다가 방금전에 고산진으로 떠나셨다는 연락이였다.

남일은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후 내쉬었다.

《부관동무, 빨리 식사를 준비하고 목욕물을 덥히시오. 이제 국수를 누를수는 없을가? 느릅쟁이를 섞은 강냉이농마국수 말이요.》

강냉이밥이나 조밥으로 검소하게 식사하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쩌다 누르곤 하는 이 국수를 별식으로 달게 드셨다.

《예, 제가 취사원동무와 함께 낮에 망질을 해서 강냉이농마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어서 국수누를 준비부터 하지요.》

림성골의 수수한 농가에 자리잡은 최고사령부 지휘처는 샅시에 흥성거리기 시작했다.

남일은 두팔을 걷고 부엌에 들어가 부관과 함께 부엌찬장우에 걸려있는 기다란 국수분들을 내리워 부뚜막에 설치해주었다. 그리고는 부엌아궁이안에 잘 마른 참나무장작을 몇가치 집어넣고 자못 흥그러운 기분으로 마당에 나갔다.

마당에서는 인민군병사들이 눈가래와 싸리비를 들고 범석 떠들며 눈을 치고있었다.

남일은 그들과 함께 눈을 치다가 손목시계를 보았다. 벌써 한시간이 거의 되였다. 그는 서둘러 복장을 정돈하고 사립문밖을 나섰다.

밤은 바닥없이 깊어만 가는데 하늘에선 눈발이 날리고 눈보라가 맹수마냥 우! 우! 소리를 지르며 사납게 불어치고있었다.

만포에서 여기까지는 수십여리다. 그닥 먼거

리는 아니지만 압록강기슭을 따라 굽이굽이 에돌며 오르고 내리는 언덕길들이 여간만 험하지 않았다.

이런 날씨에 야전차가 무사히 운행할수 있을까?

남일은 위대한 장군님의 신변안전이 걱정돼서 도저히 마음을 놓을수 없었다.

다시 손목시계를 보았다.

한시간이 퍼그나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골짜기 입구에서 야전차의 불빛이 보이지 않고 동음도 울려오지 않는걸 보니 분명 로상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생긴것 같았다.

남일은 더럭 근심에 잠겨 손전지를 켜들고 허둥지둥 골안입구까지 내려갔다.

그는 자기를 따라오고있는 부관에게 소리쳤다.

《빨리 운수국장에게 포견인차를 끌고 나오라고 하오! 어서!》

《알았습니다!》

부관은 얼른 돌아서 언덕길로 달려올라갔다.

최고사령부 지휘처 맞은편에는 알봉이라고 부르는 동그랗게 생긴 봉우리가 있다. 거기에 고사포구분대가 진지를 전개했다. 포진지아래에 있는 차고에서 포견인차를 끌어내려면 좀 시간이 걸릴것이다.

남일은 분분초초 더욱 불안하고 조급해져서 포견인차가 내려오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눈보라가 사납게 불어오는 압록강쪽으로 반달음쳐갔다. 그러다가 무춤 멈춰서서 눈정기를 모아 앞을 주시했다. 어둠속에서 누구인가 무릎을 치는 생눈길을 헤치며 마주오고있었던것이다.

씨엉씨엉 내짚는 걸음걸음에 눈발이 파도처럼 일어번졌다. 마치도 몽게몽게 피어오르는 흰구름을 타고 날아오시는듯 한 거인의 모습이였다. 사나운 눈보라도 땀땀 추위도 줄지에 무색해졌다.

신비로운 그 모습을 우려했던 남일은 안도의 숨을 후련히 내쉬며 목메여 소리쳐불렀다.

《장군님!》

깊은 추억에 잠기신채 눈길을 헤쳐오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짙은 어둠과 눈보라속에서 울려오는 귀에 익은 그 목소리를 들으시자 반갑게 화답하시였다.

《아! 남일동무로구만.》

남일은 어푸러질듯 허둥지둥 달려가 장군님의 외투에 묻은 눈을 털어드리였다.

《장군님, 어째서 혼자 걸어오십니까?》

《여기까지 거의 다 와서 공교롭게도 차가 고장이 나서 멈춰섰소. 운전사동무가 수리하자면 시간이 좀 걸려야 할것 같다가에 부관동무를 조력으로 불러주고 오는 길ियो.》

혼연스러운 말쑤이시였다. 하지만 남일은 놀랍고 죄송스러웠다.

지금은 전쟁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였다.

적들이 코앞에까지 들어와 최고사령부를 노리고 있어 대낮에도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그런데 이 깊은 밤중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부관이나 호위 성원도 없이 혼자 걸어오시게 하다니?! 이건 전적으로 총참모장인 내가 구실을 바로하지 못했기때문이다.

《장군님, 밤중에 이렇게 혼자 오시면 어쩍니까?》

《지금이 얼마나 긴장한 시기요. 난 순간이라도 지체할수가 없었소.》

《그래도... 눈이 한길이나 쌓였는데... 까짓거, 고장난 야전차는 내버려두고 부관과 운전사와 함께 오실걸 그랬습니다.》

《허, 야전차를 내버리다니?! 전쟁이 일어난 첫날부터 오늘까지 타고다니던 그 정든 차를 어떻게 버릴수 있겠소. 난 그 차를 타고 서울에도 나갔었고 전선과 후방 그 어디나 다녔소.》

야전차에 대한 각별한 애착이 담겨진 그 말씀에는 가릴처절한 전화의 나날 사나운 불비속을 헤쳐오신 형언키 어려운 로고가 압축되어있었다.

남일은 더더욱 죄송함을 금할수 없어 되뇌이였다.

《그래도... 눈이 한길이나 쌓였는데 이렇게 혼자 오시면...》

말끝을 흐리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신 **김일성**동지께서는 우정 큰소리로 즐겁게 웃으시였다.

《하하! 오래간만에 홀로 눈길을 헤치며 걸으니 기분이 상쾌해지더구만.》

우리는 빨찌산투쟁을 할 때 이보다 더 험한 눈길을 하루에도 백여리나 걷군 했소. 어떤 날은 눈이 너무 쌓여서 할수없이 눈속으로 굴을 파면서 가기도 했지. 정말 감회가 새롭소.》

추억에 잠긴 그의 우렁우렁하진 말씀에 사나운 눈보라도 금시 기가 죽어 증즉해진듯싶었다.

별안간 림성골안에서 부릉 부릉! 하고 포견인차의 발동소리가 울리더니 전조등빛이 어둠을 가르며 환하게 비쳐왔다.

남일은 동음을 요란히 울리며 달려와 곁에 멈춰선 포견인차를 향해 소리쳤다.

《야전차가 고장이 나서 도중에 멈춰섰소. 빨리 가보시오!》

《알았습니다.》

운전사곁에 앉은 운수국장이 큰소리로 대답했다. 포견인차는 후끈한 연기를 물씬 내뿜으며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남일은 어둠속에서도 눈에 띄울 정도로 뚜렷이 찍힌 바퀴자리를 가리켜드렸다.

《장군님, 여기에 들어서십시오.》

《음, 동무도 어서 들어서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일과 나란히 걸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돌아켜보면 남파자회의이후 우리 주력부대

가 북부국경지대로 다시 진출할 때가 제일로 어려웠던것 같소. 행군로정이 여간만 험하지 않았지. 문자 그대로 빙천설지란 말이요. 행군을 하는데 적들이 계속 추격해왔소. 부대엔 식량마저 떨어져서 고생이 말이 아니였지.》

그 말씀을 들으며 남일은 가릴처절했던 항일대전을 상상해보았다.

항일투사들도 인간일진대 그런 시련과 난관을 어떻게 이겨낼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놀랍고 신비스러웠다.

《우리는 이처럼 100여일에 걸친 간고한 행군을 끝내고 이듬해 봄에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 무산지구로 진격했소.》

남일은 별안간 눈앞이 환해지는듯싶었다.

눈보라가 아니라 붉은기가 펄펄 휘날리고 조국진군의 나팔소리가 세월을 거슬러 탕탕하게 메아리쳐오는것만 같았다. 가슴에선 더운 피가 끓어오르고 온몸엔 새힘이 솟아올랐다.

《항일전의 나날에 우리가 겪은 시련과 난관에 비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사기는 매우 높소. 전쟁의 최후승리는 반드시 우리의것이요. 나는 전승의 그날을 눈앞에 바라보고있소. 빨리 재진격을 위한 작전을 세웁시다.》

남일은 신심에 넘쳐 씩씩하게 대답을 올렸다.

《알았습니다!》

### 3

그날밤, 차광막을 친 최고사령부 지휘처에서는 여러개의 등잔불이 꺼질줄 몰랐다. 깊어가는 밤과 함께 재진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으며 그것이 각이한 부호와 수자로 작전도에 표시되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문득 외양간쪽에서 소방울소리가 울려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제서야 색연필을 놓고 작전도에서 눈길을 떼며 고개를 드시였다.

남일은 서둘러 차광막을 말아올렸다. 어느새 날이 밝기 시작했는지 나들문에 바른 창호지가 희분해졌다. 소방울소리가 또 정답게 울려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팔을 벌리며 힘껏 기지개를 켜시고는 문을 열고 퇴마루에 나서시였다.

알봉우에 아침노을이 곱게 비졌다. 것처럼 기승을 부리던 눈보라는 언제 잤아들었는지 흰눈에 폭파문힌 림성골엔 청신한 고요가 깃들었다.

외양간에서 인기척이 났다. 부지런한 부관이 소여물을 꿇일 준비를 하는 모양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상쾌한 기분으로 마당을 가로질러 외양간에 다가가시였다. 그이께서는 만경대고향집을 련상시켜주는 이 수수한 농가에

최고사령부 지휘처를 정하신 날부터 손수 소관리를 해주시고 닭들이 알을 낳으면 바구니에 정히 모아두셨다가 주인에게 보내주곤 하시었던 것이다. 남일도 소박하고 엇구수한 이 농촌정서가 마음에 드는지 짝이 생기면 기꺼이 소여물을 끓이거나 닭모이도 뿌려주곤 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럴 경황이 없는지 사립문밖으로 썩하니 달려나갔다.

왜 그럴까?

남일의 뒤모습을 지켜보시던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상치 않은감이 드시어 그의 뒤를 따르시었다.

남일은 알봉밀에 있는 운수국의 차임페부로 갔다. 아닐세라 거기에서는 운수국장과 운전사가 열굴과 손에 솟검맹이와 기름칠을 해가지고 차수리에 여념이 없었다. 그는 아픈 심정으로 장군님의 야전차를 주의깊게 살펴보았다.

어디서나 흔히 볼수 있는 풍을 씌운 야전차였다. 물이 날대로 날고 기운 자리가 여러군데나 있는 풍만 보아도 차가 얼마나 전장에 부대졌는가를 가히 알수 있었다. 그러니 차의 기술상태에 대해서야 더 말해 무엇하랴.

뚜껑을 들어올린 기관실안에 잔뜩 고개를 틀어 박고 끙끙 나사를 조이던 운수국장이 인기척을 느꼈던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썩듯이 지켜보는 총참모장의 엄한 눈초리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는 엉거주춤 굳어졌다.

《여보! 당신 무슨 일을 그렇게 해?》

남일의 입에서는 대뜸 호된 추궁이 터져나갔다.

운수국장은 어안이 병병해졌다.

그가 보기에 총참모장은 군복입은 인테리였다. 어깨에 장령별을 달고있으면서도 노상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색적인 인상이었다. 남일은 군관들 지어는 하전사들을 대할 때에도 호령질이나 반말질을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일인가?

이렇게 천둥같이 화를 내는 총참모장을 보기에 처음이다.

가마니 짙을 깔고 차밀에 드러누워서 손질을 하던 운전사도 놀랐던지 눈이 켜해서 부랴부랴 일어나왔다.

《여보! 이걸 수리해서 어찌자는거야?》

《예?!》

《위대한 장군님께서 낡은 이 야전차를 계속 사용하시게 하자는거야? 지금이 아무리 어려운 시기라고 해도 그렇지. 이거야 너무하잖소.》

운수국장은 호인인 총참모장이 왜 이렇게까지 성이 났는지 그체서야 알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래 이것보다 성능이 더 좋은 새 승용차가 없소? 없으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지.》

운수국장은 자못 난처한듯 주저하다가 하는수없이 입을 열었다.

《특별히 보관해둔 고급승용차가 있기는 한데...》

하도 속이 상한김에 그야말로 강짜를 부려보던 남일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리는것만 같았다.

《그게 정말이요?》

운수국장은 자기가 방금전에 그런 대답을 한걸 후회하는지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남일은 언제 성났던가싶게 환하게 웃으며 두팔을 벌리고 다가와 운수국장의 어깨를 와락 부여잡고 막 흔들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후퇴를 하는 그 어려운 복새판에서도 고급승용차를 보관해두었다니 동무야말로 살림군이요. 정말 운수국장답소.》

눈알이 쑥 나올 지경으로 호된 추궁을 받다가 칭찬에 받들리운 운수국장은 군인답지 못하게 이마에 드리운 고수머리를 만지작거리며 어쭙게 웃었다.

《여보, 어떻게 승용차를 보관해둘 생각을 다했소?》

《후퇴명령을 받았을 때 사실 전 그런 생각을 할 엄두도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군님께서 저에게 그 승용차를 먼저 화차에 실어서 안전한 지대로 보내어 잘 보관해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 차가 지금 어디에 있소?》

《강계에...》

남일은 조금해나서 불같이 독촉했다.

《차수리는 그만두고 어서 강계로 떠나오. 빨리 가서 그 차를 물고오란 말이요.》

운수국장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 그건 안됩니다.》

환하던 남일의 얼굴에 금시 노기가 어렸다.

《이 동무 봐라! 어째서 안된다는거야?》

《글쎄 그건 제 마음대로 할수 없는 일이어서...》

《그러게 내가, 총참모장이 명령하지 않나. 왜 꾸물거려? 당장 떠나지 못해?》

두눈을 부릅뜨고 가족장화를 신은 발까지 구르며 무섭게 다몰아대던 남일은 주춤 굳어졌다.

등뒤에서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하하! 총참모장동무가 무서운 군별관료주의자였구만.》

남일은 얼른 돌아서며 자세를 바로잡았다.

꼼짝없이 굳어져있던 운수국장파 운전사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어깨를 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며 운수국장에게 물으시었다.

《차상태가 어떻소?》

《저... 수리를 거의 끝내긴 했는데...》

운수국장은 말씀을 드리던 도중 총참모장의 눈

치를 살피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래도 새차로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이 차가 어째서? 덕삼동무도 그렇게 생각하오?》  
 야전차를 그야말로 자기의 눈동자처럼 사랑해온 운전사도 나직이 한숨을 내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예, 이제 수리를 해도 제구실을 할것 같지 못합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짐짓 놀라와하시는 기색이 시였다.  
 《허,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군. 동무야 운전기술도 높지만 자동차속내를 귀신처럼 알고있잖소.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를 잡고있는 한 이 야전차는 전승의 광장에 들어서는 그날까지 썩썩 달릴수 있다고 노상 장담하더니 오늘은 어찌된 일이요.》  
 《그새 차를 너무 혹사하다나니...》  
 변명을 하듯 하던 운전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면서 견잡을수없이 높아졌다.  
 《정말입니다. 너무 혹사했습니다. 그새 높은 산, 험한 령을 수없이 넘으며 불길 수천리를 헤쳐오지 않았습니까. 지어는 침목을 타고넘으며 철교를 건너갔고... 그때 아차아차하던 생각을 하면... 아무리 무쇠로 만든 차라고 해도 어디 견디어낼수 있습니까?》  
 저는 이런 차에 더는 장군님을 모실수 없습니다. 또 고장이 나면 제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속이 떨립니다.》  
 남일은 이때라고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단호한 립장을 취했다.  
 《장군님, 새차를 타셔야 하겠습니까.》  
 운수국장도 간절한 어조로 말씀드렸다.  
 《그렇게 하는것이 좋겠습니까. 덕삼동무가 운전대를 놓으면 대신할만 한 운전사가 없습니다. 정말이지 승용차는 얼마든지 구해올수 있지만 이런 유능한 운전사는 데려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다?! 그렇단 말이지요.》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입속말로 나직이 되뇌이시며 포연에 그슬린 야전차를 손으로 애뜻이 어루만지시였다.  
 《나는 이 야전차를 탈 때마다 항일전의 나날에 타고다녔던 백마가 생각나군 합니다. 백마를 관리하는데 것처럼 극성이던 나어린 전령병동무의 모습도 눈앞에 떠오르고... 그래서 이 야전차가 무정한 쇠붙이지만 살붙이처럼 다정하게 여겨지는 모양입니다, 살붙이처럼...》  
 정이 푹푹 쏟아지는 말씀이시였다.  
 남일은 눈곱이 확 달아올랐다. 운수국장과 운전사도 두눈을 습벅이며 슬며시 고개를 숙이였다.  
 《동무들의 심정은 리해할만 합니다. 정말 고맙

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쟁의 가장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며 미제침략자들과 판가리결전을 벌리고있는 때에 내가 어떻게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그들은 더 간청의 말씀을 올리지 못하고 뜨거운 것을 삼켰다.  
 《최고사령관이라고 특전을 부릴수 없습니다. 지금 운수국이 보관해두고있는 승용차는 꼭 필요한 때 쓰자고 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올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담겨진 말씀이시였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남일은 오늘까지도 알수 없었다. 다만 그것이 전쟁승리와 관련될것이라는 짐작을 할뿐이다.  
 가슴 뜨거운 추억에 잠겼던 그는 두눈을 떴다.  
 야전차는 흙먼지를 피어올리며 마식령을 치달아 오르고있었다.

#### 4

야전차는 밤 열시경에야 건지리에 자리를 잡고있는 최고사령부에 도착했다. 설새없이 들춰대는 야전차에서 장시간 들볶이우다나니 모두들 땀근했다. 엉치뼈가 깨지고 갈비대들의 순서가 바뀐것만 같았다.  
 차에서 내린 남일은 군복에 묻은 먼지를 털며 개울가로 가서 시원히 세면을 하고 군복매무시를 바로잡았다. 그러고나서 지휘처마당에 들어서는 데 어둠속에서 친근하신 음성이 울려왔다.  
 《총참모장동무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였다.  
 《장군님!》  
 남일은 너무도 반갑고 기뻐서 이렇게 부르고나서 미처 규정의 요구대로 도착보고를 드리지 못했다.  
 《동무두 참... 적기들의 공습이 심한 대낮에 차를 타고오면 어떻게 하오? 해가 진 다음에 떠날것이지.》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디 낮과 밤을 가리게 됐습니까. 다행히도 오늘은 웬일인지 적기가 한대도 얼씬하지 않았습니까.》  
 《피곤할텐데 집에 가서 쉬시오. 래일 아침에 만납시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휘처에 들어가시였다.  
 남일은 아쉬운대로 발길을 돌렸다.  
 상현달이 은은히 빛을 뿌리는데 사위는 고요했다. 집앞에 이르니 터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오이넝쿨들이 유정하게 안겨왔다. 자기가 동해안으로 떠날 때는 오이꽃이 하나둘 피기 시작했었다. 보름이 지났으니 지금은 오이들이 먹음직스레 달렸으리라.



권위있는 생물학교수인 안해는 터발을 시험포전으로 삼고 계절을 앞당겨 갖가지 남새들을 솜씨있게 자래우고있었다.

남일은 이골리듯 오이밭에 들어섰다. 싱그러운 오이냄새가 기분을 상쾌하게 적서준다. 그는 조심스레 오이잎사귀를 제끼며 손더듬을 했다. 매끈하면서도 약간 까실까실하고 소담한것이 손에 척척 잡힌다. 벌써 입안에 군침이 스르르 돌았다. 하나를 톡 찔었다. 그대로 어썩 한입 씹었다. 독특한 오이향기. 오이냄새가 입안에 가득차고 코안으로 쨍하니 흘러든다. 전선길을 달리며 탈대로 타던 목, 가슴이 시원히 젖어든다. 한해나 말은 포연이 일시에 가셔지는것만 같다.

《호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귀에 익은 안해의 웃음소리가...

남일은 입놀림을 멈추며 고개를 돌렸다.

방금 나온듯 부엌문앞에 흰저고리를 입은 안해가 서있었다. 달빛이 곱게 어린 안해의 동그란 얼굴은 작은 달처럼 보였다.

《총참모장동지가 그제 뭐예요. 애들처럼...》

《뛰라오, 거 오이맛이 참 기막히구만.》

《어서 들어오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오이김치를 담그었어요.》

남일은 그 소리에 귀가 번쩍 열리는것만 같았다. 오이밭에서 나와 한달음에 집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안해가 저녁상을 차려주었다. 남일은 너무 좋아 입이 떡 벌어졌다.

어랍쇼! 이게 뭔가? 오이김치국에 만 강냉이 농마국수다.

그는 국수사발을 두손으로 들고 국물부터 주욱 들이켰다.

파연 별맛이다. 시원하고 새콤하고 달콤하고 맵고... 그리고 또 독특한 맛과 향기가 난다. 추억을 불러주는 맛과 향기가...

《당신이 돌아오신다기에 첫오이를 따서 김치를 담그었어요.》

《누가 그럴디까?》

《장군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어요.》

《장군님께서?》

《예, 그이께서는 터밭의 오이가 벌써 저렇게 크게 자랐는가고 놀라워하시면서 오늘 총참모장동무가 돌아올수 있으니 어서 오이김치를 담그어 강냉이농마국수에 말아서 대접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러시고는 취사원아주머니를 우리 집에 보내어 느릅쟁이를 섞은 강냉이농마국수까지 올려주게 하셨어요.》

남일은 독특한 향기를 풍기는 국수그릇을 생각깊은 눈길로 바라보았다.

자장도사람들은 느릅나무줄기의 속껍질을 벗기여 작두로 잘게 썰어 말리웠다가 가루를 내어

국수반죽을 할 때 넣는다. 그게 별맛이었다. 맛도 좋지만 소화는 또 얼마나 잘되는지 곱배기에 또 곱배기를 해도 쑥쑥 내려가는데 배속이 참 편안했다.

최고사령부가 고산진에 자리를 잡고있을 때 남일은 이 느릅쟁이국수에 톡톡히 맛을 들였었다.

장군님께서 취사원을 보내어 이 국수를 올려주신데는 그 무슨 각별한 의도가 있는것만 같게 여겨졌다.

《여보, 장군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였소?》

《작년 겨울 고산진에서 있었던 일들을 추억 하시였어요.》

남일은 저가락을 놓고 몸가짐을 바로했다.

《장군님께서는 남일동무는 전쟁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총참모장으로서 자신의 곁에서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전쟁승리를 위한 전략을 세웠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어요.》

어느날인가 눈보라가 세차게 부는 깊은 밤에 전선시찰을 하시고 최고사령부로 돌아오시던 장군님의 야전차가 도중에서 고장이 나 멈춰섰었다지요?》

남일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후터워지고 눈시울이 젖어든다. 그날을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날밤의 그 눈보라를... 불라는 가슴에 몰아치던 항일대전의 그 눈보라를...

《장군님께서는 그날밤에 있는 일을 정말 잊을수 없다고 하시였어요.》

자신께서 혼자 눈길을 헤치며 가는데 남일동무가 전지를 켜들고 마중나왔다고, 그때 얼마나 고맙고 반가웠는지 모른다고 하시였어요. 자신께서 남일동무와 함께 최고사령부에 가시니 목욕물을 뜨끈하게 데워놓았고 강냉이느릅쟁이국수까지 올려놓고있었다고, 오늘따라 그날에 있는 일을 잊을수 없다고 거듭 뇌이시더군요.》

남일은 자기도 오늘 야전차를 타고 최고사령부로 오면서 줄곧 그날에 있는 일을 돌이켜보았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도 오늘 바로 그날을 추억하신것이였다.

그날, 정녕 못 잊을 그날이 오늘과 그 어떤 인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있다면 그것은 무얼가?

《어서 드세요. 국수가 풀어지겠어요.》

《음, 곱배기를 하겠소.》

국수를 두사발이나 들고 담배를 피워물고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던 남일은 소리없이 밀려드는 피곤의 파도에 슬며시 잠기고말았다.

코고는 소리가 땅크의 발동소리처럼 요란했다.

구들장이 들썩거리고 금시 천정이 무너져내릴것만 같았다. 안해는 얼른 남편에게 베개를 베워주었다. 코고는 소리는 여전히 요란하게 울렸다.

이튿날 아침.

남일은 거뜬한 기분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났다. 머리맡에 지켜앉아있던 안해가 방긋이 웃으며 언저시 물었다.

《어제밤 팍크를 몰고 어디까지 가셨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요?》

《당신이 코고는 소리가 꽤나 요란하시더군요. 난 그렇게까지 녹초가 돼서 뿔아떨어진 당신을 보기에 처음이에요.》

남일이자신도 이렇게까지 피곤하기는 처음인 것 같았다.

월새없이 들까부는 야전차를 타고 먼길을 내쳐 달렸으니 그럴수밖에... 참, 장군님께서 사용하시는 야전차도 같은 형이지. 때없이 야전차에 오르시여 전선과 후방을 찾으시는 그이께선 얼마나 피로하시겠는가? 장군님께 다리를 쭉 펴시고 편히 앉으실수 있게 안이 널직하고 진동도 적은 새 승용차를 마련해드렸으면 좋으련만...

남일은 이런 생각에 잠긴채 서둘러 식사를 하고 최고사령부 지휘처로 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정중히 아침인사를 드리는 그에게 미소를 지으시었다.

《그래 피곤이 좀 풀렸소?》

《예, 오래간만에 느낌쟁이를 넣은 강냉이농마국수를 먹고 단잠을 잤더니 거뜬합니다.》

《그랬으면 됐소. 나는 새로운 중요한 과업을 동무에게 주려고 급히 불렀습니다. 어서 이리로 오시오.》

남일은 장군님께서 주시려는 중요한 과업이 그이께서 지금 보시는 문건과 관련된것일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바싹 긴장해서 집무탁앞에 다가섰다. 집무탁에 펼쳐져있는것은 전투보고서가 아니라 화보였다. 두달전부터 《조선인민군》 화보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건 6월호였다.

화보에는 공화국2중영웅인 김기우의 사진이 큼직하게 실려있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저으기 놀랍고 의아해하는 남일에게 그 사진을 가리키시며 누군지 알만한가고 물으시었다.

《예, 2중영웅칭호를 수여받은 비행기사냥군 김기우동무입니다.》

《하για 온 나라에 짜하게 소문난 2중영웅을 총참모장동무가 모를리 없지.

난 말이요, 이 사진을 볼수록 대견하단 말입니다.

이 동무는 달구지바퀴우에 중기관총을 올려놓고 빙빙 돌리면서 명중탄을 안겨 불과 한달사이에 적비행기를 아홉대나 떨구었거던.》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소, 이런 기적은 전쟁초기부터 일어났소.

전쟁이 일어 한주일만에 우리 어뢰정대는 네척의 어뢰정으로 미국놈들의 기동분함대와 맞서싸워 〈움직이는 섬〉 이라고 요란히 떠돌아대던 중순양함을 격침시켰지. 그것은 세계해전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한 기적이라고 세상이 떠들썩했댔소.

그 전투에서 공화국영웅이 두명이나 나왔는데 뒤를 이어 수많은 영웅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처럼 2중영웅도 나왔소.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강한 정신력으로 적들의 이른바 기술적우세를 타승하는 영웅들을 수많은 가지고있기에 우리는 전쟁에서 이기고있습니다. 승리는 확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소?》

남일도 솟구치는 흥분을 금할수 없어 큰소리로 대답을 올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정말 그렇습니다.

적들이 뿔내던 이른바 강대성은 요즘 한계점에 이른것 같습니다. 종합된 자료를 분석해보면 적들이 동해안에 대대적인 상륙작전을 벌리겠다고 분주탕을 피우기는 하지만 욕망에 불과합니다. 적들은 수세에 몰린 지금의 처지에서 그 어떤 대규모적인 작전을 진행할수 없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보고드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시며 만족한 기색으로 크게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그렇소. 미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잘못 보고 함부로 덤벼들었다가 수렁에 빠진 승냥이처럼 곤경을 치르고있소.》

그이의 안색은 금시 근엄해지쳤다.

《총참모장동무.》

《예.》

《수세에 몰린 미제침략자들은 숨돌릴 틈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 정전담판을 하자고 제기해왔습니다.》

《예?!》

남일은 놀랐다.

원주민들을 대량학살하고 해골우에 세운 미국이라는 나라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크고작은 정복전쟁을 벌려왔지만 언제 한번 패한적이 없을 뿐더러 정전담판을 먼저 제기한적도 없었다.

그러한 미제가,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의 무력까지 끌어들이 세계제국주의의 우두머리가 정전담판을 제기했던 말이지. 이것은 미제가 저들의 패배를 세계앞에 자인한셈이 아닌가.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남일동무를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로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일은 더욱 놀라서 두눈을 크게 뜨며 굳어졌다.

너무도 분에 넘친 신임이었다. 아울러 자기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내기 어려운 중대한 책임이기도

했다.

《제가 꽤 해낼수 있겠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마오. 내가 밀어주겠소. 동무는 이제부터 담판장에서 적들을 호되게 다블러대시오.》

믿음과 기대에 넘친 말씀이시였다.

남일은 마음이 한결 든든해짐을 느끼며 얼른 수첩과 연필을 꺼내들었다.

《미제침략자들은 〈강대국〉의 체면도 다 집어 던지고 정전담판을 제기해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놈들은 정전담판의 막뒤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려고 꾀할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정전을 해도 좋고 장기전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놈들에게 정전을 구걸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동무는 이러한 우리 당의 립장을 명심하고 정전담판에서 처음부터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주장을 배짱있게 내세워 기어이 관철시켜야 합니다. 담판 첫날부터 놈들을 정신적으로 제압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담판에 나갈 준비를 하시오.》

남일은 즉시 사업에 착수했다.

위낙 론리적이고 주도세밀한 그는 우리측 대표단을 구성하는 문제로부터 담판장근처에 우리측 숙소를 짓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직접 조직사업을 하고 그 추진정형을 살피었다. 모든 일이 잘 진척되었다. 그러나 하루하루 담판개시날자가 가까와올수록 그는 무언가 주되는것, 중요한것이 아직 미진된것 같아서 마음이 은근히 불안스러웠다.

어째서 이렇가? 무엇때문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정전담판과 관련하여주신 가르치심을 숙기한 수첩을 들여다보며 거듭 생각을 굴리고 따져보던 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담판 첫날부터 놈들을 정신적으로 제압해야 주도권을 쥘수 있다고 각별히 강조하시였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자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에 잠긴채 그는 벽거울앞에 다가갔다.

그는 평소에 자기의 얼굴표정이나 군복차림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다. 하기에 면도를 할 때를 내놓고는 웬간해서 거울을 보는적이 없었다. 그러나 오늘은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얼굴을 난생처음 유심히 살펴보았다.

총참모장이라는, 더우기는 정전담판 우리측 수석대표라는 어마어마하고 요란한 관직과 군사칭호에 비해볼 때 너무도 평범한 얼굴이였다. 교육자로서의 진지하고 준수함은 보이나 군사가로서, 더우기는 군사외교관으로서의 위엄과 용맹은 거의나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이 불만스러웠다. 이제 담판장에서 마주앉게 될 적측 수석대표를 무섭게 노

려보듯 두눈을 부릅떠보았지만 마찬가지였다.

허, 이거 야단이군. 나는 정말로 군복입은 인테리로구만. 이걸 어쩐다? 첫인상이 중요한데...

문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남일은 못할것이라도 하던것처럼 당황해하며 얼른 거울앞에서 물러섰다.

《예, 들어오시오.》

운수국장이 들어와 거수경례를 했다.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총참모장동지를 부르십니다.》

장군님의 부르심을 운수국장이 와서 전달하기는 처음이였다. 남일은 의아해하면서 그를 따라갔다. 앞서 걸어가던 운수국장은 위장망을 친 자동차엄폐부앞에서 멈춰서며 의미있는 눈길로 남일을 돌아보았다.

엄폐부안에는 고급승용차가 있었다. 검은 예나멜에 통채로 잠그었다가 꺼낸듯이 차체에 윤기가 돌았다. 문손잡이와 차체를 두른 완충띠는 니켈도금을 해서 눈부시게 반짝거렸다.

《이건 웬 승용차요?》

어리둥절한 남일의 물음에 운수국장은 빙그레 웃으며 나직이 속삭이였다.

《바로 그 승용차입니다.》

《응? 그 승용차라는건?...》

《작년 겨울 고산진에서 있는 일을 잊으셨습니까? 그때 총참모장동지가 나를 보고 당장 새 승용차를 가져오라고 호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보관해두고있던 승용차가 바로...》

남일은 그제서야 고개를 크게 끄덕이였다.

《아, 생각나오. 생각나.》

생각만 해도 눈시울이 젖어든다.

그때 있는 가슴 뜨거운 사연을 어찌 잊을수 있으랴.

《하어간 운수국장동무가 용소. 일시적인 후퇴와 재진격을 하는 복새통에서도 이 차를 새것처럼 잘 보관해왔구만.》

운수국장은 빙글서 웃었다.

《장군님의 말씀에 따라 우린 이 차를 다시 정비해놓았습니다.》

남일은 귀가 번쩍 열리는것 같았다.

고산진에서부터 속에 딱 얹혀있던것이 이제야 쑥 내려가는듯싶었다.

위대한 장군님을 새차에 모시고싶었던 간절한 소원이 드디어 풀리게 되었구나.

이때 불쑥 승용차의 운전칸문이 열렸다.

뜻밖에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운전대를 잡으신채 밖을 내다보신다.

남일은 얼른 자세를 바로잡으며 거수경례를 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반가운 미소를 지으시였다.

《주인이 왔구만.》

남일은 어리둥절해서 무춤 굳어져버렸다.

《왜 그러고 서있소. 어서 올라타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남일은 어쩔바를 몰라하다가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운수국장을 돌아보았다. 운수국장은 얼른 다가와 뒤문을 열어주며 나직이 귀띔했다.

《총참모장동지, 어서 오르십시오.》  
더는 어쩔수가 없게 된 남일은 조심스레 뒤좌석에 앉았다. 송구스러워서 몸을 웅송그리고 숨도 크게 쉬지 못하는데 차문이 팡! 하고 힘껏 닫졌다. 남일은 결에서 폭탄이나 터진듯이 와들 놀랐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으로 조향륜을 잡으신 채 뒤좌석을 돌아보시었다.

《그래 어쩔소? 차가 마음에 듭니까?》  
남일은 송구함이 도를 넘어 이마에서 땀까지 나왔다. 이건 정말 바늘방석에 앉은 심정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의 심정을 헤아려보시고 우정 난감한 기색을 지으시었다.

《허, 이거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로구만.》  
남일은 더욱 급해맞아서 침착하고 진중한 평소의 그답지 않게 덤벼치며 대답을 올렸다.

《아닙니다, 마음에 듭니다.》

《그럼 됐소.》

《하지만 전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이젠 웬 승용차입니까? 어째서 제가 이 차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감회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었다.

《나는 작년 여름에 서울에 나갔댔소. 서울해방 전투가 끝난 직후인데 날이 몹시 무더워서 야전차의 풍을 벗겼댔지. 그랬더니 바람이 썩썩 통해서 시원한데 아마 불품은 없었던 모양이요. 참, 그날 남일동무가 나를 바래주었지?》

남일도 그날이 눈에 선했다.

《예, 그렇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마중 나온 류경수동무가 하는 말이 이젠 남조선주재 미국대사 무효가 타던 승용차인데 서울해방전투때 자기네 땅크병들이 로획했다더군.

나는 그때 전승의 날을 그려보았소.

그날이 오면 우리는 허장성세하던 미제침략자들을 담판장에 끌어내고 항복서를 받게 될게거던.

바로 그날 우리측 대표가 이 전리품승용차를 타고 담판장으로 가면 얼마나 위풍이 당당하겠소. 그래서 나는 운수국장에게 이 승용차를 잘 보관해두라고 특별파업을 주었던거요.》

즐겁게 추억하시는 그 말씀의 마디마디에는 전쟁승리에 대한 확신이 어려있었다.

위대한 령장만이 지닐수 있는 이 필승의 신념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의 그 간고한 시련속에서도 추호의 드림이 없으시었다. 최악의 조건에서도 앞날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

로 공격전을 펴시는 우리의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

천출명장이시며 제일배짱가이시고 락천가이신 그이를 우러르는 남일의 눈빛엔 한없는 경모의 마음과 찬탄이 어렸다.

《드디어 그날이 왔소.

총참모장동무가 오늘부터 이 승용차를 타고 정전담판장에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일은 더욱 송구하여 몸둘바를 몰랐다.

《전 팬참습니다.

장군님께서 지금도 풍을 친 야전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제가 어떻게 뜻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 이 승용차를 탈수 있겠습니까.》

부르릉!

차에 발동이 걸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엽페부밖으로 차를 후진시키시었다. 그러시고는 손채양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운수국장에게 큰소리로 물으시었다.

《어쩔소?》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적기가 한대도 얼씬하지 않습니다.》

놈들은 정전담판을 제기한 어제부터 공화국북반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습을 당분간 중지한 모양이였다.

《그럴테지.》

**김일성**동지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능숙한 솜씨로 승용차를 몰고 큰길에 나서시었다.

운수국장이 차정비를 끝냈다가에 이처럼 몸소 운전대를 잡으시고 시험운전을 해보시는것이였다.

한해전, 해방된 서울에 나가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쏟아져내리는 폭양에 대지는 단가마처럼 더운 김을 지글지글 내뿜었다. 승용차는 흙먼지를 꿈무니에 말아올리며 날듯이 내달렸다. 도로 양옆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있는 가로수들이 차례로 련속 뒤로 넘어지는것 같았다.

상쾌했다. 장쾌했다. 송구스러움이 홀 날아가버린듯싶었다. 남일은 질주의 쾌감에 아! 하고 목청껏 웨치고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승용차는 나지막한 언덕길우에 썩 올라가 턱 멈춰섰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며 뒤를 돌아보시었다.

《기분이 어쩔소?》

남일은 오래간만에 아버지와 함께 들놀이를 나온 어린애의 심정이 되어서 싱글벙글했다.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하하! 총참모장동무의 미간에 줄곧 패여있던 주름살이 이제야 쭉 펴졌구만. 보는 사람이 다 시원하오, 시원해!》

《이렇게 거뜬하고 기분이 좋기는 전쟁이 일어서 처음입니다.》

## 주체 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리 당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는것이다.》

《당과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것은 우리 당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 이라는 구호밑에 오직 인민을 위하여 충실히 복무하고있으며 인민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는 신념으로 우리 당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고있다.》

《문학작품에서는 우리 당의 고유한 특성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형상함으로써 세상에서 우리 당이 제일이라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됐소. 진작 그랬어야지.》

김일성동지께서는 발동을 끄고 차에서 내리시였다.

남일도 열린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의미깊은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내가 동무에게 다른 승용차가 없어서 이 차를 주는게 아닙니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동무가 전리품인 이 차를 타고 정전담판장에 나가면 흰기를 들고 나온 적측 수석대표와 수원들은 수치감에 더 기가 꺾이고 주눅이 들게 될것입니다. 정전담판장에 모여든 국내외의 술한 기자들은 전 미국대사의 승용차를 타고 나온 동무의 당당한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승리자이며 미국놈들은 패배자라는것을 대뜸 알수 있을겁니다. 아마 세계가 들쭉날쭉할거란 말이요.》

그 광경을 그려보니 남일은 장점을 뿜아든듯이 손아귀에 기운이 뻗쳤다.

《동무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파견한 우리측 수석대표라는것을 명심하고 강자의 배심으로 첫날부터 적들을 피동에 몰아넣음으로써 우리의 요구조건을 철저히 관철해야 하겠습니까.》

강철의 령장을 우러러 남일은 삼가 거수경례를 올리며 우렁차게 대답을 드렸다.

《알았습니다!》

이튿날부터 정전담판이 시작되였다.

적아간의 공방전은 더욱 치열해졌다.

이렇게 해가 저물고 또 한해가 지나갔다.

그 이듬해 7월 27일 오전 10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판문점에서는 드디어 정전담판조인식이 진행되였다.

남일은 조인식이 끝나자 비참한 표정으로 얼친듯이 앉아있는 《유엔군》측 수석대표 클라크를 승리자의 긍지로운 눈길로 바라보고나서 조인문건을 넣은 함통을 들고 먼저 밖으로 나갔다. 그는 대기하고있는 전리품승용차에 올라탔다.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한 미국을 상징하는 승용차를 타고 평양으로 가는 조선인민군측 수석대표의 당당

한 모습을 촬영기의 렌즈에 담으려고 수많은 기자들이 모여들어 웅성거렸다.

김일성동지께서는 남일이 드리는 정전담판조인문건을 받아드시고 매우 만족해하시였다.

《오늘은 우리 나라 력사에서 참으로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는 력사상 처음으로 세계 <최강> 을 자랑하던 미제로부터 항복서를 받아냈습니다. 우리는 미제를 군사적으로뿐만아니라 정치도덕적으로도 타승했습니다.

남일동무, 그새 정말 수고가 많았소.

동무는 정전담판조인식장에서 미국의 항복서를 받아낸 사람이요.》

분에 넘치는 치하를 받고 무한히 격동된 남일은 마음속으로 삼가 감사를 드렸다.

《정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계시기에 우리는 미제를 피수로 한 제국주의연합세력과 싸움에서 끝끝내 이겼습니다.

승리한 오늘 저는 사나운 눈보라가 몰아치던 고산진의 그 겨울밤을 잊을수가 없습니다. 신심을 잃었던 저에게 그날 장군님께서 안겨주신것은 백두의 혁명정신이였고 필승의 신념이었습니다. 그것을 이 가슴에 간직하였기에 영웅적인 우리 인민과 군대와 함께 저도 승리자로 력사에 남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시각 서울로 돌아간 클라크는 벌떼처럼 달라붙는 기자들앞에서 진땀을 뺐고있었다.

그는 방금 장례식을 치르고난듯 비통하고 처참한 인상이였다. 그는 떨려서 토막토막 끊어지는 말을 가까스로 이어나갔다.

《북 조선 군이 ... 성 공 을 거 둔 것 은 ... 김일성장군의 유능한 지휘때문이라고 할수 있다.

...나는 정부의 지시를... 수행함으로써 력사상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최초의 미군사령관이라는 영예롭지 못한 이름을 지니게 되었다.

승리없는 전쟁, 이것은 미국력사에는 없는 술어다. 그러나... 미국은 처음으로 승리없는 정전에 조인하였다. 력사는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것인가?》

## 10월의 송가

10월의 하늘가에 승리자의 환호성이 터져오른다.

만세! 만세! 우렁찬 환호소리 강산을 뒤흔든다.

하늘땡엔 우리 당이 태어난 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맞이한 환희가 가을빛의 풍요하고 청청한 기운으로 짙어지고 인민의 가슴엔 내 나라, 내 조국을 부강번영의 세월로 이끌어온 위대한 당에 대한 감사의 걱정이 무한히 뒤설레고있다.

당여여, 우리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여!

오늘에 드리는 인민의 다함없는 경의와 노래를 받으시라.

이 나라 강산이 온통 그대에게 드리는 송가로 짙어차있다.

성강과 홍남, 남흥에서 폭포쳐흐르는 주체철, 주체숨, 주체비료의 대하가 그대를 향해 호호탕탕히 굵실거리고있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드넓은 꽃바다도 풍요한 과일바다로 대지를 장식하고있으니 정녕 이 변천이 선군시대의 산울림, 로동당시대에 드리는 송가의 크나큰 메아리가 아니라.

떠나온 기슭은 멀리 항일의 푸른 밀림속 전장에 두고 우리 당을 따라 몇천몇만리 변함없이 견고걸어갈 무적의 열병대오의 척척척 발구름소리도 그대에 대한 맹세의 송가 아니라.

두세기를 살아오면서 **김일성**시대와 **김정일**시대를 격찬할 행운을 지닌 이 땅의 한 시인은 수천길 바다속의 진주와도 같은 마음속의 노래를 퍼내어 우리 당을 노래하노라고 걱정을 터친적이 있다.

그렇다.

나도 오늘 그 마음속 진주를 캐려고 한다.

이 나라 수천만 인민들의 마음속마다에 깊이깊이 간직되어있는 수백수천만개의 귀한 진주를 캐여 영원불멸의 송가를 엮으려고 한다.

×

어머니당여여.

우리 인민은 우리의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른다.

이 세상의 하많은 친근한 부름중에도 생을 주고 젖을 주고 사랑을 기울이는 어머니란 그 이름밖에는 그대 품에 대한 다함없는 신뢰의 마음 표현할 길 없어 오직 우리의 조선로동당만 어머니당이라 부른다.

이 부름 아니고서는 그대를 칭송할 송가의 첫운을 땄수 없는 우리 당.

자애롭고 다심하고 사심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으로 이 땅의 천만자식 품에 안고 비바람 막아주고 눈보라 가리워주는 우리 당.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운명을 책임지고 보살펴주는 어머니당이며 우리 당의 정치는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정치, 인덕정치이다.》

태여날 때부터 그 강령과 목적이 오로지 우리 조국을 부강케 하고 우리 인민을 잘살게 하는데 있는 위대한 우리 당이 태어난 이 계절에 우리 인민이 마음과 마음을 터쳐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한다.

력사를 돌이켜볼 때 제 나라, 제땅을 남에게 빼앗기고 국치일의 비애를 읊조리며 망국민의 운명을 눈물로 감수하던 조선인민에게 진정한 자기 당마저 없는것도 설움중의 가장 큰 설움이였다.

남의 지봉밀에 결방살이의 운명을 지녔던 당재건이란 허울조차 《화요파》요, 《엠엘파》요 하는 당쟁의 지겨운 파란만장속에 불앞의 너울처럼 맥없이 스러져버린 불쌍한 그 력사도 과연 우리 인민의것이었던가.

그 조상들의 설움을 그냥그대로 묵묵히 감수할 수 없어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나라를 찾기 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맹세로 굳힌 열혈의 심장을 지니신 조선의 걸출한 수령의 장정 첫걸음이 있어 새로운 조선혁명의 진로가 태여났고 주체형의 우리 당의 뿌리가 태여났거니.

**김일성**장군님께서 당을 창건해주셨기에, 항일의 피어린 험산준령, 장백의 천만산야를 종횡무진하시던 백전로장의 걸음으로 초연히 개선하신 조국땅에서 제일먼저 향도의 기치 조선로동당을 창건해주셨기에 우리 인민은 해빛의 파사로움을 느낄 수 있었다. 설움이 없는 깨끗한 눈으로 파아란 하늘을 바라보며 자주주의 존엄을 간직할 수 있었다.

그래서, 바로 그래서 가리울래야 가리울수 없는 빛이고 열이고 희망이고 삶의 전부이신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찬가,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노래중에 제일먼저 태어나 이 땅의 수천만 생령들의 가슴을 울리며 조국강산에 뒹성치듯 울려퍼지지 않았던가.

정녕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찬가이자 우리 당에 대한 송가였다.

그 송가를 생의 마지막까지 읊조리며 숨결로 잊고산 이 땅의 작가들의 마음속에 간직되어있는 진주는 또 그 얼마인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당을 따라 운명을 함께 하여 온 우리 작가들의 빛나는 자욱을 우리 수령님께서 떼어주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그 하많은 이야기들...

근 50년전 한 작가의 미저한 작품을 몸소 보아주시고 자식의 첫걸음이 그리도 대견하신듯 현실을 정말 잘 반영하였다고 높이 치하해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자애로운 손길은 그후 작가의 전 인생에 자욱자욱 비껴있었다. 곁에 부르시여 가르침도 주시고 칭찬도 해주시며 이끌어주신 그 손길...

그 손길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사랑으로 이어져 세기가 바뀌어진 오늘에 와서 우리 장군님께서 마치도 오늘을 내다보고 쓴 작품 같다고, 필독교본이며 필독공연이라고 작품의 가치를 최절정에 올려세워주신 경희극 《산울림》이야말로 시대의 명작을 남긴 재사들을 세월의 한 끝까지 빛내여주시는 장군님의 숭고한 의리의 세계에 안겨사는 우리 작가들의 삶의 메아리가 아니랴.

정녕 당의 품에서 열정적인 창작활동으로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었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잊지 못하시는 문필재사들 그 얼마인가.

우리는 정녕 당을 책에서 알지 않았다.

생활, 생활속에서 당을 느끼었고 당을 알았다.

그 거세찬 생활의 격류속에서 파도의 포말처럼 튀어나온 많고많은 사랑과 믿음의 사연들...

...

기쁠 때도 어머니

피로울 때도 어머니

반기여도 꾸짖어도 달려가 안기며

천백가지 소원을 다 아뢰고

잊을번 한 잘못까지 다 말하는

이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

불미스러웠던 자신을 돌이키며 땀땀이 나설수 없는 피로움에 밤길을 걸을 때도, 그리운 그 품 찾아 목메여 그 이름 부를 때에도, 그 귀중함 가슴뜨겁도록 느끼며 자자구구 그리움의 노래 피로, 열로 쪼아갈 때도 어머니당의 정깊은 시선은 밝길도록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있었다.

그 사려깊고 엄정한 손길이, 《준엄한 싸움길에 하나의 전사 뒤떨어져도 천리길 만리길을 다시 달려가 붉은기에 휩싸안아 대오에 세워주는》 그 자애로운 손길이 단 한명도 놓침이 없이 품에 안아 다시 일으켜세워주었거니.

그 은정 목메여 우리 작가들 위대한 어머니품의 크나큰 세계에 대해 온 심혼을 다해 웨치

않았던가.

...

아, 나의 생명의 시작도 끝도

그 품에만 있는 조선로동당이여

하늘가에 흩어지고 땅에 묻혔다가도

나는 다시 그대 품에 돌아올 그대의 아들!

그대 정겨운 시선 살뜰한 손길에 몸을 맡기고

나는 영원히 아이적 목소리로 부르고 부르리라—

어머니! 어머니없이 나는 못살아!

정녕 이 부름이야말로 천만가지 부름가운데서도 오직 하나 그렇게밖에는 달리 부를수 없는 어머니당에 대한 진정의 송가, 칭송의 송가였다. 하지만 우리 인민모두가 사랑을 다해, 진정을 다해 어버이라 칭송해마지 않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그 모든 정과 사랑, 믿음을 오히려 우리 작가들에게 돌려주셨거니 그이께서 20세기의 대문호라 높이 내세워주시고 우리 나라의 재사이고 국보라고 평가해주시고 로동당시대의 시인이라고, 이름있는 작가라고 치하해주신 작가들 세월과 더불어 그 품에서 길이길이 영생하고있는것이다.

우리의 장군님 자신께서는 혁명투쟁에서 붓대를 중시한다시며 정을 기울여 키워주신 그 사랑이, 장군님의 그 사랑이 바로 어머니당의 사랑이었다.

하기에 작가들만이 아닌 우리 천만군민모두가 당을 생각할 때면 너나없이 하는 말— 하늘처럼 믿고삽니다, 조선로동당만을 믿고삽니다.

아, 여기에 가장 뜨거운 정의가 있다. 가장 열렬한 진실이 있다.

인민이여! 우리 느끼지 않았던가.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그날부터 당과 함께 걸어온 전력사적인 행정에 우리 이것을 심장으로, 폐부로 절감하지 않았던가. 그 품에, 오직 그 품에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운명을 맡기고사는 이 나라의 천만군민이 아닌가.

올해에 우리 인민은 평양산원개원 3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평양산원개원 30돐!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이 땅에 생을 둔 그 행복감, 어머니도 아이들도 이 사랑의 대지가 준 생을 누린다는 그 자부감 어디에 비할수 없어 만방에 대고 터친 방송야회 무대에서 우리는 눈물없이는 들을수 없는 이야기들을 들었다.

많은 량의 출혈로 의식을 잃은 녀인, 혈압은 정상태로 점점 떨어져가고 삶이 이어지겠는지 가장 가까운 친지들도 신심을 잃고 다가오는 죽음만 기다리고있는 그 시각...

어머니당의 사랑은 녀인을 홀로 두지 않았다.



병마와 필사적으로 싸워이길수 있는 힘을 주어 삶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모든것을 이긴다고 너인이 세상에 대고 웨칠수 있게 해주었다.

그 사랑으로 받아안은 두번째 삶을 행복하게 누리는 너가수가 그옥한 눈에 맑은 눈물을 츠렁츠렁 담고서 부르던 노래 《당은 어머니모습》...

태어나 처음으로 눈에 익힌 어머니얼굴  
아기가 반기는 이 세상 기쁨이라네  
아 어머니 있으면  
아기는 언제나 어머니 있으면 마음을 놓네  
...

어머니들의 목소리가 합쳐져 평양의 하늘가에  
가당고 그 메아리가 이 강산을 짝 채우던 그날의  
노래소리...

생을 낳아키우는 어머니들이 이 나라의 위대한  
어머니께 신뢰와 감사의 큰절을 삼가 드리는 뜨거운  
광경, 백마디의 말을 대신하는 진실한 화폭이  
였다.

한사람한사람... 이렇듯 천만의 심장이 하나의  
뜻과 사상으로 고동치고 하나의 걸음을 걷는 일심  
단결의 당이 바로 우리 당이다.

사회주의도 인민을 위한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 정치도 선군의 총대로 인민의 행복  
을 지켜가는 선군정치를 베푸는 우리 당이기에 그  
대의 아들딸들인 천만군민이 떨쳐나 날바다를 가  
로막아 황금전야로 만들고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를 날으는 우주강국의 위용아래 가는 곳마다  
CNC화의 나래돋힌 내 조국의 격변하는 현실을 창  
조한것 아니던가.

오늘 이 땅을 진감시키는 10월의 환호성!  
저 환호는 우리 당에 대한 단순한 신뢰와 경의

의 감정만이 아니다.

장장 수십성상 당을 따르며 받들며 운명을 함께  
해온 심장들이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는 철석  
같은 신념과 배짱의 선언이다.

정에 끌리고 사상에 매혹되고 믿음에 담대해진  
천만의 심장이 활화산처럼 터치는 저 환호의 메아  
리는 이번 당대표자회를 통하여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자기의 위용을 떨치며 주체  
혁명위업의 승리를 확신하고 창창한 미래를 내다  
본 영원불멸할 시대의 송가이다.

×

우리의 노래는 10월에 끝나지 않는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경도를 받는 조선로동당에  
드리는 우리 붓대들의 송가는 세월에 세월이 흐른  
다 해도 다함이 없으리니.

위대한 어머니시여! 우리 인민의 친근한 어버이  
**김정일**장군님이시여!

우리 인민은 그이의 손길따라 세상 끝까지 가리  
라. 그이 펼쳐준 설계도따라 온갖 재부 창조하여  
국력이 강한 나라, 전체 인민이 잘사는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리라.

우리 조국은 그이 기치되어 이끄시는 조선로동  
당의 향도아래 영원히 백전백승으로 위엄당당하리  
라, 무궁토록 부강번영하리라!

아! 영광의 10월, 환희의 10월, 승리의 10월!  
이날에 우리 조국강산은 통채로 하나의 거대한  
송가로 되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품, 조선로동  
당을 우러른다.

만세! 만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본사기자 김 은 희

가 사

## 《ㄷ. ㄷ》의 열혈투사들처럼

김 성 옥

수령님 한평생 언제나 못 잊어  
뜨겁게 추억하신 《ㄷ. ㄷ》 시절 전우들  
그들의 가슴에 불타던 그 신념  
오늘은 우리가 받아안았네  
아 한별을 높이 받든 투사들처럼  
장군님 따르는 열혈의 동지되리

세월의 눈비에 그 자욱 묻혀도  
장군님 기억속에 영생하는 투사들  
그들이 걸어간 충정의 길은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리라  
아 한별을 높이 받든 투사들처럼  
장군님 따르는 열혈의 동지되리

백두의 위업을 길이 받들어  
내 나라 강성대국 온 세상에 떨치리  
《ㄷ. ㄷ》의 투사들 고귀한 넋을  
우리가 천만년 빛내가리라  
아 한별을 높이 받든 투사들처럼  
장군님 따르는 열혈의 동지되리

# 우리 당 기발

김 재 원

조선의 새벽창문 붉게 물들이는  
해돋이의 노을은  
예순다섯해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백두의 광야에서 높이 추켜드셨던  
그 붉은기의 자락은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노을은  
저리도 찬란히 우주에 나뭇기듯

×

붉은기 높이 추켜들고  
백두산정을 진감하던  
항일대오의 도도한 발걸음소리가  
해방된 강산에 첫 열병행진 발걸음소리로  
메아리쳐울렸고  
빼앗겼던 조국을 다시 찾은 이 강토에  
장중한 《애국가》의 주악을 터쳐올리며  
청소한 우리 공화국이  
오각별 찬란한 삼색기 하늘가에 휘날렸습니다

×

그림인양 삼삼히 떠오릅니다  
그 붉은기아래  
창조의 흰연기 피어오르던 공장지구  
《발같이노래》 랑랑하던 푸른 전야  
글소리 랑랑한 배움의 창가들과  
집집에 넘치던 행복의 웃음  
그 시절 노동과 행복과 자유의 주인들이  
침략의 불을 지른 날강도 미제의 목대를  
육박의 총창으로 꺾어놓았습니다

×

당이어!  
조선로동당이어!  
기발은 그대의 사상 그대의 리념  
년대와 년대를 넘어 그 기발아래  
세기적인 기적이 솟구쳐올랐습니다  
만년대계의 자립적민족경제의 기념비들

하늘엔 우리의 위성이 날고  
땅우엔 선군선경이 펼쳐지고  
천하를 떨치는 최첨단의 변들이 일어나  
사회주의강성대국!  
나라의 문폐조차 새롭게 달라집니다

×

세상에 없습니다  
그대의 기발처럼 신성한 기발  
이 시각도 우리 장군님 일보시는  
당중앙청사의 지붕우에  
태양의 노을처럼 휘날리며  
충직한 당원들 당원증속에  
수천만 인민들의 심장속에  
흠모와 그리움의 정으로  
파도쳐설레이는 기발

×

우리르면 그 붉은 기폭속에  
인민모두를 따뚝이 안으신  
아버이수령님 태양의 모습 숭엄히 떠오르고  
조선을 미래에로 향도하시는  
천출명장 우리 장군님의 영상  
빛나는 태양같이 안겨와  
오오 우리 당 기발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

×

세기를 넘어 대를 이어갈수록  
로속함과 열정에 넘쳐  
백전백승하는 조선로동당이어  
그대있어  
이 땅우에 우리 인민이 영원하고  
그대있어  
이 하늘아래 선군조국이 영원하나니  
향도의 기발 천세만세 불멸하리라

《우리 당과 우리 공화국은 인민들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며 그들의 운명을 지켜주는 가장 친근한 어머니당이고 어머니  
조국이며 당과 조국의 품은 인민들의 참다운 삶과 행복의 요람으로 되  
고있습니다.》

김 정 일

수기묵음

## 수령형상작품창작의 길로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 품

백 하

나는 문학창작의 길을 걸으며 수령형상작품창작에 온넛을 바쳤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 고매한 품모에 깊이 매혹될수록 크나큰 창작적흥분과 감동을 금할 길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창작생활 전기간 수령형상작품창작과 함께 시문학의 형태와 주제에서도 폭을 넓혀 생활을 반영할것을 결심하였다.

그 결심대로 나는 우리 나라 녀성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강반석어머님을 형상한 서정서사시 《장군님의 어머니》〔주체51(1962)년〕를 창작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막시극 《보통강의 서사시》〔주체60(1971)년〕를 창작하였다.

그러나 처음으로 창작하다나니 시극은 작품의 생리와 격에 맞지 않아 고충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바로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작품에서 작품의 생리와 격에 맞게 과장하지 말고 진실성의 원칙을 지키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완성된 작품공연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도록 하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0(1971)년 4월 27일에 극장에 나오시여 공연을 보시고 장막시극 《보통강의 서사시》는 새로운 형식의 대작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으며 작품은 인민상계관작품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후 내가 쓴 수령형상작품들 한편한편을 한없는 사랑을 다하여 지도해주시었다.

주체61(1972)년 12월이었다.

이때 소집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1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공화국주석으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 력사적사변을 반영하여 내가 쓴 헌시가 《로동신문》에 편집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고인민회의사업을 지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제가 쓴 헌시를 다 읽어주시고 부족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필까지 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헌시의 제목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 드리는 노래》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라고 고쳐주시고 활달한 필체로 친필을 남기시었다.

나는 크나큰 감동을 금할수 없었다.

이 시제목에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국가주석으로 추대되시는 데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칭관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이였다.

이것은 이 시 하나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존칭관사를 어떻게 부르게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어버이수령님을 앞으로 도 영원히 변함없이 《수령님》으로 부르도록 현명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시의 내용에서도 《김일성주석님을 유일중심으로 모신》이라고 한 표현을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우러러모신》으로 친필로 고쳐주시었다.

이미 항일혁명시기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혁명의 수령으로, 단결의 중심으로 모시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 위대한 수령님을 유일중심으로 모시었다는것은 정확치 않은 표현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국가주석으로 높이 추대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을 변함없이 높이 모시는 력사적사변인것이다. 여기에 바로 력사적사변의 본질이 있는것이다.

또한 수령형상시가작품창작에서 형식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수령형상작품에서 형식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것은 창작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나는 1990년대초 백두산밀영에 나가 몇년간 생활체험을 하였다.

여기서 나는 특이한 자연현상을 많이 목격하였다.

그중에서도 아직 눈이 강산같은 백두산지구의 5월에 번개치고 우뢰우는 정일봉의 모습은 나에게 커다란 창작적충동을 주었다.

이때 나의 뇌리에 번쩍인것은 수령형상을 전설화할데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한 가르치심 이였다.

나는 가사 《정일봉의 우뢰소리》를 전설화하여

쓸 결심을 하였다.

그리하여 가사 1절에서 《김정일장군님 불호령 소리에 번개가 내닫는다 끝마다 깨여진다》라고 표현했던 것이다.

수령형상작품에서의 전설화의 형식은 인민의 지향과 감정에 맞으며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 노래를 들으시고 《정일봉의 우뢰소리》는 곡도 잘 지었지만 가사가 좋다고 높이 평가해주셨다.

이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신 며칠 후였다.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노래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문학창작의 최대의 목표이며 과업인 것이다.

또한 수령형상작품창작은 나의 창작적소원이며 창작목표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수령형상작품창작을 희

망하는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걸음걸음 따듯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었다.

이렇듯 받아안은 사랑은 끝없는데 최근에 또다시 국립연극단에서 새롭게 형상한 김일성상계관작품 경희극 《산울림》을 친히 보아주시고 공연과 관련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는 자리에서 경희극 《산울림》을 창작한 작가와 함께 저의 이름까지도 친히 불러주시며 자신께서 잘 알고있는 작가라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었다.

자신께서 아시는 작가! 이보다 더 큰 사랑과 믿음, 영광과 행복이 어디에 있겠는가.

나는 오늘에 또다시 받아안은 이 행복, 이 영광을 가슴에 간직하고 분발하고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노래하는 수령형상작품을 더 많이 창작하여 이 믿음, 이 사랑에 천백배의 창작성 과로 보답하겠다는것을 결의한다.

## 행운의 한생

현 승 남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65돐을 맞는 10월의 이 아침 나의 가슴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로 그들먹이 차오른다.

돌이켜보면 나의 한생은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인간으로서, 작가로서의 성장의 한길을 곧바로 걸어온 행복한 한생, 행운아의 한생이었다.

이 땅에 생을 누리는 그 누구나 다름없이 키워주고 안아주고 내세워준 그 품이 아니었다면 나의 오늘과 같은 운명을 생각할수 있겠는가.

사방이 험한 산밭들로 짙 둘러막힌 관산군의 한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작가가 되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보지 못한 나로서는 생각할수록 꿈만 같다.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뜻밖의 일로 어머니를 잃고 고향의 협동농장으로 진출했던 그때만 해도 나는 문학이라는데 대하여서는 생각도 못했으며 그 어떤 자애깊은 손길아래서 내가 자라고있는가에 대하여 깊이 모르고있었다.

내가 어머니의 지계를 메고 흙밭이작업장으로 가던 그 논밭길에서도 당은 나를 지켜보고있었으며 구레나룻이 유포한 분조장아바이의 성이 난것 같은 그 엄한 꾸짖음속에서도 나를 아끼는 다심하고 깊은 웅심에 대하여 그때에는 미처 다 몰랐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꾸짖곤 했다.

《이녀석, 그만큼 타일렀으면 공불 해야지, 웬 고집이냐. 안돼.》

하지만 나는 입술을 감쳐물고 일할 생각밖에 없었다. 언땅을 까내는 곡괭이질이나 지레대질에서는 그래도 녀인들보다는 내가 펴 나았다. 하지만 분조장아바이는 저녁총화때마다 매 분조원들의 로력일평가를 해주면서도 나만은 본체도 안했다.

그렇게 한달이 지난 어느날 저녁이었다.

오늘도 무보수로동이구나 하고 덤덤히 분조원들의 뒤에 앉아있는데 평가를 다 하고난 분조장아바이가 이윽도록 나를 바라보더니 《어제 밤에두 토

론이 있었지만 저녁석은 어떻게 하자우?》하고 느닷없이 거원 목소리로 물었다. 한동안 의아해서 눈맞춤을 하던 분조원들속에서 당원아주머니(그때 분조에는 녀당원이 그 하나뿐이었다.)가 말귀를 알아듣고 말했다.

《야야 우리 녀자들 두배, 세배 했지요. 그러나 일보다도 그 마음이 자라는게 더 큰것이 아니겠소. 난 저 엘 공부시켰으면 하우.》

아직은 나이도 어리고 책상물림인 내가 정말 분조원들의 두배씩 일을 했을가?! 눈곱이 뜨겨워났다. 그때 내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당조직에서는 농장에서 우리 형제문제를 놓고 마음을 쓰고있었으며 지난 밤에도 세포에서 토론이 있었던것이다.

분조장아바이는 공수를 적어놓은 로력일수첩을 내 손에 들려주었다. 그 수첩은 나의 첫 사회생활의 《합격증》이요 《생활대학》입학통지서나 같은것이였다. 그리고는 이제 조치가 있겠지만 일단 일이라구 하지 말고 마음을 크게 먹고 공부할 생각을 하라고 하는것이였다.

그날부터 뜻밖의 일들이 연이어졌다. 우리 집에 땔나무가 마당가에 쌓이기도 했고 저녁에 늦어돌아오면 누구인가 저녁밥을 지어놓기도 하였으며 방구석에 궁쳐두었던 빨래감들이 하얗져서 빨래줄에 걸려있기도 하였었다.

얼마후에야 나는 그 모든 일들이 리당비서와 부락당비서의 세심한 보살핌에 의한것임을 알게 되었다. 솔직히 우리 형제는 언제나 한번 고아라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으며 후에 평양에 와서 살면서도 생활에서 아무런 근심도 몰랐으니 점차 내 마음속에 기동처럼 세워진것은 일찍 부모를 잃은 내가 전적으로 의탁할데는 당조직이라는 목메인 믿음이였다.

그러면서도 나는 자주 빈민에 잡기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화학과 의학, 력사학의 갈림길에

서 우왕좌왕하던 철부지과거를 종화하고 새 희망을 갖고싶은 충동이 마음속깊이에서 꿈틀대고있었던 것이다.

길지 않은 나의 인생길에 받아안은 고마움을 세상에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는 충동으로 잠을 못 잤다. 나는 이 마음속 생각을 내가 생활하는 기관의 당조직을 찾아가 털어놓았다. 그때 내 손을 잡아 주며 하던 당일군의 말이 지금도 쟁쟁하다.

《웁소. 그런 글을 써야 돼. 난 절대찬성이요.》 리기영, 천세봉, 황건, 윤세중, 리원우... 선배작가들의 작품과 작가수업과 관련한 글을 통달 하디싶이 읽으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우고 습작도 해보았으나 그 높은 세계는 쉽게 나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나 잠재울수 없는 그 소망으로 하여 나는 마음속에 채색을 없으며 밤을 잊고 살았다.

그후 나는 평양식물원(당시) 탐사수집대에 옮겨가 온 나라를 편답하며 자기 맡은 일을 하면서 벅찬 현실을 문학적으로 감수하며 내만의 본격적인 수업도 하였다. 그리하여 주체61(1972)년 첫 작품으로 아버지수령님을 형상한 단편소설 《전사의 아들》을 발표하는데 이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단편소설 《수삼나무》를 발표하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나를 위해 기울이는 우리당의 세심한 사랑에 대해 다는 모르고있었다.

어느날 식물원 초급당비서가 나를 찾는 것이었다. 방에 들어선 나는 어리둥절했다. 초급당비서와 함께 식물원원장선생이 두편의 내 작품을 앞에 놓고 엄숙한 표정으로 마주앉아있었던 것이다.

당비서의 말이 내 가슴을 쿵 울리며 들려왔다. 《현동무, 어제 밤 나와 원장동지는 자기의 사업을 돌이켜보았소. 이렇게 좋은 글을 쓴 동무를 잘 도와주지 못한 문제를 놓고 말이요.》

원장선생도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 동무를 식물전문가로 키우려고 했는데... 쓰오, 우리 수령님에 대한 글을 계속 쓰시오.》

나의 부모인들 그렇듯 뜨거운 말을 절절하게 해주겠는가!

당조직에서는 그후부터 나의 창작조건보장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주었으며 고무해주고 떠밀어주었다.

그 다음해에는 전혀 꿈에도 생각 못했던 행운이 안겨졌다. 내가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작가양성반(당시) 제 1 기생으로 선발되었던 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그때 작가양성반 제1기생들에 대하여 료해하시면서 작가후비육

성사업과 관련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가슴 뜨거운 이야기는 이미 문단에 널리 알려졌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희망대로 문예출판사(당시) 편집원을 거쳐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작가로 자라났고 오늘은 창작지도일군으로 되었다.

당창건 65돐을 맞으며 내 성장에 깃든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을 생각하느라니 절로 눈곱이 젖어 들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 너무도 행복했고 자랑 많고 긍지로운 행운아의 한생이라는 목메임으로 해서이다.

내 한생의 행운이 과연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그것은 내 인생의 아버지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님친 사랑속에서, 당의 품속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당의 사랑과 믿음에 비하면 그 보답이 따라서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만 하다.

나는 지금까지 창작한 소설들과 예술산문들에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조국, 우리 제도의 위대함과 고마움에 대하여 하나라도 더 진실하게 사실 그대로 쓰려고 노력하였지만 그 미숙함에 죄스러운 마음뿐이다.

나를 키워주고 내세워준 위대한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자식으로서의 웅당한 도리를 다하자면 나의 지혜, 나의 정열이 너무나도 부족한 것만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그럴수록 나는 스스로 마음속에 채색을 없군 한다.

가슴가득 부풀어오르는 감회속에 나는 우리 작가들의 세계를 둘러본다.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것이 어찌 나 한사람 뿐이겠는가. 그 품에서 자라난 새 세대 작가들이 오늘은 우리 소설문단을 떠메고나가는 든든한 기둥으로 되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 문학의 밝은 앞날을 확신하게 되는 것으로 하여 절로 마음 든든해진다.

이제 그 품속에서 또 얼마나 많은 행운아들이 자라나 우리 대오에 들어설 것인가!

이 땅의 평범한 아들딸들의 재능을 찾아주고 꽃피워주어 시대의 행운아로 키워주는 은혜로운 사랑의 품, 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품이고 우리 당의 품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며 행복한 한생을 보낸 나는 앞으로도 영원히 그 품을 노래하며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헌신하겠다는 것이 10월의 아침 당에 드리는 내 심장의 절절한 고백이다.

## 한 당원의 어제와 오늘, 래일

비전향장기수 손 성 모

10월이다.

참으로 무한한 감개가 온몸과 마음을 서서히 휩싸안는다.

내 조국의 모든 명절을 맞을 때도 그러하지만 당원으로서 우리 당이 태어난 이날을 맞을 때면 세월의 무궁함과 더불어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한

당원이라는 자부심과 긍지가 심장을 짝 채운다.  
65육이라는 이 년륜에 새겨져있는 우리 당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  
나의 당생활은 대부분이 적구의 감옥에서 흘러갔다.

감옥이라 하면 철저히 외부와 격폐된 세계이다. 자기의 조직생활은커녕 사상과 언론, 행동의 모든 자유가 철저히 빼앗긴 세계이다. 세계 어느 역사를 돌이켜보아도, 감옥생활을 많이 한 혁명가들의 리력을 들추어보아도 감옥안에서까지 당생활을 진행한 전례를 찾아볼수 없다.

그러나 우리 조선로동당의 당원들은 그 고립무원하고 엄혹한 감옥세계에서도 당생활을 진행하였다. 혼자든, 둘이든... 마음은 철저히 조선로동당의 변함없는 당원이었다.

영광의 65번째 10월이 오니 나는 옥중에서의 나의 성스러운 당생활을 돌이켜보게 된다.

한것은 어찌로 흘러간 나의 그 당생활이 있어 오늘의 긍지높은 삶을 말할수 있고 래일에도 변함이 없을 조선로동당의 한 당원의 맹세가 있기때문이다.

다시말하건대 나는 한생의 많은 나날을 적구의 감옥에서 보내었다. 하다면 이것이 당원으로서의 내 인생에 공백기라고 할수 있겠는가. 나는 이런 물음에 《아니다.》라고 명백히 대답할수 있다.

나의 인생에 곡절과 시련이 많았지만 어버이수령님을 따르는 당원의 시간에는 순간의 정지도 없었음을 긍지롭게 자부한다.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있었어도 당은 언제나 나의 심장속에 있었으며 당원으로서의 나의 시간은 순간도 멈춤을 몰랐다.

적구에 홀로 있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자신을 당조직앞에 세우고 자신의 생활을 총화해보곤 하였다. 감옥생활이 오래 지속될수록 나날이 커가는 고통은 배고픔과 추위가 아니라 당생활을 할수 없는 그것이였다. 당원으로서 자기의 생활을 당원동지들앞에 털어놓고 또 서로 충고와 조언도 주는 그러한 생활이 없는 고독이야말로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것이 아닐수 없었다.

그때 내가 있던 사동에는 당원이란 나를 포함하여 두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우리는 감옥안에서 자체로 당생활을 하기로 하고 여기에 조직은 없다 할지라도 서로가 세포비서가 되어 의견도 주고 방조도 주면서 변함없이 당원답게 보람있게 살아가자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둘중 누구에게든 기회가 생기면 우리의 옥중투쟁과 당생활에 대하여 당에 보고드리자고 하였다. 이렇게 나는 감옥에서 두사람이 세포비서이자 세포당원이기도 한 이례적인 당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와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생활하게 되니 외로움도 가셔지고 끝까지 투쟁할 각오도 더 굳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그해말 전방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1월에 있는 단식투쟁의 결과였다. 그런데 놈들은

비렬하게도 다른 동지들을 15사로 보내고 우리 두사람은 다른 사동으로 전방시켰는데 그마저도 2층과 3층으로 따로따로 분리시켜놓았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 어떻게 하나 전향시켜보려는것이였다.

우리는 이 처사에 수수방관하지 않았다.

1990년대초 나는 한방에 있는 동지와 토의하고 15사에로의 전방을 요구하여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단식 5일만에 적들은 끝내 우리에게 굴복하고말았다. 우리는 드디어 그리도 그림던 동지들이 기다리는 15사로 가게 되었다. 15사는 어디든 감옥인것은 마찬가지였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동지들이 있는 곳은 사랑, 희망 등 인간의 온갖 정과 행복이 있는 곳이였다.

15사의 동지들은 20년, 30년, 지어 거의 40년이나 옥중투쟁을 해온 동지들이였다.

나는 그들을 보며 생각하였다. 나도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까.

나는 나의 이 속생각을 신동지에게 털어놓았다.

나의 이야기를 들으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있던 신인영동지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미 혁명의 길에 나설 때 3대각오를 한 사람들이다. 무엇때문인가. 우리의 위업이 정당하고 조국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목숨바쳐 싸우는것이 우리들, 조선로동당원들의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었기때문이다. 세월이 문제가 아니다. 이 믿음에 변함이 없을 때 우리는 몇십년이고 끝까지 혁명적지조를 지켜 싸울것이며 설사 죽는다 해도 당과 조국의 기억속에 영생할 때 우리는 행복할것이다. 나는 손동무도 그렇게 살수 있으리라 믿는다.》

나는 그때 신동지의 근엄한 모습을 보며 인생의 먼길을 혁명가로서, 당원으로서 가장 아름답게 빛내여가리라 마음다지였다.

그날 밤 나는 독감방에서 밤을 지새우며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았고 당원으로서 지금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를 곰곰히 생각해보았다.

다음날 운동장에서 잠깐 만났던 한 동지가 나에게 귀중한 조언을 주었다.

《손동무가 **김일성**종합대학을 나왔다니 참 부럽소. 게다가 교원생활도 했는지요?》

그는 나의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오래동안 조국과 떨어져있는 동지들에게 날로 강화발전되는 우리 공화국의 참모습에 대하여 알려주어 그들이 진보적인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사회의 각이한 사람들이 모여든 이 감옥에서 우리 혁명의 동정자, 지지자들을 더 많이 전취하도록 하는것이 지식인 당원으로서의 본분이 아니겠는가고 말하는것이였다.

순간 나는 눈앞이 환히 트이는것 같았다.

일단 목적이 정해지자 수많은 계획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단조롭고 고독한 감옥생활에 새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였다. 그때는 봄이였다.

나는 어느 무정한 손에 뽑혀 덩굴던 이름모를 풀 한포기가 뿌리를 이악하게 토양속에 박으며 몸을 일으켜세우는 모양을 기쁘게 편상하였다.

그후 나는 수십년동안 조국과 떨어져서 생활해 온 동지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우리 공화국의 현실에 대하여 이야기해주었다. 나는 이것을 나에게 맡겨진 당적분공으로 여기었다.

물론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마다 나는 잊을수 없는 **김일성**종합대학시절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숭고한 당조직관념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곤 하였다.

나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천재적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장군다운 담력과 배짱, 해박한 지식, 인자한 품모를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심을 생동한 실례를 들어가며 이야기해주었다.

이렇게 하여 나는 우리 동지들이 수십년간 멀리 떨어져 살아온 조국의 현실을 알게 하고 혁명승리에 대한 신념을 더 굳게 가지도록 하는데 적으나마 기여할수 있었다.

그후 나는 또다시 전주교도소으로 이감되게 되었다.

이곳에서의 당생활도 활발히 진행되어나갔다.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정치학습과 당적분공이 조직되고 어김없이 집행되곤 하였다.

뿐만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탄생일, 당창건기념일, 공화국창건기념일이면은 밀히 기념일의 성격에 맞게 학습도 진행하였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이러저러한 경로를 통해 입수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로작들에 대한 학습도 진행하고 위대한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장편소설로 형상한 《피바다》, 《꽃파는 처녀》를 비롯한 혁명소설들과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봄우뢰》, 《1932년》 등 소설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며 학습을 심화시켜나갔다.

학습시간에 수령, 당, 대중의 호상관계문제를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사상에

대하여 진지하게 학습하던 수인복차림의 머리희스한 동지들의 모습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

옥중투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당생활은 계속되었으며 순간의 공백도 없었다.

조선로동당원의 녀이 살아있는 한 당원은 어디에서도 결코 외로움을 모르며 당원의 마음속에는 고독이 깃들 자리가 없다.

그 녀이 있어 눈보라가 세찰수록 더 거세게 머리쳐드는 푸른 소나무처럼 우리 당원들의 신념은 가혹한 그 시련의 나날에 더 굳세어진것이 아니겠는가.

옥중에서의 당생활, 그것은 살아도 죽어도 오직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당원들의 신념과 의지가 낳은것이였고 조국을 떠나 멀리 적구에서도 우리들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어나갈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다.

나와 우리 동지들이 조국의 품에 안긴지도 꼭 10년이 되었다.

조선로동당원의 녀, 혁명가의 신념과 지조를 지켜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품에 땀땀이 안길수 있는 긍지높은 삶에 대한 자부를时时각각 느끼며 살아온 세월의 10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도 있지만 정말로 내 조국땅에선 10년이 아니라 몇십년이 걸려야 할 기적같은 변이 많이도 창조되고 세기와 세기를 걸쳐 우리 인민이 품어온 꿈과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는 희한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나는 이 모든것이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신 덕이고 위대한 우리 당, 조선로동당의 향도를 받은 덕이라고 생각한다.

이 감회에 싸여, 이 자부에 겨워 영광의 이 10월에 나는 심장이 부풀도록 우리 조국의 래일을 확신하거니.

아, 우리의 위대한 조선로동당이여!

그대의 품에 인생을 맡긴 자식들, 수백만 당원들이 그대의 향도를 받들어 오늘의 벅찬 시대를 창조하고있으니 그대와 더불어 우리 조국의 세월은 년년이 더욱 부강하리라, 무궁번영하리라!...

가 사

## 오늘소식을 들었습니까

림 학

해췌으면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하는 아침 첫인사

—오늘소식을 들었습니까?

아 장군님의 현지도소식

신문으로 보았어도 더 알고싶네

마을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넘쳐 하는 아침 첫인사

—오늘소식을 들었습니까?

아 장군님의 현지도소식

가슴에 새길수록 더 듣고싶네

내 나라의 번영 위해 헌신의 먼길 가시는

아버이의 안녕바래 하는 첫인사

—오늘소식을 들었습니까?

아 장군님의 현지도소식

인민의 순결한 그리움이라네



# 믿음의 정치철학은 천하를 얻고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한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돐기념 단편소설집(3)  
《크나큰 믿음》에 대하여 —

김 용 부

일심단결, 이것은 한평생 믿음과 사랑의 정치철학을 펴오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의 온갖 풍상고초를 다 겪으시며 몸소 심으시고 키워오신 헌신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단편소설집 《크나큰 믿음》에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베푸신 믿음의 철학세계를 사랑의 서사시로 아름답게 그리고 진실하게 펼쳐놓고있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혁명전사와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 한평생을 오로지 믿음과 사랑의 정치를 베푸시는 인민의 수령의 위대한 귀감이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믿음의 정치철학을 펴시어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시고 천하를 얻으신 위대한 인민의 수령이시였다.

바다처럼 넓고 깊은 믿음, 하늘처럼 높고 넓은 믿음… 풍부한 우리 말도 너무도 다심하고 너무도 뜨거워 신비스러운 정도의 이 숭엄한 믿음의 세계를 적중하게 나타낼수 있는 표현을 찾을수 없다.

우리 수령님의 믿음은 무한대한 믿음이었다.

단편소설집(3) 《크나큰 믿음》에 오른 모든 작품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무한대한 믿음의 철학세계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여기에는 혁명의 승리에 대한 굳은 확신과 우리 혁명의 1세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그린 단편소설 《원정대 1번수》(김청수 작), 《해빛》(고병삼 작), 《불타는 백설》(박운 작), 《유격구의 보름달》(문상봉 작)도 있고 인민군영웅전사들에 대한 열렬한 믿음을 레찬한 단편소설 《의리》(정창운 작), 《우리의 하늘》(조상호 작), 《탑에는 누가 서있는가》(전창철 작)도 있다. 그리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들에게 베푸시는 우리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 단편소설 《조선의 5월》(리성덕 작), 《금수강산》(김련화 작), 《무궁한 숲》(박찬은 작)도 있고 지식인들에 대한 믿음을 지성도가 높게 그린 단편

소설 《고루의 금반지》(백보흠 작)도 있다.

혁명의 길에서 일시적과오를 범한 사람들도 모두 믿으시고 혁명대오에 다시 세워주시며 반공에 물젖었던 옛 독립군 두령까지도 애국자로 높이 내 세워주시는 우리 수령님의 믿음의 세계를 감명깊게 그린 단편소설 《세월》(박춘섭 작), 《벗은 만사람도 적다》(리영환 작), 《바다》(리명균 작)도 있으며 외국인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노래한 단편소설 《골초브의 봄》(김명익 작)도 있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의 믿음은 한계가 없는 무한대한 사랑과 믿음의 바다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은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우리 수령님의 믿음에는 만일이란 없었으며 순간의 의심조차 상상할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었다. 만일은 해명되어도 가슴속에 상처를 남길수 있으며 의심은 배신을 낳을수 있다는것이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철석의 신념이시였다.

단편소설 《원정대 1번수》와 《벗은 만사람도 적다》가 이를 예술적으로 확증하여준다.

단편소설 《원정대 1번수》의 홍범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1차북만원정에 참가한 로투사이다. 엄혹한 행군속에서도 대원들을 고무하며 입술이 얼어터져나가면서도 하모니카로 《혁명군의 노래》를 부르던 원정대하모니카중주단의 1번수였다. 그러나 장티브스치료도중 왜놈 《토벌대》의 기습으로 대오를 리탈한 후 끝끝내 부대를 찾지 못하고 해방을 맞았다. 그의 행방불명을 두고 항일의 백전로장도 이미 배신자라고 락인을 찍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그렇게 믿지 않으시였다.

우리 수령님의 믿음은 한치의 드림도 없이 정확하였다. 홍범은 변절한것이 아니라 수령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모니카와 함께 언제나 원정대 1번수로 살아왔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그를 사랑의 넓은 품에 안아 항일투사들의 대오속에 다시 세워주시였으며 1차북만원정대를 형상한 그림속의 주요 인물로 부각시켜주시였다.

벗은 만사람도 적다는것이 우리 수령님의 지론이다.

단편소설 《벗은 만사람도 적다》가 이 위대한 진리를 예술적화폭으로 확인하고있다. 백일훈, 그

는 위대한 수령님의 길림시절의 옛벗이다. 주체19(1930)년 가을 그와 헤어졌는데 17년만에 배반자, 협잡군, 간상배의 루명을 쓰고 나타났다. 게다가 장물통증에 걸려 침대우에 누워있는 상태이다. 한때 독립군이였으며 지금은 북조선검찰소 부소장인 홍진범도 어릴 때의 친구인 그를 배척하고있다.

어떻게 하실것인가. 우리 수령님께서서는 드디어 결심을 내리시였다.

《우정이란 무엇입니까? 믿음과 사랑, 의리지요. 일부 사람들은 혁명가들이 벗과 우정을 범속한것으로 생각하는줄 아는데 나는 공산주의자들일수록 벗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벗은 만사람도 적습니다. 많은 벗들과 동지를 얻는것은 내가 우리 아버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중의 하나입니다. …》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병원으로 가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몸소 립회인이 되시여 수술을 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만일을 모르는 절대적인 믿음이 벗을 육체적으로뿐아니라 정치적으로 부활시켰으며 마음속의 자그마한 상처도 남기지 않고 말끔히 가셔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무한대하고 절대적인 믿음이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였다.

혁명전사들에 대한 믿음이 강도 일제를 때려눕히고 민주의 새 조선을 일떠세웠고 인민군영웅전사들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미제를 타승하고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였으며 우리 인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빈터우에서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웠다.

단편소설 《크나큰 믿음》(허창득 작)은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믿음을 궁지롭게 노래한 작품이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수행되고있는 사회주의건설장에서는 어디서나 로력을 요구하였다. 이 로력을 무엇으로 충당한다 말인가. 경제일군모두가 안타까와 전전궁궁할 때 이 묘술을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찾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200명의 로력을 내놓겠다고 하는 어느 한 방직기계공장의 실태를 보고받으시고 현지도도를 하시였다. 몇달전만 하여도 500명의 로력을 달라고 지배인이 우는 소리를 하던 공장이다. 그런데 바로 그 지배인이 지금 당장 200명의 로력을 내놓겠다고 한다. 게다가 산업텔레비죤화까지 하겠다고 한다. 무슨 배짱으로… 리유는 간단하였다. 그것은 이 공장에 실습나온 평양기계대학, 김책공업대학(당시) 학생들이 대담한 기술혁신으로 생산성과를 올리고있었기때문이었다. 일군들도 이제는 인해전술이 아니라 기술혁신에 생산제고의 비결이 있다는것을 파악하고있었다. 바로 이것이다! 생산적양양과 긴장한 로력의 해결

방도도 바로 기술혁신에 있다. 그런데 그 담당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드디어 결심을 내리시였다. 대학생들에게 맡기자. 우리에게는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현대적인 과학기술을 배운 혁명적인 새 세대, 대학생청년들의 위력한 대오가 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는 사상, 기술,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해 대학생들을 망라한 3대혁명소조를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파견하는 대담한 조치가 취해졌다. 청년대학생들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이 우리 당의 로선으로 승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절대적인 믿음이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는 창창한 큰길을 활짝 열어놓았었다.

단편소설 《3월》(김문창 작)이 펼쳐놓은 우리 수령님의 믿음의 세계도 가슴뜨겁다.

사회주의공업화의 길에 전면적으로 들어서던 시기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는 어디서나 철과 기계를 요구하였다. 특히 공작기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비약의 나래를 펼수가 없었다.

수령님의 심중은 복잡하시였다. …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멀리 북방으로 현지도의 길에 오르시였다. 어느 한 군의 자그마한 직물공장을 현지도하시던 수령님께서서는 고급중학교(당시)를 갓 졸업한 단발머리치녀선반공이 오랜 기능공과 함께 만들어놓은 불품없는 단능선반기를 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믿음에 찬 눈길로 치녀선반공의 작은 가슴에서 타오르는 새로운 혁신의 불꽃을 보시고 그것을 전국에 일반화시킬 대담한 구상을 하시였다. 이리하여 우리 당의 경제건설력사에 큼직한 자욱을 남긴 공작기계새끼치기운동의 봉화가 타올랐다. 일군들의 눈에는 범상한 일로 보이던 일이 믿음의 정치철학을 좌우명으로 삼고 계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안목에 의해 새롭고 대담한 로선을 제시하시는 범상치 않은 일로 전환되였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모든 소설들은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기적들이, 이 땅에 솟아오른 모든 대기념비들이 이렇게 창조되였다고, 우리 수령님의 믿음의 정치철학이 자주의 새 세계를 창조하였다고 궁지에 넘쳐, 환희에 휩싸여 소리높이 웨치고있다.

×

수령형상단편소설에서 사상의 철학적심오성은 예술적일반화의 폭과 깊이에 의하여 담보된다. 하나의 작으면서도 큰 이야기를 담아야 할 수령형상주체의 단편소설에서 예술적일반화의 수법을 능숙하게 리용하는것은 작품의 성과와 직접 련결되어있다고 말할수 있다.

예술적일반화, 이것은 생활반영의 폭과 심도에 관한 문제이다. 하나의 작은 이야기를 통하여 크고 심각한 사회적의미를 밝혀내고 부분을 가지고 그 전체를 포괄적으로 그려내게 할 때 일반화의 심도도 보장되고 심오한 철학성도 담보된다.

폭, 이것은 생활의 여러 측면을 작품에 그리는 의미만이 아니다. 생활의 폭, 이것은 현재 그 작품자체의 폭이라기보다 묘사된 생활속에 담겨진 형상적의미의 폭이고 독자들의 머리속에 2차, 3차적으로 환기되는 련상생활의 폭이다.

단편소설 《의리》는 조선인민군 제71사 사단장 박청덕에 대한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다. 조국해방전쟁시기 조선인민군 71사의 명칭을 다른 부대에 줄것인가 말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총참모장을 비롯한 지휘성원들은 고심하고있었다. 적들은 방송으로 71사가 괴멸되었다고 불어대고있었다. 총참모장도 71사는 이미 이 세상에 없는 사단으로 치부하고 새로 편성되는 사단에 71사의 명칭을 주자고 한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박청덕과 그의 전사들을 믿으시고 71사는 살아있으며 71사의 군기는 반드시 그들의 사단과 함께 빛날것이라고 굳게 믿으셨다. 우리 수령님의 믿음은 기적을 낳았다. 71사는 살아있었으며 적후에서 용감히 싸웠다. 71사와 사단장 박청덕에 대한 믿음, 자그마한 이야기속에서 퍼낸 이 믿음은 점차 증폭확대되면서 준엄한 시련속에서 싸운 전체 조선인민군 군부대와 구분대, 전체 인민군지휘관들과 병사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믿음의 세계로 폭을 넓히고있다.

단편소설집 《크나큰 믿음》에 오른 모든 소설들은 한결같이 일반화의 심도를 보장하여 하나의 작으면서도 큰 이야기, 평범하면서도 평범치 않은 생활속에서 철학적진리를 심오하게 발견하고있다.

단편소설 《탐에는 누가 서있는가》는 평범한 인민군취사병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믿음을 감동깊게 그리고있다. 전선에서 취사병, 그것은 정찰병들이나 습격조원들에 비해보면 그리 중요한 직무라고 볼수 없다. 그러나 우리 수령님께서는 그도 영웅으로 내세워주신다.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소설에서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평범하고 소박한 보통병사들의 영웅적희생정신이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냈다는 위대한 진리를 확증해주고있다.

단편소설 《새 조선의 첫 봄에》(류도희 작), 《압록강반에서》(엄단웅 작), 《소금은 녹지 않는다》(최영조 작)도 마찬가지로 설명할수 있다.

이처럼 단편소설집에 오른 주옥같은 작품들은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생활의 가장 작은 단면을 다루면서도 일반화의 폭과 심도를 훌륭히 보장하여 보석처럼 빛을 뿌린다.

작품집에 오른 모든 소설들은 특색있는 구성조

직으로 극성과 철학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수령님께서 지니신 믿음의 철학세계를 진실하고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백일훈 (단편소설 《벗은 만사람도 적다》), 그는 배신자로, 협잡군으로, 모리간상배로 죽어야 하는가 하는 정치적생명선의 한계점에 놓여있다. 홍범 (단편소설 《원정대 1번수》), 그도 역시 변절자로 낙인되어 영영 정치적으로 매장되어야 하는가 하는 생사의 기로에 서있다.

단편소설 《세월》의 김군철도 마찬가지이다. 그는 전쟁시기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경순양함을 격상시킨 영웅정대장이다. 그러나 그는 60년대에 우리 수령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용서받을수 없는 파오를 범하였다.

이처럼 수령님께서 상대하고계시는 모든 인물들은 재생불가능의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믿음의 정치철학의 참다운 체현자이시며 귀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을 굳게 믿으시고 재생의 길을 열어주시였다. 그들이 범한 파오가 큰만큼 믿음 또한 크고 뜨겁고 열렬한것이다.

해석급전의 수법을 능숙하게 리용하여 믿음의 정치철학이 주는 정서적충격의 세기도 높이고있다. 해석급전은 본질에 있어서 이미 기정사실화된 예상을 뒤집고 새로운 철학적진리를 밝혀내는 수법이라고 말할수 있다. 해석급전의 정서적충격은 실로 크다.

단편소설 《압록강반에서》는 외국에 류학을 갔던 한 청년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라는 급보를 받고 대사관일군들의 만류도 뿌리치고 총을 잡으러 조국에 달려나오는 이야기를 펼치고있다. 얼마나 장한 일인가. 웅대한 일이기도 하였다. 병사 한사람, 한사람이 귀중한 때에... 그러나 수령님께서는 그를 다시 공부하러 외국에 들여보내시였다. 사람들의 예상은 뒤집혀졌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복구건설의 기둥감들을 준엄한 전화의 나날에 키우셨던것이다. 홍범, 백일훈, 김군철도 이러나저러나 뿔뿔하고 궁지로운 인생을 걸어온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모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처럼 숭고한 정치철학으로 그들을 다 믿어주시고 사랑의 한품에 안아 영광넘친 혁명의 대오속에서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였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소설들에는 뜻깊고 인상깊은 생활세부도 특색있게 탐구설정되어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믿음의 철학세계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하나의 뜻깊고 인상적인 세부를 통하여 성격과 생활의 전모를 보여주는데 심오한 철학성을 보장하는 비결이 있다. 작가들은 바다가에서 사금을 고르듯 구슬같은 세부들을 골라 그자체로 소설을 엮어가기도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의 흐름에 자연

# 장산리의 추억

한 원 희

장산리 장산리  
장산에도 옛 민주선전실  
추억도 추억이 많은 집

여기에 있네  
못 잊을 옛 사진들  
못 잊을 옛 당원들  
엄폐덕, 안인실, 리석곤...

가물거리는 등잔불빛아래  
전시식량을 더 많이 내자고  
당세포회의를 열었던 당원들  
아버이수령님께서 오시어  
조용히 앉아계신줄 몰랐던 사람들

장산리 장산리  
장산에도 옛 민주선전실  
추억도 추억이 많은 집

회의 휴식참에 풍금에 맞추어  
노래노래 즐겁게 불렀네  
—아 장군님 주신 땅  
에루화 데루화 모두다 펼쳐나 밭갈이 가세...

어깨에는 위장그물  
적기의 폭격속에 김을 매던 모습들  
준엄한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억센 그 마음 억센 그 노래  
아버이수령님 프락을 거니시며

조용히 들으시고계실줄 몰랐었지

먼 후날  
행복한 나날에 찾아오신 수령님  
그들은 전화의 나날에 나에게 힘을 주었다고  
차마 못 잊어 못 잊어하시던  
장산땅 장산리사람들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에  
아버이수령님 모습으로  
장산리를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감회깊이 추억깊이 보아주셨네  
못 잊을 옛 사진 옛 당원들

그리고 또 사랑다해 만나주셨네  
그날의 발같이노래 이어부르며  
불비 쏟아지던 전화의 그때처럼  
불타는 한마음 농장별 가꾸어가는  
오늘날 새 세대 농장원들

장산리 장산리  
장산에도 옛 민주선전실  
추억도 옛 추억이 많은 집

세월은 세월에 이어지고  
추억은 추억에 이어지리  
그 세월우에 성스러운 그 추억우에  
장산리 무릉도원은 더 높이 솟아오르리  
내 나라 내 조국은 더 높이 빛나오르리!

스럽게 박아넣어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믿음의 철학세계를 비상히 높은 경지에 올려세우고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진실하게 보여주었고있다.

단편소설 《고루의 금반지》에서는 우리 수령님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금반지세부가 다 말해주고있다. 소설에서는 평범한 금반지가 믿음과 사랑의 금반지로 승화되었다. 그 금반지가 통일애국인사들에 대한 우리 수령님의 사랑과 믿음 전체를 말해주고있다.

단편소설 《탐에는 누가 서있는가》도 생활적이며 심리정서적인 세부로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신 믿음과 사랑의 숭고한 품모 전모를 강한 력점을 찍어 인상깊게 보여주었고있다.

승리라는 글자가 새겨진 손수건세부, 아버지의 얼굴도 모르는 어린 아들에게 사과를 깎아주시는 세부, 안해에게 보낸 남편의 소박한 편지세부, 아버지수령님의 위인상을 감동깊게 보여주는 이 모든 생활적이며 심리정서적인 세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철학세계에로 독자들을 강력한 견인력으로 끌어들이고있다.

이외에도 이야기흐름과 함께 부단히 반복심화되는 단편소설 《원정대 1번수》의 하모니카세부, 《무궁한 숲》의 표식주세부들도 인상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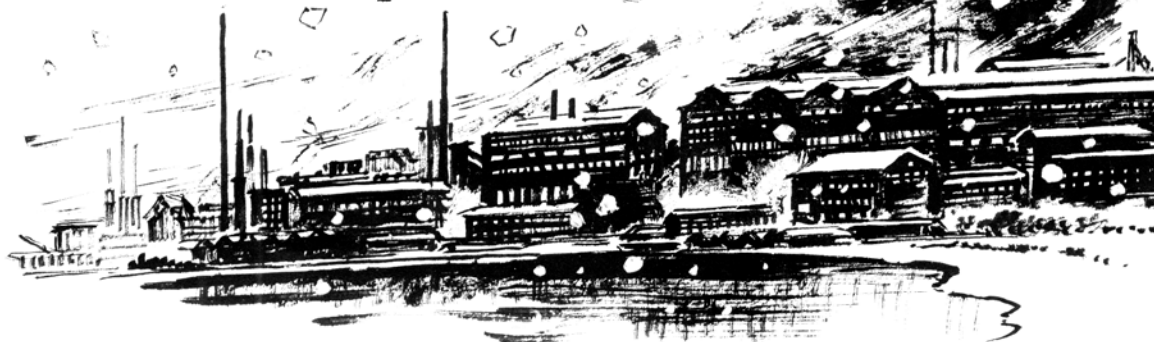
참으로 단편소설집(3)은 보석같은 세부들이 가득차있는 하나의 보물창고를 편상시킨다.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0돏기념 단편소설집(3) 《크나큰 믿음》은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비약의 나래를 활짝 펼치고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앞으로도 수령형상작품들을 계속 왕성히 창작해냄으로써 당의 작가로서의 혁명적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 12월과 12월



림 봉 철

1

새벽 5시, **김정일** 동지께서는 숙소의 넓은 홀에 접이의자를 펼쳐놓고 앉으시었다. 잠시 주위를 일별하신 그이께서는 의자를 끄당겨 전등불아래 비스듬히 중심위치를 잡고 고쳐앉으시었다. 리발을 하시려는 것이었다.

얼마 안있어 왼쪽으로 꺾인 1층복도에서 리발사가 나타났다. 그는 한쪽만 걸친 위생복에 왼쪽팔을 마저 찢러넣느라 허둥거리며 자꾸만 헛손질을 하고있었다. 그때마다 리발도구주머니에서 쇠붙이들이 마주치는 소리가 차갑게 들려왔다.

《조용히…》

장군님께서서는 입가에 손을 세워드시며 침실쪽을 향해 눈길을 그으시었다.

거기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동행하여 복변의 기계공장들을 돌아보고 밤늦게야 잠자리에 든 일꾼들이 있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량해를 구하듯 속삭이시었다.

《오늘이 12월 초하루날이지? 그래 우리 전사들을 찾아갈가 하는데 보다싶이 시간이 모자라누만. 새벽공기가 쨍한게… 어떻게? 여기서 제껴깎을수 있겠지?》

《예. 알겠습니다, 장군님.》 하고 대답올리던 리발사의 술진 눈썹이 갑자기 쭈깃거리기 시작했다.

《장군님, 아무리 바쁘셔도… 어쩌면…》

그의 목소리는 어느새 벌써 젖어나오고있었다.

그는 자기의 직업에 대하여 더없는 긍지와 애착을 가지고있었는데 특히 이렇게 장군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이 오면 자기만이 그이께 가장 합법적이며 유일한 《휴식시간》을 제공해드릴수 있는 특권을 지녔다고 내심 자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어느때나 쉽게 마련되지는 않았다. 그의 표현대로 한다면 말그대로 《푼푼히 저축해둔 리발시간》이었다.

그나마 이 한겨울에 예가 대체 어디란 말인가. 《장군님…》하고 그는 다음말을 힘들게 뱉었다. 《날씨가 참니다.》

《일없소. 나야 백두산내기가 아니요. 더위라면 어떻게지… 추위만은 자신있다니까. 어서 깎으시오.》

리발기계가 고르롭게 진동을 하며 와닿는 순간 그이께서는 놀랍게도 따스한 온기를 감촉하시었다. 눈썹이 번들거리는 리발사는 어느새 벌써 자기의 체온으로 리발도구들을 덥히고있었던 것이다.

가슴우에 두팔을 가볍게 엮어르신 장군님께서서는 조용히 눈을 감으시었다.

그러자 왜서인지 (하루는 스물네시간 시간의 흐름에는 변함이 없건만…)하고 어린시절에 지으셨던 동시의 한구절을 떠오르는 것이었다.

어느덧 그이의 귀가에는 그때처럼 《급히도 달아나》는듯 한 초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채카채카… 2008년이 가면!

빙그르르— 지구의가 돌아간다.

…그러자 문득 《10.3합의》리행을 마무리하기 위한 6자단장회담을 앞두고 그이의 가르치심을 받기 위해 찾아왔던 문선규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있는가…

그다음은… 지난밤에 받아보신 또 하나의 문건이 생각나시었다. 첫장을 번지면… 거기에는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를 운반로켓트 《온하-2》호로 쏘아올리기 위한 준비사업에서 제기되고있는 문제와 대책적의견들이 적혀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의 명의로 된 담화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우주는 인류공동의 재부이며 오늘날 우주의 평화적리용은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

수령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인민들은 또 얼마나 큰 힘과 고무를 받아안을것인가. 우리 인민, 참 좋은 인민…

그이께서는 한순간 원산청년발전소건설현장을 처음 찾으시었을 때 들으신 이야기를 더듬어보시었다.

…《이건 룡담이 아니요!》

언제건설 려단장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우리도 룡담을 하지 않습니다!》

결사대원들 역시 주먹을 내흔들며 일떠섰다. 그들은 갈수기에만 가배수로로 막아야 한다는 기성관념을 깨버리고 이제, 지금 당장 그 전투를 벌리자는것이였다. 그래야 뒤따라 언제썰기를 시작하고 동시에 수천만립방메터의 물도 잡을수 있다는것이다.

《담보가 있소?》

《있습니다.》

《말해보오.》

《물을 채우지 못한 언제우에 어떻게 장군님을 모실수 있습니까.》

질문에 대한 반문이 그 담보라는것의 전부였다.

그것은 엄연히 자금도 자동차도 굴착기도 아니였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했는가.

그들은 당원결사대를 뚫고 물속에서 췌기밥을 나눠먹으며 끝끝내 가배수로막이전투를 해내고야말았다.

하여 이듬해인 2005년의 봄날 한창 치솟아오르는 언제를 배경으로 그이께서는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던것이다.

이런 인민이다! 인민은 나, **김정일**을 믿고있다.

장장 60여년세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여오면서 우리 당은 실현될수 없는 공허한 구호로 인민들을 꺾기시킨적이 없었다.

또한 우리 당은 특정한 몇몇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실현될 경우 매 집집들, 그 집들에 사는 매 사람들에게 투쟁한 보람으로 차례질수 있는 리익을 얻기 위해 자기의 로선을 제시하여왔으며 그러한 결심을 알렸을 때 인민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고 웨치며 산악같이 일떠서군 하였다. 하여 지금 우리 혁명은 바야흐로 가장 흥하고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채각채각… 2009년이 오면!

그러자 이번에는 전당, 전군, 전민을 새해의 총진군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킬수 있는 기사들을 준비하고있는 리동준을 비롯한 당보의 룡설집단이 떠오르시였다. 그들이 지금 강선에 나가있다고 했지… 시간을 내여 한번 꼭 만나보아야 하겠는데…

(2009년은…) 하고 되뇌여보시는 그이의 눈앞에 보통사무용지로부터 점차점차 커지다못해 나중에는 집무실책상면을 다 덮어버린 커다란 시험지같은것이 떠올랐다.

2012년까지는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그러자 삼시에 수많은 일군들과 낮익은 지명들이 떠오르시였다.

주체철! 그것은 수령님의 생전의 뜻이고 유훈이다. 나의 귀전에는 지금도 《이 땅에서 첫 쇄불이를 녹인 사람도 콧수를 쏘겠나.》라고 하시던 수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것만 같다. 검덕지구는 통채로 인민의 이름으로 등록된 저금통장이나 같다. 대흥청년광산의 허우대 큰 지배인이 몇해전 내가 현지에서 준 파업들을 착실히 수행하고있다면 좋다. 침수된 재령광산도 어떻게 하나 살펴내야 한다. 여기서도 찾는것은 전기다, 전기!

《어느 발전소화실에 날아들어도 좋아라》하는 시구절은 참 얼마나 좋은 명구인가. 올해에만도 폐성강청년1호발전소가 완공되었고 원산청년발전소, 녕원발전소들이 조업을 앞두었다. 정말 용타, 훌륭하다! 나는 몇만크바로 계산되는 에네르기의 가치만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제힘으로 창조한 사람들에게서 뿜어져나오는 애국심의 분출이 더 크고 기쁜것이다. 그런 힘이라면 지금 나의 책상우에 놓여있는 발전소설계도면도 십년이 아니라 단 삼년안에 현실의 언제로, 물길굴로, 타빈과 송전망으로 펼쳐지게 될것이다. 이 최전발전소건설은 강성대국의 대문에 눈부신 축등을 걸어놓는 것과 같다. 누구보다 강한 사람에게, 전설을 창조할수 있는 영웅에게 그 건설을 맡겨야 한다. 그는 누구인가?!…

채각채각… 2009년이 가면!

갑자기 초침소리가 똑 떴었다. 그이께서는 등받이에서 몸을 떼시며 주위를 살펴보시였다. 그러자 흠칫 놀라며 리발가위를 등뒤로 거두는 리발사의 어쭙은 표정이 첫눈에 띄였다. 그제야 장군님께서 지금껏 초침소리처럼 들려온것이 실은 가위질소리였으며 이 웅숭한 봉사자가 이미 리발을 끝내고서도 그이의 사색을 깨뜨릴가봐 여일하게 빈 가위질소리를 내고있었음을 아시였다.

《이제 보니 그 가위질소리에 사람을 잠재우는 신비한 기운이 있었구만, 고맙소. 덕분에 휴식을 잘했소.》

…얼마후 장군님께서서는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6군부대를 시찰하시기 위해 새벽길을 떠나시였다.

차창밖이 어슴푸레 밝아오고 나무들이, 리정표들이 끌리듯 다가왔다가는 재빨리 사라져버린다.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출발과 함께 펼쳐드신 문건우에 무엇인가 적어넣으시였다.

그것은 인민경제주요부문의 2009년계획작성과 관련하여 내각에서 올린 문건이였는데 방금 생각끝에 적어넣으신 글이란 실은 《담보는》이라는 세글자였다. 그이의 손길은 아직도 천천히 규칙적으로 덧글을 써나가고있었다.

드디어 그이께서는 펜을 드시고 《!》부호를 힘있게 찍으시었다.

또 찍으시었다.

(그때... 수령님의 보고서 초안우에도 이런 두개의 감탄표가 찍혀있었지.)

장군님께서 멀리 추억의 기슭으로 걸어가시었다. 어디선가 봄날의 진달래꽃향기가 함함히 풍겨온다.

꽃아름을 안으신 그이께서는 1956년 4월 우리 당 제3차대회 보고서를 집필하고계시는 수령님의 서재로 조용히 들어서시었다.

수령님께서 새벽산책을 나가신듯 집무탁의 탁상등아래 제1차 5개년계획의 웅대한 설계도가 담겨진 당대회보고서 초안만이 놓여있었다. 그 첫 페이지에 씌여진것은 당총비서의 존함이 아니라 방금 그이께서 적어보신 그 세글자였다.

그때가 미제와의 조국해방전쟁을 치른 뒤였다면 지금 역시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 또 다른 전쟁을 하고난 뒤다. 아니, 지금도 하고있다.

또 그때는 사회주의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5개년계획의 첫해전투를 눈앞에 둔 때였다면 지금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대고조의 첫해전투를 눈앞에 두고있는것이다.

(그때는 수령님앞에, 지금은 바로 내앞에...

훨씬 더 어려운 때였다. 1956년... 그때는... 그때는...)

## 2

1956년 4월 23일 오전 9시. 깃이 넓은 달긴양복을 입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손에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서를 드시고 당대회연단으로 걸어 나오시었다. 여섯개의 원통형마이크가 놓인 보고탁우에는 사발모양의 탁상등이 왼쪽에 세워져있었다. 연락의 량쪽 가녀를 두팔을 벌려 짚으신 **김일성**동지께서는 한순간 대회장을 굽어보시었다.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발아래 전쟁을 이겨낸 인민들이, 폐허와 재더미속에서도 전후3개년계획을 기적같이 초과완수하는데서 기수가 되었던 당원들이 그이를 우러러 머리높이 박수를 보내고있었다.

또한 한쪽에는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쏘련공산당 제20차대회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나라 공산당 및 로동당대표들이 불안과 흥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주석단쪽을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속에는 쏘련당대표단에 속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한 보브첸니코프도 있었다.

그는 박수를 칠 때마다 마주쳐지는 자기의 손바닥에서 전기가 이는듯 한 긴장감을 느끼고있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것인가. 조선로동당이 세상을 깜짝 놀래운 흐루쇼프의 열기띤 비밀보고가 미처 식기도 전에 제일 먼저 당대회를 가진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리고 저기 주석단에서 너부죽한 얼굴을 약간 짓수그리고 박수를 보내고있는 쏘련당대표단 단장인 브레주네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있는것인가.

**김일성**동지께서 보고서를 펼치시었다.

《동지들! 우리 당 2차대회로부터 이 대회에 이르기까지 8년이 지났습니다.》

쫄라신 음성으로 서두를 때신 **김일성**동지께서 장대를 향해 건듯 시선을 드시는 순간 번쩍 하는 사진섬광이 눈을 부시게 하였다.

앞에서부터 여섯번째줄에 앉은 보브첸니코프는 그때 **김일성**동지의 안광에서 무엇인가 범상치 않은 빛이 편득이었음을 똑똑히 알아보았다. 그는 붉은색연필과 검은색연필 그리고 만년필이 쥐여진 손아귀에 슬며시 힘을 주었다. 회색 세루양복에 폴로프브식 코안경을 걸친 이 젊은 경제실무가에게는 벌써 몇해째 외교통상부문에서 일해오는 파정에 이렇듯 중요회의나 면담때마다 세자루의 필기도구를 매만지는 버릇이 생겨났다. 그는 우선 만년필을 뽑아 자기의 책장에 이렇게 썼다.

《**김일성**동지의 총화보고. 요지》

근 한시간에 걸쳐 총결기간에 이룩된 성과와 교훈에 대하여 분석하신 **김일성**동지께서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을 위하여》라는 보고의 다음체계로 넘어가자 보브첸니코프는 숨막히는듯 한 긴장을 느끼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지적하시었다.

《...

다음해부터 시작되는 제1차 5개년계획기간에는 전후에 거둔 모든 성과들에 기초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전진을 가져와야 할것입니다. ...

5개년계획기간에 인민경제발전에서 주도적역할은 무엇보다도 중공업이 담당할것입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인민경제주요부문의 계획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수자들을 열거하시었는데 얼마후 고개를 쳐든 보브첸니코프는 그것들이 씌여진 자기의 책장을 아연해서 들여다보았다.

—1961년에 가서 1956년에 비하여... 강철생산은 약 3~3.5배, 석탄생산은 1.7배이상, ... 40만톤의 화학비료와 100~150만톤의 세멘트, 농촌경리의 협동화 완성...

그것은 지난해말 쏘련당에서 넘겨다보고 《실현 불가능》한것으로 평가했던 초기의 계획보다도 배나 불어난 계획이었다.

(이럴수가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이런 공상적인 수자들을 만장에 알린단 말인가.)

그는 문득 모스크바를 떠나오기에 앞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흐루쇼프에게 불리워갔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흐루쇼프는 조선에서의 5개년계획에 대하여 쿵쿵거리다가 이렇게 물었었다.

《보브첸니코프동무! 나는 이 경제적문제에 대



한 정치적견해를 공산당원인 동무에게 묻습니다. 그들에게 힘이, 강력한 실천력이 아직도 있다고 봅니까?)

호루쑤브는 《아직도》라는 말에 특별히 력점을 찍었다.

보브첸니코브는 긴장되었다.

그 말속에는 단순히 우에서 련거한 수자들에 대한 가능성여부에 앞서 그것을 높이 추켜들었으며 또 반드시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었기때문이었다.

그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호루쑤브는 손을 획책 내저으며 열변을 토했다.

《우리 쏘베트정부와 인민은 이미 전후 두차례의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완수한 훌륭한 모범을 가지고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런 종이장우에 찍혀진 수자로가 아니라 바로 물질적이며 객관적인 경제토대로써 담보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도대체 조선당이 말하는 5개년 계획이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 〈자립적〉이란 구체적으로는 우리 쏘련에 대한 배제라는것입니까?》 그때 호루쑤브의 얼굴빛은 얼마나 굳고 차가웠던지 마치도 아침식사에 자갈을 삶아먹고 나온것 같았다. 보브첸니코브는 부르르 떨리는 펜을 책장우에 꼭 박아 멈춰세웠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한손으로 쓰다듬어올리시며 보고를 계속하시였다. 보브첸니코브는 속기한 중요부문들에 밑줄을 긋기 위해 색연필을 뿔아들었다. 쪽 그었다. 쪽 부러졌다. 다른 연필을 뿔아들었다. 그가 밑줄을 그은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그러나 우리의 사상사업은 적지 않은 부문에서 주체가 없이 우리 나라 혁명문제 및 그 시행을 위한 실천적활동과 동떨어져있으며... 우리 나라 실정에 맞건 안 맞건 덮어놓고 남의것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어 통채로 삼키는 교조적인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색연필은 《다른 나라의 혁명력사는 알면서도 자기 나라의 혁명력사는 잘 모르고》있으며 지어는 그에 대하여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마땅한것》으로 여기고있는데 대하여 받아쓴 글줄밑으로 달려나갔다.

그는 놀랐다. 만약 이 보고서가 이대로 호루쑤브의 앞에 날아간다면! 그 글줄들은 마치 크레플리의 새 주인을 정면으로 쳐다보면서 《호루쑤브동지, 당신은 수정주의자입니까?》라고 따져묻는듯싶었다.

(동냥을 하려면 우선 머리를 수그러야 하는 법이다. 그런데 이들 조선로동당은 무엇을 믿기에 이렇듯 높은 구호를 정면에 내걸고도 배심 든든히 말끝마다 자립, 자립, 그저 자립만을 주장하는 것인가... 경제건설은 물론 당활동에서까지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도전적인 지적을 가해온 이들이 믿는것이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 그로서는 아직 그 대답을 찾을수가 없었

다. 드디어 보고가 끝났다. 자리에서 일어난 보브첸니코브는 주석단에 앉아있던 브레주네프가 육중한 몸을 뒤늦게야 일으키며 박수를 보내고있는것을 보았을 때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분명 눈을 감고 서있었던것이다.

호루쑤브가 몇번이나 침을 놓아 보낸 《개인미신반대》라는 구절이 단 한마디도 들어있지 않는 보고서에 박수를 보내기가 참으로 딱해서였을가. 이튿날 저녁 김일성동지께서는 쏘련공산당대표단을 접견해주시였다. 거기서 브레주네프는 이렇게 말하였다.

《김일성동지, 우리는 보고를 통해 귀당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기초건설에 대하여 많은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 목표적견지에서 말입니다.》

말끝에 어정쩡한 뒤불이를 달아매는 그를 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다 알만 하다는듯 여유작작한 웃음을 지으시였다.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가본데... 혹시 당신들은 〈귀당과 인민이 내세운 목표의 웅대함에는 우리도 역시 놀라움을 금할수 없습니다만 도대체 무엇을 믿고 것처럼 아름다운 계획을 확신하는것입니까?〉 이렇게 묻고싶어 그러는건 아닙니까?》

그러자 저으기 당황해난 브레주네프는 그답지않게 상반신까지 엉거주춤 일으키며 《아닙니다. 저는 조선당이 내놓은 로선에 의견이 없습니다. 다 지지합니다.》라고 말하는것이였다.

두손까지 내흔드는 그를 보시며 김일성동지께서는 너그러운 웃음을 지으시였다. 그러나 보브첸니코브는 가리마를 곱게 탄 머리에 하얗게 성에가 불리는듯 한 오한을 느끼였다. 그는 잠자리에서까지 이런 생각을 하였다.

(무서운것은 총포소리로부터 시작되는 전쟁만이 아니다. 싸움은 시작되였다. 웃음으로 시작된 이 싸움에서는 누가 승리자로 될 것인가.)

그러다가 잠들어버렸다.

### 3

《【12월 10일발, 이파르-파스통신】

미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국으로 인정. 미국방성 년례보고서에서 아시아 대륙에는 이미 5개의 핵보유국이 있다고 하면서 이 나라를 네번째순서로 지적. 미국이 정부보고서에서 조선을 핵보유국으로 공식인정하고 발표한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된다.》

전세계 통신보도망들이 이 충격적인 소식을 신고 저저마다 안테나를 높이고있을 때 문선규가 탄 승용차는 사리원방향으로 달리고있었다.

그 시각 김정일동지께서는 사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고계시였던것이다. 바로 30분

전에 그는 장군님께 전화보고를 드렸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해 《뜻밖의 미소》를 지어보인 미국이 일본에 대한 우리의 강경조치를 무마시켜보려고 (얼마전 우리는 외무성 대변인담화를 통하여 일본의 6자회담 참가자격을 전면부정한다는 폭탄선언을 내렸었다.) 집요하게 매달린다는 내용이었다. (왜 찾으셨을가?... 이제 만나시면 무엇을 물으실가?...)

문선규의 귀전에는 송수화기를 놓으시며 《끝나에게로 오시오.》 하시던 장군님의 음성만이 그냥 들려왔다. 그는 등받이에 몸을 맡기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일본을 비롯한 일부 나라들의 온당치 못한 태도로 하여 회담은 거의 결렬상태에 들어갔다. 6자회담의 파탄, 그것은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는것이다. 그것은 되돌아서서 우리의 핵문제가 떠나온 출발위치, 1993년의 준전시때로 돌아갈수도 있다는것을 의미했다. 아니, 이번에는 더 험악하게 번져질지도 모른다. 그의 상념속에서는 유엔원장의 갈피갈피들이 주르르 뒤번져지다가 39조로부터 51조를 포괄하고있는 제7장부분에 이르러 푹 벗어났다.

40조, 경고 41조, 전쟁직전의 모든 수단을 포함한 대책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을대로 겪어본 일명 제재를 의미하는것이다. 다음은... 42조, 그것은 바로 전쟁이었다. (전쟁...) 하고 나직이 외워보느라니 한창 새로운 신심과 용기에 넘쳐 경제건설에 떨쳐나선 조국의 현실이 눈앞에 떠올라 입술이 말라드는것 같았다.

(지금은 1993년과는 다르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 변화되는 환경에 능란하게 대처하여 경제건설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나가야 한다.)

문선규가 생각에서 깨어난것은 미곡리소재지가 거의 눈앞에 보일무렵이었다. 미곡벌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전망대가까이에서 시원시원하게 손짓을 해가며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을 비옵자 문선규는 《차를 세우시오.》라고 다급히 소리쳤다. 그는 옷매무시를 바로 잡으며 그이께로 달려갔다.

《아, 문선규동무가 왔구만!》

그이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문선규의 앞에 한 녀인의 등을 떠밀어 내세워주시었다.

《여기 미곡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요.》

농사꾼이라고 보기에선 너무도 아련한 녀인이었다.

《보기와는 달리 무서운 일육십군이요. 명년에는 정보당 열톤을 초과하겠지요. 대단하지, 대단해!》

그이께서는 더없이 만족하신듯 열병대오마냥 《정렬》한 규격포전들에서 이윽도록 눈길을 떼지 못하시었다.

이때 곤책색 면직솜옷을 입은 녀인은 무릅없이 장군님의 팔에 매여달리며 명년에는 농사를 더잘 지어 전국적으로 소출을 제일 많이 내겠으니

장군님께서 등수를 매겨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다. 그이께서는 크게 웃으시었다.

《그러니 전국의 농장들에 <도전>을 거는셈이구만. 하하하... 좋소, 내 그럼 다른 농장들을 찾아갔던김에 정식 경쟁을 붙여주지.》

그러시고는 허리를 굽혀 관리위원장에게 무슨 말씀인가를 하시었는데 도간도간 《기계화수준... 지력을 높이고...》라고 하시는 말씀이 문선규의 귀에도 들려왔다. 아마도 미곡농장을 도와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어떤 신묘한 비방을 가르쳐주시는듯...

허리를 펴신 그이께서는 뒤따르던 일꾼들이 다 들으라는듯 큰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것이였다.

《그렇지만 내가 편심을 서리라고는 생각마오. 심판이야 공정해야지.》

멀리 탈곡장에 서있던 프락토르가 저도 우스운지 탕탕탕-요란스럽게 웃어대며 들길로 나가고있었다. 오래간만에 농촌정서에 푹 잠겨 들판에 올려가는 프락토르의 발동소리를 들어보느라니 문선규는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흥그러워져서 혹시 머리심을 하라고 부르신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이께서도 퍼그나 기분이 좋으신듯 했다.

《관리위원장동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다음해 농사를 잘 지어봅시다. 내가 늘 말하는것이지만 인민생활을 풀자면 뭉니뭉니해도 먹을것이 많아야 해.》

푸실푸실 춤추듯 떠오른 미곡벌의 흙먼지가 그이의 신발우에도 뽀얗게 내려앉고있었다. 문선규는 약간 초조해났다. 어느덧 시간도 퍼그나 흘렀건만 그가 생각하고있던 문제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였던것이다.

돌아오시던 길에서야 그이께서는 문선규가 그냥 끼고다니는 두툼한 문건가방을 띄어보시고 알만하다는듯 빙그레 웃음을 지으시었다.

《요새 미국사람들이 우리쪽에다 대고 꽤 수선을 떠는 모양인데 어떻소, 핵문제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사업방향은 쏘십니까?》

《저로서는 아직... 장군님,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 나는 어제 밤에도 수령님께서 계셨더라면 어떤 가르치심을 주셨을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수령님께서 1994년 6월 전 미국대통령 카터를 만나주셨을 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제재를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라, 우리는 얼마든지 잘살 수 있다... 얼마든지!> 바로 그렇게 말입니다. 지금 미국은 우리가 경제건설에 집착한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강경의지를 꺾고 저들의 뜻대로 놀아날것을 꿈꾸고있는데 천만에! 선군시대경제건설로선의 어디에 군사를 포기해야 경제를 건설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필요하다면 우리는 언제나

지 세계앞에서 조선사람의 이 정신을 똑똑히 보여 줄것입니다.》

그이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당하며 또 무자비한가 하는것은 그때로부터 얼마후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와 편이은 2차핵시험에서의 성공으로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하던 그때에 대국들의 번쩍거리는 이마속에서 허다한 느낌표로 살아오르게 될것이였다. 허나 지금은 세계를 북두들긴 그날로부터 석달 스물닷새전인 2008년 12월 11일이였다. …

그날 저녁, 장군님의 집무실…

책상우에는 뚜껑이 붉고 보풀이 인 수첩 하나가 놓여있었다. 첫장은 이미 번져진 상태이다.

몇번이나 보고 또 보셨는지… 색은 비록 바랬으나 무엇인가 강심이 느껴지고 세월을 초월하는 비장함이 아직도 력력한 글발이 여기에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수첩우에 씌여진 글자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였다.

《살아도 죽어도 수령님을 위하여!

1956년 9월 10일. **김정일**》

잊지 못할 년대기였다. 백두산혁명전적지제로의 첫 답사행군대오를 이끄시고 혁명의 성지 백두산을 다녀오신 그 년대였고 종파를 청산한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8월전원회의가 대국주의자들과의 투쟁으로 번져지던 준엄한 시기였다. 허나 그때에조차 공장에서, 어촌에서 돌아오시는 수령님의 발걸음소리는 여전했고 농촌들에서 보내여오는 편지도, 그것을 읽어가시는 호탕한 웃음소리도 예나제나 다름이 없었다. 무엇을 믿고…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 4

호방하면서도 청량한 **김일성** 동지의 웃음소리는 열려진 창문너머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프락가로 거침없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금시 차에서 내려서던 보브첸니코프는 어떤 보이지 않는 담벽에 팡부딪치기라도 한것처럼 굳어져버렸다.

(웃고계시다니?!…)

방금전 숙소에서 그이의 부르심을 받던 때처럼 짜릿한 전율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 짧은 순간에나마 보브첸니코프는 자기를 돌이켜보지 않을수가 없었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있는 뒤 보브첸니코프는 금속 및 화학공업을 담당한 무역대표로 평양에 나오게 되였다.

모스크바를 떠나올 때 그가 받은 첫번째 과업은 좀 괴이한것이였는데 즉 조선에서 현존생산산대에서의 강철예비조성능력을 확인해보라는것이였다.

한달이 지나서는 마침내 다음과 같은 전문을 보낼수 있게 되였다.

—평양발 모스크바 (최대지급)

현존생산능력과 기타의 조건들로 보아 가능한

4~5천톤의 예비를 조성할수 있을것으로 확신됨.

그밀에 날자와 서명을 했다. 그때가 바로 **김일성** 동지께서 친히 인솔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대표단이 쏘련과 인민민주주의나라들에 대한 친선방문을 눈앞에 둔 때였다.

한달이 가고 또 한달이 갔다. 감감 무소식이던 모스크바로부터는 뜻밖에도 한주일전에야 짙막한 전문이 날아왔는데 그것을 본 보브첸니코프는 그만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것은 여사여사한 사정으로 하여 조선에 주기로 했던 강재 2만톤을 보낼수 없게 되었으니 이에 대하여 쏘련측을 대표하여 정식 통보해주라는 내용이었다. 강재납입을 중지하다니? …쏘련이 과연 계획경제가 무엇인지 모른단 말인가? 조선에서 방대한 5개년계획을 발표한 상태에서서 계약된 강재를 자른다는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이러자고… 나의 보고서가 필요했는가. … 보브첸니코프는 무엇에 꼭 홀리운듯 깨름하고 텅텅한 심리에서 쉬이 벗어날수가 없었다.

방안에서는 좀더 밝아진듯 한 웃음소리가 짧고 빠르게, 그 다음은 또 길게 곡조를 넘기듯 편이 어 흘러나왔다. 화답하듯 어디선가는 닭울음소리까지 짹짹 들려온다. 잠시 심신을 가다듬고나서 그는 발그스레한 석비레를 고루 편 그리 넓지 않은 마당을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그가 안내를 받아 방에 들어섰을 때 시원한 반팔샤쓰차림을 하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집무탁우의 필통에서 무언가 집어들고계셨다.

《아, 반가운 손님이 왔구만! 어서 와 앉으시오.》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한손으로 다담상을 사이에 둔 팔걸이의자를 가리키시였다. 인츰 사무용가위를 찾아드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맞은편 의자로 다가와 앉으시였다.

다담상우에는 방금 읽어보신듯 한 편지종이가 펼쳐진채로 놓여있었다.

《오늘 평북도쪽에 나가있던 우리 동무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그 편지인데…》라고 하시며 그이께서는 보브첸니코프도 읽어보라는듯 너댓장은 실히 된죽한 편지종이들을 쪽 내밀어주시였다.

《헌데 말이요. 이 편지봉투속에 작은 봉투 두개가 또 있지 않겠소 이것 보오, 제법 두두룩한게… 어디 뭐가 들어있나 좀 볼가?》

금시 개봉을 하시는가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셨던지 귀전에 봉투 한개를 가져다대시며 손으로 불럭불럭 만져보신다. 그만하면 짐작이 가시는듯 웃음을 함뱉 머금으시고 가위를 대신다.

《이런, 룡알들이구만!… 제법 영글었소. 다 글다글해! 허허허. …》

다른 봉투에서는 벼알들이 쏟아져나왔다. 세상에 더없는 보물을 얻으신듯 기뻐하시며 그이께서는 손바닥을 오그리시고 봉투속의 벼알들

을 모독이 받아드시었다. 어딘가 묻어있는 벼알이 있을세라 봉투밑굽을 툭툭 두드리시는 소리가 이 름할수 없는 찌릿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며 방안에 울려갔다.

《창의골이라고... 전쟁직후 찾아갔던 마을이요. 얼마나 궁한 고장이였던지 싸가지고 갔던 주먹밥조차 퍼놓기 무안했지. 사람들은 또 얼마나 용해빠졌는지... 나를 보자 떡 굳어져서 말도 제대로 못하는게 아니겠소. 내가 그날 그들과 함께 찌리광주리를 엮으면서 우리 집안패력을 쫓 애기 해주었소. 하나까 이 편지를 쓴 로인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고보면 수상님도 농사군자손이십니다.〉 이러더라 말이요. 나도 농사군의 자손이니 자기와 근본이 같다 그 소리요.》

여전히 벼알들을 손에 드신 **김일성** 동지께서는 등반이에 몸을 젖히시며 시선을 좁히시었는데 아마도 그날의 광경이 삼삼하진 모양이었다.

그사이 보브첸니꼬브는 편지를 읽어나갔다.

수상님 가르치심대로 늪을 메우고 물길을 돌려 눈을 풀었고 두렁에는 친히 보내주신 콩종자를 묻었다는것, 이해가 복들 년인지 산이 꺼지게 약초, 열매까지 주렁졌다는것... 두서없는 이야기속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있었다.

《...지난년에는 새집 두동을 더 지어 혼자 살던 수범이 어미도 이사시켰습니다. 이러히 가난서린 때국물을 쫓 벗어던지고나니 아닐세라 수상님 말씀대로 두고개내메 옹한 사내가 그 내인을 훌쩍 제 사람 만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한데 그 아낙이 어찌 영악스럽게 굴었던지 나홀만에는 걱정이같은 사내를 고름끝에 매달구 마을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무렴 어디어디해도 수상님 다녀가신 이 고장만 이야 하겠습니까.》

편지의 공백에는 따로 별표까지 찍어놓고 이런 알림문을 정자로 박아넣었다.

《수상님, 흰쌀밥알로 봉합하였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자신의 옥안가까이로 편지 봉투를 가져가고계시었다. 거기서 풍겨오는 산골 집 가마목의 광솔냄새, 밥김냄새를 구수히 맡아보시려는듯... 정에 폭 묻혀 사시는구나!

자제분을 찾으시는 **김일성** 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왔다. 잠시후 학생복차림의 젊으신분이 자그마한 천평을 안고 방안에 들어서시었다. 안팎에 서린 유별한 영체에 주위가 곱으로 밝아지는듯싶었다. 두분께서는 다감히 마주앉아 난 알들의 무게를 달구어보고계시었다.

저이는 무엇을 믿고계시는것인가? 머나먼 유럽의 형제국가들을?!... 뿔쓰까에서는 지금 당전원 회의에서까지 《토지의 집단화는 확대되기 전에 검토》되어야 한다느니, 《정치생활에서 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느니 하는 잡소리들이 울려나오는 가하면 체스꼬슬로벤스꼬에서는 쓰팔린시대에 있었던 모든 재판들이 무효로 선포되고 당 및 국가 지도자들이 강직되었다. 하건만 **김일성** 동지께서는

천평바구니우에 미리그람단위의 쪼각분동까지 차곡차곡 올려놓으시며 끝이 빨간 천평바늘을 즐기 이 들여다보고계시는것이다.

《**김일성** 동지, 우리 나라에서는 벌써부터 좋지 못한 징조들이 나타나고있습니다. 수정주의에 한 발 양보한 후파가 이렇게 클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것은 얼마전 동유럽을 방문하신 **김일성** 동지께 마자르공산당 1비서인 마띠아스 라꼬쉬가 한 말이다. 지금 부다페스트의 벵광장에서는 반혁명도당들이 목이 쉬도록 폭동을 부르짖고있다.

그런데도 **김일성** 동지께서는 새가정을 이루었다는 한 산골녀인의 이름을 외워보시며 댁에서 기르던 우량종닭들을 보내주자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식사가 끝난 뒤 **김일성** 동지께서는 보브첸니꼬브와 함께 밖으로 나오시었다. 쌍을 이룬 흰나비 두마리가 온통 저희들 세상이라든듯 꼬꾸박질을 해대며 뜨락을 곱게 둘러감은 코스모스꽃담사이를 날아예고있었다. 그 모양을 이윽도록 바라보고계시던 **김일성** 동지께서는 문득 입속말로 《추분도 지났으니...》 하고 조용히 외우시었다. 뒤따르던 보브첸니꼬브가 이때를 기다린듯 헛기침을 툭으며 힘들게 말머리를 뺐다.

《저... 이번에 쏘련정부가 취한 조치는 제 개인적인 견해로 볼 때 심히 유감스러운...》

그가 말끝을 맺기도 전에 **김일성** 동지께서는 알만 하다는듯 한손을 들어보이시며 늑작히신듯 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내가 이번에 동유럽나라들을 방문하면서 〈쎄브〉에 들라는 청도 물리쳤지, 돌아와서는 또 그네들에게 추종하던 종파사대주의자들을 호되게 처갈렸지, 그러니까 2만톤짜리 낚시코를 만들어가지고 뭘 어찌보자는 모양인데... 하나 물읍시다. 당신은 집에다가 뽕찌까도 싸모와르도 놓지 말고 쌀이나 팡팡 저다가 나한테서 매일 빵을 얻어 가시오 하면... 어떻습니까?》

《예?!... 아니, 그렇게야 어떻게...》

《보시오. 복잡한것 같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대국주의자들은 우릴 보고 기계도 만들지 말라, 천도 짜지 말라, 유무상통만 잘하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10년, 20년후에 가서 우리 나라에는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 나라 속담에 〈다 파먹은 김치독〉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와 다를바 없는 빈 굴간만 남게 될것입니다. 나는...》 하고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동안을 두셨다가 말씀 못박아세우시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땅에 쇠물가마도 걸고 기계공장도 세우자는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입니다. 회답을 쓰시오. 당신들이 그 어떤 결정을 하든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길을 갈것입니다.》

차바퀴가 레루이음짹을 굴러가는 소리가 갑작스럽게 커졌다. 열차가 굴간을 통과하고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였던지... 쪽잠에 드시었던 **김정일**동지께서는 그 소리에 놀라신듯 깨어나시었다. 그러자 눈에 익은 밤색문건철을 옆에 낀 책임서기가 눈물이 그렇게서 서있는것이 첫눈에 띄었다.

(왜 그렇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뜻밖에 잠을 깨신 장군님과 눈길을 마주치게 된 책임서기는 좀 당황해난듯 열린 눈굽을 문대고나서 창가리개를 걷어올렸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는지 푸름한 창밖으로 물때 급한 역사지붕이 나타났다. 열차는 점차 속도를 늦추고있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미안한 기색을 지으시며 제격 탁상등스위치를 돌려 불을 끄시었다. 저녁시간이면 어김없이 찾아들어와 《식사도 제시간에 하시고 잠도 꼭꼭 주무셔야》 한다는 인민들의 간절한 부락이 어린 편지를 맨 첫 문건우에 놓아드리곤 하는 그였다.

《열차가 왜 멎소?》

《도중역인데 자강도당 책임비서동무가 장군님을 마중하겠다고 새벽부터 역구내에서 기다렸다고 합니다.》

정말 얼마 안있어 박천웅 자강도당 책임비서가 나타났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불이 다 쫓쫓 얼어 제대로 웃지도 못하였다.

《자강도야 내가 처음 오는 곳도 아닌데 왜 자꾸 이러오? 그러다 알아놓기라도 하면 내 마음이 좋겠소?》

얼음처럼 버석거리는 옷자락을 잡아 자리에 앉혀주시며 가볍게 나무라시는 말씀이었다.

《장군님, 기쁜 소식들이 하도 많길래 한시바빠 장군님께 알려드리고싶어서 이렇게...》

《허허, 자강도지경에 들어서기가 바쁘군. 확실히 울렷이 있거던!》

그이께서는 박천웅이 더운물 한고뿌를 다 비운 다음에야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었다. 강제전 자업무연구소가 새로 건설되어 여러 단위들에 경영업무체계프로그램을 도입했다는 소식, 두해전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높이 받들고 강제고려약 공장이 새롭게 일신된 소식... 그중에서도 제일 기쁜것은 도안의 중요기계공장들에서 현대화가 적극 추진되어 기술장비측면에서나 생산물의 질적 측면에서나 당당히 내놓고 자랑할만 한 최첨단수준에 올라선것이였다.

《그전에는 기계농물이 딸려서 가공소재들이 밀려돌아가곤 했는데 이제는 눈감짝할 사이에 다 먹어치웁니다. 그러고도 성차지 않아 배가 고프다고 늘 헐헐하는것 같습니다.》

《헐헐한다?...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강철을 많이 뽑아 보내달라고 옆구리를 찌르는구만. 엉큼하거던! 하하하...》

호탕한 그이의 웃음소리에 저도 같이 흥이 난듯 뿡-기적소리를 높이 뿡아올린 열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였다. 창밖으로 눈덮인 북방의 뽕뽕 산발들이 끝없이 달려오고 멀어진다.

이날부터 **김정일**동지께서는 자강도안의 여러 부문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으며 도안의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까지 조직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공연종목에 《강선의 노을》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미깊은 가르치심도 주시었다.

찌렁찌렁 산발을 뒤흔들며 내닫던 《백두의 말발굽소리》도 찾아들고 《강선의 노을》의 장중한 선율이 울려퍼질 때 그이께서는 가슴을 치는 뜨거운 감회속에 젖어드시었다. 그것은 함박눈이 펄펄 쏟아져내리던 1956년 12월 28일 검은색 긴 외투에 중절모를 쓰시고 강선제강소를 찾으시였던 잊지 못할 그날의 수령님모습이였다.

바로 그 력사적인 현지지도에 장군님께서도 동행하시였으며 손수 협의회장에 록음기를 설치하시고 로동계급과 나누신 수령님의 담화내용을 만대의 재보로 남기시였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을것이다.

(수령님, 제 지금껏 강선의 현대화가 마음에 걸려 수령님앞에 면목이 없었는데 이제는 됐습니다. 지금 강선에서는 초고전력전기로가 쇠물을 짹짹 뿡아내고있습니다. 해냈습니다! 수령님께서 키워내신 천리마의 고향사람들이 말입니다.)

공연이 끝나자 그이께서는 장거리전화를 드시고 강선에 나가있는 리동준을 찾으시였다.

수화기에서 울려나오는 리동준의 목소리는 동실 동실 춤이라도 출듯 환희에 넘쳐있었다.

《장군님, 제 이번에 장군님 덕분으로 여기에 와서 눈이 번쩍 뜨이는 희한한 체험을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다?... 허허, 그 희한한 체험이라는데 대체 뭐길래 내가 여기 앉아서 절까지 받는단 말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군님. 첫번째로 희한한것은 제가 이번에 여기 강선에 와서 보브첸니꼬브라는 로씨야사람을 만난것입니다.》

《보브첸니꼬브?!...》

어딘가 귀익으신틈 그이께서는 진지한 음성으로 되뇌이시였다.

《예, 80고령의 늙은이인데 어찌나 혈기방장하던지... 그가 하는 말이 자기는 사실 조선인민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할 몸이라고 하면서 1956년에 당시 소련이 우리 나라에 주기로 했던 강제 2만톤을 똑 잘라먹을 때 자기도 한몫 단단히 했다는것이였습니다.》

순간 **김정일**동지의 안광에는 푸른 빛이 어리는 듯싶었다. 강제 2만톤... 외워만 봐도 입술이 말라드는것 같으시였다. 1980년대말에 5월1일정기장을 지을 때 1만톤의 강제가 들었다.

하지만 56년 그때는 그 1만톤을 더 증산하는가 못하는가에 따라 사회주의기초건설 전반이 좌우되었으니 돌이켜보면 얼마나 사연많은 시련의 년대들이었던가...

《생각납니다. 그는 이미 몇해전에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 나에게 속죄의 편지를 보내온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였다. 2003년 9월 보브첸니코브는 마침내 용단을 내려 공화국창건 55돐을 맞는 조선을 방문했었다. 그때 그는 애국렬사릉에도 찾아가보았다. 거기에서 어언 반세기전 자기를 찾아와 손바닥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속다른 행동을 타매하던 리종옥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이며 또 낯익은 강영창 중공업상과도 다시 만났다. 신미리 언덕의 무성한 숲사이로 지는 해빛이 가다가다 찾아들 때까지 보브첸니코브는 서있었다. 그때 보브첸니코브가 올린 편지에는 이런 구절도 있었다.

《...무엇을 믿는가? 그때 내가 찾을수 없었던 대답에 대하여 조선로동당은 훌륭한 근 반세기의 성공한 경로로써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조선로동당의 이 위대한 사상과 로선들은 과거에 존재하였던 순수 리론적규제의 사상들과는 달리 옹근 하나의 민족과 국가가 세계앞에서 현재형으로 증명해보이고있는 사상인것으로 하여 더 큰 감화력을 가지는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인민, 그를 향도하는 백전백승의 당을 건설하신 위인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사연들을 이야기해주고나서 장군님께서는 《허, 그러니 동무의 체험이 정말 희한하게 시작된셈이요.》라고 하시며 크게 웃으시였다. 그런데 그때부터 리동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흥분하고있었다.

《장군님, 사실 제가... 오늘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엇인가 북받쳐오르는것을 가까스로 씹어삼키는듯 한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흘러온다.

《장군님께서... 저를 왜 강선으로 보내셨는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지금껏 당의 사상과 뜻을 대변하여 글을 써온다고 생각했던 제가... 저는...》

두서없이 툭툭 끊어져나오는 말이였으나 그 뜻을 받아안기엔 충분했다.

《됐소. ... 그만하시오 ... 리동준동무,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시오.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납시다.》

송수화기를 내려놓으신 그이께서는 휴게실에 걸려있는 벽시계를 피륙 살펴보고나서 또다시 일군들을 부르시였다.

《최현도자기공장 로동계급이 내가 과업을 준대로 경질유리그릇의 질을 높였다고 하는데 가봅시다. 우리가 빨리 합격을 주어야 마음놓고 인민들에게 공급할게 아니요.》

안개처럼 뽀얗게 휘말려오르는 눈가루에 묻히여 그이의 승용차는 보이지 않았다. 한시바삐 달리는 그이의 마음인가 경적소리는 벌써 산골이를 지

난다. ...

6

개선문쪽에서부터 만수대언덕길을 쪽 훑으며 올라온 승용차의 전조등빛은 천리마동상을 조금 지나서 스프르 멈춰서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떨어 군듯 근거리등으로 바뀌었다. 잠시후 한대, 두대, 석대의 승용차들이 꼬리를 물고 달려와서는 그렇게 멎고 그렇게 눈길을 떨구었다.

차에서 내리신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벽하늘높이 치솟아오르는 천리마동상의 장쾌한 모양을 더욱더욱 바라보고계시였다. 그이의 세심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희한하게 완성된 수도의 주요 불장식대상들중에는 바로 이 천리마동상도 들어있었다. 동상밑굽에 설치된 백색투광등의 강렬한 불빛에 반사되어 움췌웁췌 근육이 살아 꿈틀거리는것만 같은 룡마우에서는 수령님께서 얹혀주신 천리마의 주인들이 도도한 기상을 떨치고있었다.

《멋있소! 정말 장관이요!》

그이께서는 몇번이나 거듭 외우시며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시였다. 주위 일군들속에는 며칠전 그이의 부르심을 받고 강선에서 돌아온 리동준을 비롯한 문필가들도 있었다. 그들은 이 뜻밖의 새벽감상에 어떤 깊은 의도가 깔려있는지 알수 없어 제 나름대로의 속우물을 파고있었다.

이때 총참모부의 차정국장령이 감탄어린 목소리로 말씀드렸다.

《최고사령관동지, 저렇게 불장식까지 해놓으니 그저 멋있는게 아니라 막 통쾌합니다.》

《막 통쾌하다?》

그이께서는 직통배기장령의 말에 깊은 호기심을 파시며 되받으시였다. 그러자 더 승명이 난 장령은 전문술어까지 섞어가면서 일장 감상을 피력하는것이였다.

《예, 제가 알고있건대는 아직 우리 나라에 기본형상을 위한 보조적수단으로서의 받침구조를 저렇듯 높게 지어준 례가 없다고 봅니다. 더우기는 그것의 사명을 순수 대돌의 역할에만 한정시킨것이 아니라 천리마동상이라는 전체적형상에 이바지하는... 이를테면 배속구분대와 같은 지위를 부여한것이 특색있다고 봅니다. 총적으로 놓고볼 때 최고사령관동지, 지금 저 천리마는 그저 날아가는것이 아니라 불길을 내뿜으면서 막 솟구쳐오르는것 같습니다. 발사된 인공지구위성처럼 말입니다!》

흥분한 장령은 정말로 금시 인공지구위성을 한기 쏘아올리듯 한팔을 쪽 뽑아올렸다.

《이런, 대단한 리론가가 나타났구만. 안그렇소, 부주필동무?》

그이께서 눈까지 깜빡하시며 익살스럽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좌우에서는 한동안 즐거운 웃음소리가 터져올랐다. 부르심을 받았던 리동준자신은 그 순간 지르르 퍼져오는 가슴속 뜨거움을 느끼고있

었다. 우리의 투쟁과 혁명앞에 나서는 중하를 한 몸에 다 떠메고 나가서야함을 행복으로 받아들이신 그이만이 지으실수 있는 저 밝은 웃음! 열기가 느껴지는 그 웃음소리에 차거운 대기도 후덥게 달아오르는듯싶었다.

야전솜옷의 앞깃을 시원하게 터쳐놓으신 그이께서는 두팔을 가슴에 얹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천리마동상을 세운것이 1961년이였으니 벌써 마흔일곱해가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사람들은 우리 나라를 가리켜 천리마조선, 주체조선, 선군조선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 조국이 지닌 이 자랑스러운 대명사들속에는 당과 인민이 걸어온 력사가 있습니다. 저기를 보시오.》

동평양쪽으로 눈길을 돌린 일군들은 지구를 채색하는 거대한 붓대와도 같이 서있는 주체사상탑에 시선을 모았다. 잠간 동안을 두시였던 그이께서는 《1982년에는...》하고 다시 일군들쪽으로 몸을 돌리시였다.

《수령님의 탄생 70돐을 맞으며 주체사상탑을 일떠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상징하는 기념비들이 훌륭하게 완성되었다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것은 뭐가... 그것은 선군조선의 기념비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선군조선의 기념비!)

리동준은 놀랐다. 정녕 위대한 시대의 한 목격자로 살면서도 나의 눈에는 왜 그런것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인가. 곁에 서있던 일군들도 같은 생각이였는지 불편을 실룩거리는데것이 감붉은 가로등빛에 비쳐왔다.

《장군님, 그러지 않아도 몇몇 엉뚱한 설제가들이 국가건축설계도안전시회때 그 비슷한 착상들을 내놓았었다는데...》하고 누군가 면구스러운듯 슬그머니 말꼬리를 물어버린다.

《충분히 그럴수 있습니다. 오늘의 시대를 직접 체험하면서도 그런 열정과 흥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가 무슨 창조자겠습니까. 하지만...》

그이께서는 말씀을 멈추시였다. 포석을 짚어 가시는 발자욱소리만이 또렷이 들려왔다.

《나의 생각은 무엇인가. 그러한 기념비는 어떤 상징적인 조형예술작품으로가 아니라 눈앞의 현실로, 생활로 되게 하자는것입니다. 이미 말하였지만 나는 2012년에 기어이 강성대국을 일떠세워 세상을 향해 자, 이것이 바로 <선군승리기념탑>이다 하고 내놓자고 합니다. 그러면 동무들,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는 어디에서, 무엇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리동준의 손에는 벌써 원주필이 쥐여져있었다.

2012년의 세계와 조국의 모습이 그려진 설계도가 이제 곧 자기의 작은 수첩우에도 옮겨질것이라 커다란 흥분으로 하여 펜을 쥔 손이 가볍게 떨리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장군님께서는 하실 말씀을 잊으신듯 그냥 천리마동상의 웅건한 모습을 바라보고계시였다.

(천리마!...) 오랜 문필가의 류다른 촉감은 벌써 수첩우에 이 의미심장한 세 글자를 새겨놓고있었다. 이때였다. 《한번 대답해보시오.》 하시는 장군님의 밝으신 음성이 들려왔다.

《차동무, 지금 너나없이 강성대국, 강성대국하고있는데 그 담보가 무엇인것 같습니까? 거 뭐 내가 결심했으니 되는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지 말고 어디 한번 현실적인 안목에서 대답해보오.》

《저, 그것은...》하고 말머리를 뻗 장령은 어느 경제실무가의 도움이라도 청하려는듯 힐끗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어느새 그의 주위를 독창무대처럼 환히 띄워놓은 일군들은 저만큼 물러나서 흥미진진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는 곧 《답변하겠습니다.》하고 차렷자세를 취하더니 생각외로 자기의 견해를 쭉쭉 펴나갔다.

《우선 경제부문에서 많은 일을 해놓았다고 봅니다. 많은 국가적대상건설이 완공되었고 이미 있던 주요 공장, 기업소들의 기술개선사업에서도 큰 성과가 이룩되었습니다. 그러한 단위들을 본다면 천리마제강, 락원기계, 홍남비료...》

군사용어처럼 간략화된 수많은 단위명칭들이 줄줄 불리워나가자 제일 바빠하는것은 부총리였다.

그는 참다못해 휘손질로 장령을 제지시키며 서둘러 장군님께 말씀드렸다.

《아닙니다. 물론 경제부문의 성과도 일정하게 있겠지만서도 그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한 담보가 못된다고 봅니다. 중요한것은 바로 그 모든 성과의 근저에 놓여있는것, 즉 인민군대의 투쟁기풍과 역할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면서 그는 차정국장령이 마치도 그 《투쟁기풍》이기라도 한듯 쳐다보았다.

《저것 보오. 서로마끔 교차지원사격까지 해주고있구만, 허허...》

장군님께서는 가슴우에 접으셨던 두팔을 펴드시고 그들 두사람을 번갈아 가리키며 말씀하셨다.

《그러니 식을 세운다면 차동무 더하기 부총리동무, 이게 바로 그 담보라는거겠습니까?》

이번에는 두사람 다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그이께서는 눈가에 그득 웃음을 고이신채 《그것도 정 틀리지는 않습니다. 4점으로 평가합니다.》하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자 잔뜩 긴장되어있던 두사람이 어떻게나 큰숨을 모두어 쉬는지 그 소리가 맨뒤에 서있던 리동준의 귀에까지 들려오는것이였다.

(저들의 말이 옳다. 우리 인민은 최근 몇해어간에만도 당의 령도밑에 한사람같이 떨쳐일어나 이전 같으면 상상도 하지 못할 참으로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껏 구태의연하게 부닥친 애로와 난관에 대하여서만 품들어 써내지 않았던가. 이것은 바로 현실을 근시안적으로 보기때문이다. 천리마우에 높이 앉은 저 기수들의 시야를 못 가졌기때문이다!)

리동준은 모두의 눈길이 자기에게 쏠리고있는듯

한 느낌을 온몸으로 느끼며 곱아드는 손을 부지런히 돌려가고있었다. 계속하여 그이께서는 말씀하셨다.

《방금전의 대답을 옳게 찾자면 지난 한두해나 기껏 십년을 잘라볼것이 아니라 우리 혁명이 걸어진 전력사적행정을 주의깊게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과연 지난 시기에는 오늘과 같은 변혁의 시대가 없었는가. 있다면 그때에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승리를 안아왔는가. …》

오늘과 같은 변혁의 시대… 그때는 언제였는가, 또 그때는 어떠했는가. …

주위를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자신의 안광에 리동준의 눈길을 따듯이 불러세우시며 이렇게 알리시는것이였다.

《그럼 우리 며칠전까지 강선의 로동계급속에 있다가 돌아온 리동준동무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리동준동무!》

자기도 모르게 한발 앞에 나선 리동준은 그때, 전화를 걸어주신 장군님께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방금 이 자리에서 받아안은 흥분과 뒤섞여 세차게 끓어오르는듯 한감을 느끼었다. 허끝이 말라드는것 같았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싶은것은…》하고 말을 떼자 평양으로 떠나가는 그를 바래우며 초고전력전기로에서 부어낸 강철시편을 손에 꼭 쥐여주던 그 잊지 못할 강선사람들의 모습이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바로 그들에 대해서 말해야 한다.

저이께서 키워내신 우리 인민에 대하여 말해야 한다. 리동준은 입을 열었다.

《강선의 초고전력전기로… 물론 그것만으로도 놀라운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진짜에 진짜는 그속에서 끓고있는것이였습니다. 강선의 전기로들에서는 다만 쇠물이 아니라 어버이수령님께서 지퍼주신 천리마의 불길이, 장장 반세기 어느 하루도 꺼지지 않은 그날의 정신과 기백이 펄펄 끓어번지고있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초고전력전기로의 진가는 얼마만 한 전력으로 얼마만 한 쇠물을 뽑아냈다는 경제적타산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처럼 남들이 못한다고 하던것을, 장군님께서 해야 한다고 하신것을 무조건 제힘으로 관철하고야마는 무서운 정신력의 분출에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글도 그렇게 쓰고싶습니다.》

일시에 박수가 터져올랐다.

**김정일** 동지께서 제일먼저 박수를 쳐주신것이다.

《고맙소, 리동준동무!》

그의 튼튼한 어깨가 가볍게 물결치고있었다.

그이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고맙다고 하셔야 한단 말인가, 너무도 근시안적인 나의 시야에 래일을 내다보고 민심을 들여다볼줄 아는 예지의 빛발을 안겨주시고도 오히려 자신께서 고맙다고… 이렇듯 위대하신 스승의 품에 안겨 우리 둘우

에 피어나는 꽃이 되었고 죽어서도 잃지 않는 생을 살려니 오, **김정일** 동지이시여!…

그이께서 말씀하시였다.

《돌이켜보면 해방직후 전국사상총동원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전후 천리마대고조운동,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과 90년대 혁명적군인정신의 창조, 강계정신… 이 모든것은 다 우리 혁명의 준엄한 단계들에서 부딪친 난국을 성과적으로 타개한 일대 혁명이였으며 우리 당이 걸어온 길은 당과 수령의 두리에 뭉쳐진 천만군민의 무한대한 정신력으로 승리를 펼쳐온 영광의 길이었습시다. 강성대국건설의 담보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동무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총공격의 신호총을 울려야 하겠습니까.》

그이께서는 한손에 크지 않은 록음테프를 꺼내 드시였다.

《그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7

분화구가까이에 다가갔을 때와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천여명의 로동자들이 웅실거리는 소리였다. 갑자기 그 모든 소음이 푹 멎어버렸다. 드디어 화산이 분출하는것이였다.

《동무들!》

수령님의 찌렁찌렁한 음성은 벽을 치고 땅을 울리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은 반공소동을 미친듯이 벌리고있으며 이에 발맞추어 리승만괴뢰도당은 〈북진〉 나발을 요란스럽게 불어대고있습니다.

복잡한 정세를 리용하여 당안에 잠입해있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이 머리를 쳐들고 당을 정면으로 반대해나서고있으며 수정주의자들과 대국주의자들이 또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하고있습니다.》

수령님의 그 말씀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한생껏 쇠물내에 그슬려진 거칠고 짙짙한 목소리가 장내를 우썹 들었다놓았다.

《그 종파놈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 죄장대로 찢어서 전기로속에 처박겠습니다!》

그러자 뒤따라 무슨 소리인지 거의 알아듣지 못할 소리들이 와와 터져나왔다. 오직 수령님만을 아는 인민이 분노하는 소리였다.

《수정주의자들은 또한 우리를 보고 남의 넋쿨에 열리는 참외가 되라고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당이 있고 인민민주주의주권이 있으며 혁명적로동계급 당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때문에 남의 바지가랭이에 가막살이처럼 불어서 사회주의에로 가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피로써 지켜낸 제땅에 튼튼히 자리를 잡은 우리의 뿌리와 줄기와 빛나는 열매가 필요한것입니다.

동무들, 지금 우리 당과 혁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것은 어느 큰 나라의 원조나 동정인것이 아



나라 이 자리에 모인 동무들의 의연 뿔어번지고 있는 부강조국건설에로 향한 무한한 헌신성과 애국 정신입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그날의 광경이 눈에 선하시였다.

좁고 기다란 옛 창고건물에서는 터지는듯 한 박수갈채와 함께 지심이 요동치는듯 웅글웅글한 소리가 휘감아올랐다. 그 어마어마한 광경에 놀란듯 회의장에 떠돌던 내굴이 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더 가까이, 더 똑똑히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듣기 위해 연락을 향해 밀물처럼 다가들었다.

《나는 누구를 믿는가? 나는 오로지 동무들만을 굳게 믿습니다. 해방후부터 오늘까지 동무들은 당중앙을 보위하는 근위대적역할을 훌륭히 수행하여 왔으며 이번에도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강재 1만톤증산을 결의하여 나섰습니다. 동무들이 다음해에 강재 1만톤만 더 생산하면 나라가 허리를 펼수 있습니다. 합시다, 해야 합니다. 나는 동무들을 믿고 동무들은 나를 믿고 오늘의 어려운 난국을 과감히 뚫고일어나 이 땅우에 기어이 사회주의부강조국을 일떠세웁시다!》

틀어친 주먹, 수령님께서 높이 내흔드신 그 주먹이 사대와 종파를 마스는 마치처럼, 사회주의를 건설하는 마치처럼 허공에 번뜩이였다.

도람통에 석탄불을 지피던 둥글둥글하고 가슴통이 다 드러난 로동자가 번쩍 연단우에 올라서더니 두손을 높이 쳐들며 《**김일성**장군 만세!》를 터치였다.

《만세!— 만세!—》

오직 수령님만을 믿는 인민이 환호하는 소리였다. 그 소리를 다시 들으며 **김정일**동지께서는 생각하시였다. 얼마나 뜻깊은 말씀이신가.

오직 《당신들은 나를 믿고》라는 말만이 지배하던 세월을 한두해도 아닌 세세손손 살아오느라 자기의 힘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던 인민에게 《나는 동무들을 믿고》라는 온 우주와 같은 말을 내리워주시여 수령님께서 1956년을 이겨내신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수령님께서 1956년은 단숨히

1만톤의 증산예비만을 찾아내신것이 아니라 인민의 심장속에 고여있던 무한한 힘과 열정을 깡그리 퍼올리신것이다. 인민의 힘, 그 힘을 총폭발시키기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신 수령님의 모습이 바로 내가 본 1956년 12월이다. 록음을 깎을 때 일꾼들은 모두가 성벽처럼 서서 불타는 온넋으로 **김정일**동지를 우러르고있었다. 순간 리동준은 1956년 12월에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러서 있는듯 한 환각을 느끼였다. 그렇다. 위대한 수령을 모신 인민만이 위대한 정신력을 창조할수 있다. 둘러보건대 어느 인간, 어느 민족에게나 자기 운명의 개척을 위하여 잠재하거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고유한 정신력이 있다. 하여 오늘의 세계에서는 누구나 자기들의 민족정신을 제일로 찬양하고있다.

하다면 매 인간, 그 민족이 발휘하는 정신력의 한계와 가치는 무엇에 의하여 규제되는가. 그것은 수령이다. 개인적으로 발휘되는 그 모든 각각의 정신력들을 소용돌이치는 룡소처럼 하나의 의지와 행동과 목적으로 엮을수 있는 구심점을 가져야만이 그 집단은 번영할수 있다.

수령이 없는 민족정신이란 께지 않은 구슬과 같다. 순수 판념일뿐이다. 수령, 당, 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룬 우리 인민의 특출한 정신력에 불을 지피시려 한몸 깡그리 태워가시는 저이. 아, 목메여 부르는 **김정일**동지이시여!

한순간의 교요... **김정일**동지께서는 말씀하시였다.

《나는 강선으로 가겠습니다.》

×

12월이였다. 우리가 사는 마을과 거리들에 최고사령관기, 공화국기가 펄럭이고 명절일색으로 단장한 꽃물결이 만수대언덕으로, 주작봉마루로 흘러가고있을 때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지피시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을 찾으시였다. 2008년 12월 24일이였다.

## 상 식

## 열 병 식 의 유 래

《열병》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ρ α ρ ο*》에서 유래되였다. 그것의 의미는 《준비되였다》이다.

력사기록에 의하면 일찌기 기원전에 고대에집트와 페르샤, 로마 등 나라들에서 열병식을 진행하였다고 한다.

그러던것이 18세기이후에는 열병식이 전세계적범위에서 더욱 보급되고 열병식진행회수도 많아졌다.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열병식력사가 오랜것

으로 기록되어있는데 지금으로부터 4 000여년전에 중국 북방의 화하부락 두령 하우가 지금의 하남성 숭현경내의 도산에서 남방의 각 부락 두령들과 동맹을 결성할 때 수많은 사병들이 각종 병기를 들고 곡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남방부락 두령들을 환영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에 와서 열병식은 흔히 중요한 국가적 명절이나 대규모군사연습때에 진행되는데 열병지휘관의 동행하에 부대의 가장 높은 지휘관이나 귀빈들이 부대를 사열하는 방법으로 한다.

##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명언

《〈수령을 중심으로 단결하자!〉, 이것이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구호이다.》

《당의 모습은 당이 키워낸 인민의 모습에 그대로 반영된다.》

《기초가 없는 당은 사상루각과 같다.》

《당의 불패성의 담보는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과 혼연일체가 되는데 있다.》

《우리 당은 우리 조국, 우리 인민, 우리 혁명을 책임지고 승리의 한길로 이끄는 위대한 항도자이다.》

《우리 당은 인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인민의 이익을 위하여 투쟁하는 당이다.》

《수령의 령도이자 곧 당의 령도이다.》

《사람과의 사업으로 시작되고 사람과의 사업으로 끝나는것이 당사업이다.》

《사람과의 사업을 잘하면 산도 허물고 바다도 메울수 있다.》

### 혁명일화

## 밀거름과 열매

모든 당일군들은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내는 밀거름이 되자!

이것은 오늘 우리 당일군들에게 있어서 사업과 생활의 좌우명으로 되고있으며 드팀없는 신조로 되고있다. 그것으로 하여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 숨은 노력가들의 대오가 무성한 숲을 이루고있으며 우리 사는 내나라는 인민의 행복 넘치는 낙원으로 더더욱 전변되고있다.

이 자랑찬 현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잊을수 없는 주체62(1973)년 5월의 그날을 되새겨보게 된다.

주체62(1973)년 5월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외국방문공연을 떠나게 될 예술단파견에 앞서 일군들과 자리를 같이하시였다. 예술단이 외국방문기간에 류의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동안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사람과의 사업에서 어떻게 되어 아직도 부족점이 나타나는지 누가 한번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일군들은 자신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지침으로 될 귀중한 가르치심을 받아안게 된다는 크나큰 흥분을 안고 그이를 우러렀다.

그러한 일군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겠다고 하시면서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있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사업방법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이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이며 창조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대상의 특성에 맞는 사업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은 곧 새것을 창조하는 과정이며 따라서 사람과의 사업이란 끊임없는 창조과정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일군들이 우리 식의 묘술을 소유하자면 창조가, 노력이, 정열가가 되어야 합니더라고 말씀하시였다.

창조가, 노력이, 정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자자구구 머리속에 깊이 새겨가는 일군들의 심장속에는 당사업의 심원한 원리를 깨우쳐주시는 그이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감정이 밀물처럼 차올랐다. 그와

함께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지고 다루는 당사업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새삼스럽게 느끼였다.

그러한 일군들을 둘러보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였다가 말씀을 이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과 령도에술을 체득하는데서 가장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는 인민에 대한 복무정신, 혁명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쳐나가는 희생정신을 가지는것이라고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당일군의 노력은 사람들의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서 곡식을 자래워주는 밀거름과 같기때문입니다. 밀거름은 땅속에 깊이 묻혀야 곡식이 잘 자라서 알찬 열매를 맺을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일군들은 무슨 일에서나 자기의 얼굴을 내밀려고 하지 말고 군중속에 깊이 파묻혀 그들과 어울리면서 행정경제일군들의 사업을 실속있게 뒤받침해주고 적극 떠밀어주어야 훌륭한 성과를 거둘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였다.

밀거름과 열매!

자연현상에 비유하시면서 당일군의 자세와 립장을 명철하게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일군들은 크나큰 감동과 격정에 휩싸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여 그시그시 눈에 띄지는 않아도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정력을 다 바쳐가는 숨은 혁명가, 남이 칭찬을 받고 표창을 받을 때 그속에 자신의 노력도 깃들여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남모르는 기쁨을 느낄줄 아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참된 당일군이라고 가르치시면서 모든 당일군들은 풍성한 열매를 가꾸어내는 밀거름이 되라! 이것이 우리 당의 구호이며 신조입니다라고 힘주어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날에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일군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 그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좌우명으로 되였으며 우리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고 빛내여가는 길에서 거대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 영광의 노래 드리노라

김 덕 선

나에게 당을 노래하라면  
우리 수령님을 나는 노래하리라  
나에게 당을 칭송하라면  
우리 장군님을 나는 칭송하리라

수령님은 우리 당의 창건자  
장군님은 우리 당의 령도자  
수령님 계시어 우리 당이 있고  
장군님 계시어 우리 당이 빛을 뿌리어라

10월의 대축전장으로  
궁지높이 달려온 천만군민들  
우리의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러르며 깊어지는 생각

아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계시어  
이 땅위에 당의 찬란한 력사가 흐르고  
그대의 광망 누리를 비치며  
그대의 창건 예순다섯돌을 맞나니

우러러 숭엄하고 위대한 당  
그대는 이 땅의 모든 생명의 은인  
그대 없인 나도 너도 없을  
그대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

그 운명안고 그대는 왔구나  
화전의 언덕에서 붉은 기폭에 인민을 감싸안아  
《트.ㄷ》의 억센 뿌리로  
인민을 혁명의 거목으로 키워주며...

아 우리 당이 걸어온 모습이런가  
광장을 찢찢 구르며 내닫는 발걸음 발걸음  
저 철의 대오를 사열하시는 장군님의 품으로  
흘러간 우리 당의 력사  
흘러갈 우리 당의 력사가 달려와 안기나니

그 위업  
저 노도치는 대오와 대오에 이어졌구나  
저 기폭에 새겨진 마치고 낮과 붓이  
억세게 받들고있구나

그 위업  
주체철과 주체비료 주체숨이 되어  
인민의 기쁨을 노래하고  
내 나라는 그 어디에 가나 선군선경이 되어  
사회주의무릉도원 펼쳐구나

오 당이여  
그대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 땅에 이런 변  
이런 민족의 대경사를 안아올수 있었으랴

아 우리 수령님 받들어  
우리 장군님 받들어  
언제나 행복이 설레이는 이 광장  
여기로 우리 당의 거룩한 력사가 흘러갔고  
여기에 우리 당의 력사가 빛발치나니

그 빛발안고 첩첩 내디디는  
저 천만 발걸음으로  
이 땅위에 우리 수령님의 념원  
우리 장군님의 뜻이 꽃핀  
강성대국기념비가 솟아나리라

오 영광스러운  
우리 당의 력사를 빛내며 이끄시는 장군님  
언제나 백승을 펼쳐갈  
우리 당의 향도의 새 력사를 펼쳐가시나니

나에게 당을 노래하라면  
우리 수령님을 노래하리라  
그 노래는 영원한 조선의 노래  
나에게 당을 칭송하라면  
우리 장군님을 칭송하리라  
그 칭송은 영원한 인류의 칭송

오 이 땅에 흐르는 무궁한 세월과 함께  
이 땅에 안겨살 후손만대가 부를  
그 노래  
그 칭송을 담아  
내 영광의 노래 드리노라

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이여!

령도자와 작가

##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이 완성되기까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으로 맞이하고 당창건 65돐을 뜻깊게 기념하고있는 때에 우리는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대하여 다시금 되새겨보게 된다.

소설은 주인공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인간에 대한 뜨거운 심장을 지닐 때만이 주체형의 참된 혁명가로 될수 있고 우리 시대의 참된 일군으로 될수 있다는것을 인상깊게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에 나오는 연합기업소 당책임비서의 형상은 우리 시대의 훌륭한 당일군으로 전형화되였다.》

작가가 처음 이 소설을 창작할 때 주인공 신철민의 당일군으로서의 전형적품모를 응당한 높이에서 그리지 못하고있었다.

작품의 운명문제를 놓고 작가는 물론 동지들도 걱정하였다. 작가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며 고심어린 나날을 보내고있었다. 하지만 그 근본원인을 도무지 찾아낼수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소설가의 창작상 고충문제를 깊이 료해하시고 그 해결방도를 대변에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주인공 신철민의 성격창조에서 주체형의 당일군의 전형적인 품모를 응당한 높이에서 그리지 못한 근본원인은 작가가 그의 인간성만 그리는데 치중하고 혁명과 건설의 지휘성원인 당일군의 사업과 생활을 다면적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있다고 가르쳐주시면서 신철민을 주체형의 당일군전형으로 형상하자면 그의 고상하고 풍부한 인간성과 함께 그의 사업과 생활을 폭넓고 다면적으로 그리도록 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 형상방도를 일일이 밝혀주시였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가가 창작상 고충을 겪고있던 또 하나의 심중한 문제인 부정인물 차병진의 직책상 문제도 명백히 풀어주시였다.

소설의 초고에서 차병진은 금속공업부(당시) 부부장으로 형상되였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까지 문학예술작품에 이러한 직책상의 인물이 등장한 례가 없는만큼 대담하고 새롭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심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제기하였다.

이 문제 역시 소설의 작가도 그리고 창작지도 일군들도 한마디로 딱 찍어서 결론을 내릴수 없는 심중한것이였다.

소설에서 아무리 주인공 신철민의 당일군으로서의 형상을 기쁨지게 창조한다고 하여도 상대인물의 하나인, 그것도 일정한 직위에 있는 일군의 형상을 잘하지 못한다면 소설이 제대로 완성될수 없다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였다. 하지만 작가의 이 창작상 고충문제도 깊이 헤아려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작품의 주인공이 어느 한 큰 기업소의 책임비서인것만큼 그의 갈등대상인물인 차병진을 부부장급의 인물로 설정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대신 우리 시대 부정인물로서의 성격을 명백히 규정하고 형상을 보다 진실하고 설득력있게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작가는 깊은 밤 허허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갈길을 잃고 헤매다가 등대불을 발견했을 때처럼 눈앞이 환해지는것을 느꼈다. 그리하여 작가는 빠른 시간내에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형상을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그려낼수 있게 되였다.

이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구체적인 지도가 있어 소설은 세상에 태어날수 있게 되였고 당일군들의 당사업독본으로까지 될수 있는 가치를 가지게 되였다. 하기에 소설이 완성되어 출판되였을 때 작가는 소설책을 쥐고 살펴보고 또 살펴보며 감격에 겨워 말하였다.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계시어 세상에 나올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녕 우리의 지도자동지는 우리 작가들의 위대한 스승, 문학예술의 영재이십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고맙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밑에 완성된 장편소설 《뜨거운 심장》은 1970년대말과 1980년대 초 우리 소설문학의 풍년을 마련하는데서 성과작으로 한몫 크게 이바지할수 있었고 오늘도 우리 인민들과 당일군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수행하고있다.

윤 철 주

# 우 리 당 중 앙 의 프 락

## 문 동 식

불어오는 바람도  
여기서는 생각에 잠겨 소리없다  
우짚는 새들도  
여기선 노래의 은방울을 닦고닦는다

한송이 꽃 한그루의 정원수도  
이 땅의 무게를 다 안고  
승엄한 정적속에 뿌리내린 꽃  
지붕위에 붉은기 날리는 여기는  
우리 장군님 계시는 당중앙

깊어지는 생각속에 나는  
삼가 옷깃 여미고 우러러 바라본다  
그이 가르키신 먼먼 미래에로 열려진 창문들을  
허나 우리 당 총비서 **김정일**동지  
그이는 오늘도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벌에 가계시다

새해의 벽두  
소복이 내린 흰눈우에 첫자욱 새기시며  
이 프락을 나서신 그이  
그이는 일년 열두달 365일  
야전복차림으로 눈비에 젖으시며  
언제나 병사들의 초소와  
창조로 불타는 일터에 계신다

아버이수령님 바라시던 모든 일  
최첨단과학과 기술로  
풍요한 가을처럼 이룩해놓으시려  
그이는 이 시각도  
종자와 열정, 지혜와 신심을 주시며  
인민들이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계신다

인민을 위해선 떡도 치고

방아도 찧고 망질도 하여야 한다고  
항시 인민에게 더 큰 기쁨 안겨주시려  
그이께서 가고가시는 그 자욱따라  
우리 당중앙의 이 프락은  
내 조국땅 그 어디나  
더 멀리 더 넓게 펼쳐지여라

조종의 산 백두산처럼  
이 땅에 억년뿌리 내린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  
그의 향도의 기치 날리는 어디나  
정일봉의 억센 기상을 펼쳐  
사람마다 무비의 용맹과 위훈속에 살게 하는  
절세의 위인

그이는 오늘도  
온 나라 인민들에게 만복을 안겨주시려  
비내리는 험한 령길  
바람세찬 해변길도 걸으시거니

행운이여라 행복이여라  
우리 당중앙 저 지붕아래  
그 누구나 복된 삶을 누려가고있음이  
이 땅 어디서나 이 프락에 안겨살며  
천만군민 한마음한뜻으로  
그이만을 하늘처럼 굳게 믿고 사는것이

오, 그이는 오늘도 그 믿음 안으시고  
쉬임없이 먼길을 가고계시여라  
병사들을 찾아서 인민들을 만나시려  
이 땅의 무게가 다 실려있는  
우리 당중앙의 이 프락을  
이 땅의 끝까지 펼쳐가고계시여라

# 나 의 당 원 증 번 호

## 박 세 일

언제부터더냐  
내 가슴에 품고 사는 당원증  
그 당원증에 새겨진  
례사로운 번호의 수자에서  
인생의 참의미를 깨닫게 된것은

그것은 땀과 눈비에 젖고

전호의 흠내 땀내 습배인 군복속에  
붉은 당원증을 품고  
중대로 달음쳐오던  
노을비긴 그 저녁부터였다

고지중턱에 올라 펼쳐보고  
중대병실에 들어서며 또 펼쳐보며

한자두자 심장에 새겨넣던  
아 나의 당원증번호

그것이 어찌 배움의 시절  
수학에 남다른 취미로  
진지하게 파고들던  
그런 수자와 같으랴

아니여라 그 수자는  
아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성스러운 우리 당 대렬의 순서를 알라고  
입당의 날 어머니당이 정해준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자리!

그러한것  
직무가 높다고 앞설수도

직무가 낮다고 뒤설수도 없는  
오직 한사람만이 지닐수 있는 당원증번호  
그것은 어머니당이 정해준  
당원의 삶의 위치며 좌지거니

애젊은 그 나이에 그 번호  
반백이 된 오늘에도 그 번호  
직무가 달라져도 변함없는  
당원의 불변의 번호여!

아 세상에 같은 나이  
같은 경력과 이름들이 많아도  
당이어 그대가 준 당원증번호는 둘도 없거니  
내 조국위한 성전에서 목숨을 잃었다 해도  
그대가 나에게 준 당원증번호를  
영생의 이름으로 불러달라

## 당이어 그대곁에는 이 아들이 있다

전 승 일

또 한차지 쇠물을 더 끓여내고  
당이어 그대를 조용히 불러보노라  
그러면 10월의 하늘가 저 멀리에서  
내 아들이 장하다고 축복해주는  
우렁우렁한 목소리  
이 귀전에 들려오는듯싶어라

한뼘 쇠물을 끓이는 용해공이건만  
어찌면 쇠물앞에서는  
그대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것인가

철없던 어릴적엔 다 몰랐어라  
비릿한 쇠물내 풍기며  
월계획 넘쳐했다고 소리치며 들어서던 아버지  
그런 저녁엔 밥상을 마주하고  
저가락장단에 노래를 불렀던지

정말 몰랐어라  
밤도 모르고 낮도 모르며  
아버지의 용광로가 끓이고끓여낸  
27만톤의 쇠물수자가  
당이어 그대에게 어떤 힘이 되었는지

한해 두해 쇠물을 끓여가며  
나는 깨달았노라  
힘겨울수록 어려울수록  
당은 왜 쇠물을 끓이는 우리를 찾았는지

뼈저리게 힘겹던 전후의 12월  
그날도 당은 불덩어리전기로앞에 있었더라  
광광 강성대국의 문패를 박는 오늘에도  
당이어 그대는 지동치는 강철로를 떠안고  
세기를 휘잡아 폭풍쳐가더라

통일의 대문에 빗장을 지른 역적들과  
사면으로 조여드는 제국주의자들의 정수리에  
어제도 오늘도 쏟아부은 쇠물이었으니  
쇠물은 다만 철광석을 녹인 불물만이 아닌  
우리 당의 심장을 불패로 고동치게 한  
오, 펄펄 끓는 신념의 붉은 피

아버지세대가 뉘으로 넘겨주고  
내 또한 피와 땀으로 심장에 새겨박은  
불변의 철리  
준엄한 날에도 행복한 날에도  
먼먼 세월에 가도  
당이어 그대의 가까운 곁에는  
언제나 우리 용해공들이 서있으려니

아, 또 한차지 넘치게  
붉은 쇠물을 끓여놓고  
당이어 그대를 목메여 부르는  
이 아들의 행복한 순간이  
한생의 보람으로 이어지게 하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나라에서 작가는 당건설과 활동의 영원한 동행자, 충실한 방조자, 훌륭한 조언자이며 당문예로선의 철저한 옹호자, 적극적인 관찰자이다.》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며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아로새겨온 우리의 조선로동당! 우리 당이 걸어온 65년의 자랑스런 로정에는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자기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고 참다운 혁명문학창조로 우리 당을 받들어온 작가들의 자욱도 뚜렷이 새겨져있다.

한없이 따사롭고 크나큰 위대한 사랑의 그 품속에서 참다운 인생의 진리를 배우고 진정한 문학의 세계를 깨우치며 성장해온 우리 작가들.

편집부는 그 나날들에 있는 감동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쓴 이미 우리결을 떠나간 작가들의 수기중에서 그 일부분을 추려서 소개한다.

## 태양같은 영원한 사랑의 역사

리 기 영

나는 지금 밝은 해빛이 비쳐드는 서재 창가에 앉아있다. 창밖에서는 가락맞게 떨어지는 낙수물소리가 간단없이 들려오고 정원에서는 벌써 물이 오르기 시작한 나무들이 생신한 빛을 띠고 가물가물 피어오르는 아지랑이속에 서있다.

아직 주위에는 흰눈들이 군데군데 널려있으나 봄은 지심속깊이에서 새힘으로 약동하며 미구에 천만꽃이 만발할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져올 차비를 하는것이다.

90평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많이도 맞이한 봄이 건만 올해의 봄을 두고는 류달리 생각이 깊어진다.

이 땅에 무르녹을 계절을 마련하려고 눈속에서 움을 틔우는 이른봄을 맞고보니 잊을수 없는 한생이 느닷없이 떠오르면서 가슴을 뜨겁게 한다.

진정 흐르는 세월에는 끝이 있어도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시는 사랑에는 끝이 없다. ...

눈속에서도 세상만물을 꽃피우는 2월의 봄빛, 자연의 봄만이 아닌 이 봄이 있어 이 땅의 축복 받은 인민들은 영원한 행복속에 살고있는것이다.

생각하면 나라없던 그 시절에도 봄은 해마다 찾아왔다.

내가 동굴속같이 캄캄한 암흑속에서 살길을 찾아 암중모색하다가 집을 뛰쳐나와 방랑길에 오를 때도 지금과 같은 이른봄이었다.

삼남지방을 두루 돌아다니며 공사장과 로동판을 찾아헤매던 나머지 행여나 공부를 해볼가 하여 일본에까지 건너갔다가 간포대지진을 만나 목숨마저 잃을번 한 방랑의 나날에도 해마다 어김없이 봄은 찾아왔었다.

그렇다, 봄은 있었다. 나라를 잃고 광명을 찾아 헤매이는 소년에게도, 살길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청년에게도, 죽은 자식을 곁에 놓고 장례비를 마련하자고 글을 쓰지 않으면 안되였던 가난한 작가에게도 봄은 잊지 않고 찾아왔었다.

그러나 그것은 봄이 아니였다.

나라 없고 위대한 령도자가 없는 식민지인에게 있어서 그 봄은 눈녹은 물이 길바닥에 질적거리는 스산한 계절에 불과했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신 후 이 땅에는 진정한 봄이 도래하였다.

그 따사로운 봄빛아래 새로 태어나 살아온 40년, 더더욱 우리 인민의 미래의 태양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신 그 봄빛속에서 나는 지금 살고있다.

아, 이 은혜로운 품에서 다시 한번 더 태어났으면...

사랑의 이 품에 안겨 하늘같은 은혜에 보답을 못하고 어떻게 눈을 감을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나는 나의 목숨이 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내 심장의 피가 뛰고 숨결이 붙어있는 한 이 손에서 붓을 놓지 않을것이다.

만물을 소생시키고 키워내는 하늘의 태양처럼 나를 품에 안아 키워주시고 내세워주신 은혜로운 품! 창밖에선 짜르륵짜르륵 낙수물 떨어지는 소리가 설새없는데 한생을 돌이켜보는 나의 마음속에선 죽어서도 정녕 잊지 못할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해빛같은 미소어린 친근한 영상만이 하늘가득 안겨온다. ...

주체73(1984)년

# 빛나는 예지와 끝없는 열정을 지니시고

백 인 준

...참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비범하고 영명하신 지도, 그이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서 지난날에는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문학소조의 성원이었던 로동자, 농민들과 대학을 갓 나온 이름없는 작가들이 오늘은 우리 당의 당당한 문예사업부문 일군으로 자라났으며 넓고 도식적인 창작적올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해매이던 수많은 오랜 작가, 예술인들이 당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는 혁명적인 작가로, 예술가로 자라났다.

돌이켜보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피심과 한없이 넓고 따사로운 품속에서 내가 걸어온 길은 작가로서, 인간으로서 비약적으로 성장발전하는 과정이었으며 끝없는 영예와 행복으로 가득찬 나날들이었다.

그이께서는 미숙하고 혁명화되지 못한 저를 친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것보다 더 세심하게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어 당적이며 혁명적인 작가로, 당의 참된 일군으로 키워주시었으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저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을 모신 최고의 영예상인 **김일성**상계관인칭호와 작가로서의 첫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도록 하는 크나큰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김일성**상을 수여받으며 로력영웅칭호를 받으셔야 할분은 바로 다름아닌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이다. 그이께서 안겨주신 그 모든 영예를 그이께 드려도 우리는 그이께서 이 땅위에 이룩하신 그 불멸의 업적을 다 칭송할수 없다.

우리들을 정치사상적으로나 창작기술적으로 하나하나 키워주신 그 은덕만 하여도 대를 두고 두고 갚아도 다 갚지 못하겠는데 그이께서는 또 다시 저에게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그 높은 영예를 안겨주시었다.

실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살며 일하는 우리 작가, 예술인들 아니, 전체 조선인민의 행복과 영예는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다.

나는 이 행복, 이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대를 이어 영원히 한길을 걸으리라.

그 어떤 모진 풍파가 닥쳐와도 당의 문예사업부문 일군이 된 행복과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아버지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보위하는 사업의 맨 앞장에서리라고 나는 다짐하고있다.

주체63(1974)년

## 향 도 의 별 빛

천 세 봉

...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이렇게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우리 작가들이 한결음한결음씩 발자국을 내디디게 하시고 본격적인 창작에로 나서도록 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때까지 깊이 생각해오신 혁명문학건설에 대한 구상을 펼치시어 주체형의 인간학에 관한 이론, 종자론, 작품의 창작원칙과 같은 창작사업에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될 독창적인 사상과 이론, 방법들과 원칙들을 제시해주시었다. 그러시고는 문학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확립문제를 강하게 밀고나가시면서 아직 세계문학사에도 없는 수령형상문제를 우리들앞에 제시해주시었다.

수령형상문제! 이것은 참으로 사회주의사실주의 문학발전에서 새로운 일대 변혁이 아닐수 없다.

문학작품을 통하여 사람들을 교양한다는것은 결국 로동계급의 당을 창건하고 당의 지도사상과 이론을 창시한 수령의 사상으로 교양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므로 혁명운동발전에서 결정적역할을 하는 수령의 혁명활동과 혁명업적을 문학작품에 형상한다는것은 작품의 내용자체를 혁명운동발전의 본질을 밝히는 방향으로 나가게 할뿐 아니라 사람들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교양하는 사명을 가장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

결국 우리 문학은 문학예술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스승이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영명한 지도에 의해서 위대한 주체시대의 새로운 혁명문학으로 휘황히 솟아올랐다.

이 과정에 나자신도 진흙물의 소용돌이속에서 솟아올라 당당히 혁명문학을 하는 한 작가로서 자기 자리에 설수 있게 되었다. 실로 온 우주를 새로이 감득하게 하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가르치심과 끊임없는 지도가 없었다면 나는 혁명화의 심각한 길을 용감히 걸어낼수 없었을것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시대의 참된 작가로 재생할수 없었을것이다.

이 목메이는 고마움에 대하여 내가 무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한 작가를 그토록 아끼시어 것처럼 자애로운 손길로 이끌어주시며 힘을 잃은 그에게 정력과 의지를 불어넣어주시고 억센 나래를 달아주심으로써 오늘과 같은 소생의 환희를 느끼게 하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그 은덕의 크기를 내 과연 무엇에 비겨서 표현할수 있단 말인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정녕 위대한 시대에 위대한 문학을 안아올리고계신다.

나는 넓은 대지를 바라보듯 나의 탄탄한 앞길을 바라보며 때없이 눈물을 머금곤 한다. 아, 이 광활한 길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가. 언제나 나의 가



숨속에 휘황히 비쳐드는 그 찬란한 향도의 별빛!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어떻게 하면 내  
 일생 한이 없도록 잘 받들어 모실수 있으며 우  
 리의 새로운 혁명문학에 나의 몫을 기여할수 있겠

는가. 나의 절절한 마음속에는 늘 이것이 안타  
 까운 문제로 불붙고있을뿐이다.

주체64(1975)년

## 찬란한 향도의 별빛을 우리러

석 윤 기

...나는 빈농가의 가정에서 태어나 천대와 멸시  
 속에서 자라났다. 어려서 작가가 돼보겠다고 애를  
 쓰다가 그것이 죄가 되어 일제경찰에게 붙들려 죽  
 도록 매를 맞았다. 어혈이 지고 뼈마디가 부서져  
 서 돌아온 나를 부모들은 눈물을 흘리며 어루  
 만졌으나 그들에게는 중태에 빠진 자식에게 약 한  
 첩 써줄 힘이 없었다.

불구나 다름없이 된 나는 비로소 더러운 세상에  
 서 진리를 말하는 작가가 되겠다는것이 허황한 꿈  
 입을 깨닫고 붓대신 바줄을 들고 망망대해를 떠  
 다니는 배사람—나어린 《배놈》이 돼버렸었다.

그러던 나를 어버이수령님께서 그 넓은 한푼  
 에 안으시여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위대한 영광  
 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조선로동당의 당원으  
 로 키워주시였으며 것처럼 되고싶어 몸부림치던  
 작가로 키워주시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처럼 귀한 보약을 보내주신  
 단 말인가. ...

그이께서 보내주신 보약은 과연 신호를 나타내었다.  
 나의 몸은 몰라보게 좋아졌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탄생 예순돛기념 작품들을 창작하  
 는 긴장한 전투속에서도 오히려 힘이 약동하게 되  
 었다.

나는 온몸에 굶이치는 정열을 느끼며 그 힘을  
 부여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어버이사랑에 열  
 마간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 내땀에는 힘껏 일하

노라고 애를 썼다.

예로부터 내리사랑은 있어도 올리사랑은 없다는  
 말이 있다.

주체61(1972)년 6월, 나는 외국에 여행할 기회  
 를 가지게 되었다.

나는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선어방에서 문득 비  
 행기창박으로 유난히 빛나는 큰 별 하나를 발  
 견하였다. 내려다보니 두 대륙은 아직도 캄캄한  
 어둠속에 묻혀있었다.

비행기안으로 흘러드는 별빛을 바라보며 나는  
 내 심장속에 간직하고있는 친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거룩한 영상을 그려보았다.

찬란한 향도의 별, 이 세상이 아무리 넓고 우리  
 의 갈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언제 어느곳에  
 서나 우리 혁명과 주체적인 우리 문학예술의 앞  
 길을 환히 밝히시며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뜨거운  
 사랑의 불씨를 심으시여 심장을 덥혀주시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

내 어느곳에 가든, 내 어떤 일을 하든 비록 말  
 안 통하는 이국사람들속에 있더라도 나는 소리높  
 이 말할것이다.

우리 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영명하  
 신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모시고 사는 자량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행복을 나는 모른다고...

주체65(1976)년

## 크나큰 믿음, 끝없는 사랑

—위대한 수령님께서 시인 리찬에게 돌려주신 사랑에 대한 이야기—

리 맥

...그러던 어느날, 김책동지가 시인을 찾았다.  
 그는 리찬동무가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노래를 창  
 작하고있다는것을 알고 무척 기뻐하면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력사에 대하여 격정에 넘쳐 이야기해  
 주었으며 우리의 장군님처럼 위대한 영웅, 절  
 세의 애국자는 이 세상에 없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그 순간 리찬동무에게는 그렇게도 찾고 밤을 지새  
 우며 모대기던 시상이 번쩍이며 떠오르는것이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대오  
 를 이끄시고 장백산 줄기마다, 압록강 굽이마다 거룩  
 한 자욱을 새기시며 조국으로 진군해가는 장엄한 화  
 폭이 시인의 눈앞에 현실처럼 펼쳐지는것이였다.

시인 리찬동무는 드디어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뉘우쳐치는 경모와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활화

산처럼 뿔어올리며 붓을 달렸다.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욱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욱  
 오늘도 자유조선 꽃다발우에  
 력력히 비쳐주는 거룩한 자욱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시상은 끝없이 하늘에 날고 노래는 강물처럼 거  
 침없이 흘렀다.

만주벌 눈바람아 이야기하라  
 밀림의 긴긴밤아 이야기하라

답 시

## 구운 감자 이야기

김길성

백두고원의 찬바람에  
가을단풍도 색이 바래고  
이갈방풍림 황금잎새도 떨어져  
포전머리에 황금주단 펼친  
조국의 북변땅 대홍단별

보라색 흰색감자꽃 활짝 핀  
여름철 좋은 때 장군님을 기다리였건만  
좋은 철 좋은 날엔 아니 오시고  
싸락눈이 내리고 찬바람부는 감자포전에  
아버이장군님 오셨네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도 돌아보시고  
감자포전이며 종자처리장  
그리고 새로 지은 제대군인마을도  
멀리에서 가까이에서 보시며  
만족해하신 장군님

가을날 짧은 해는 어느덧  
정오를 지나 한참  
방풍림우듬지를 지나 떨어지고  
농장원들 오후작업 성수났는데  
장군님께 수행원이 말씀드렸네

—장군님 점심식사시간이 펍 지났습니다  
아직도 돌아보실 곳 많으신데...  
오늘은 먹지 않아도 배부른것 같다고  
새로 건설한 감자연구소까지 보자고 하시며  
앞서 걸으시는 장군님

만고의 빨찌산이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로동자대중에게 해방의 은인  
민주의 새 조선엔 위대한 태양  
20개 정강우에 모두다 뭉쳐  
북조선 방방곡곡 새봄이 온다  
아 그 이름도 그리운 우리의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장군

우리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가 담겨져  
있는 영광의 노래, 충정의 노래, 온 세상 사람들이  
희망에 넘쳐 높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 영원불  
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사는 이렇  
게 세상에 태어났다. 그후 이 가사는 명곡으로 완  
성되었다.

얼마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시청회가 열리게  
되었고 시청회참가자들은 더없는 감격과 기쁨을 안  
고 혁명송가의 탄생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

산촌의 짧은 해도  
안타까운 심정 장군님께 아뢰이는듯  
방풍림 긴긴 그림자를 앞세워  
그이의 걸음걸음 따라서는데  
이번에는 농장일군이 말씀드렸네

—장군님 점심식사시간이 퍼그나 지났습니다  
농장원들이 저희들을 얼마나 원망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나신 장군님  
—정말 그렇군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기 방풍림속에서 감자구이로 점심을 합시다

방풍림속에 모닥불이 피어오르고  
어릴적 옛추억을 불러오는  
구수한 감자굽는 냄새 내굴냄새  
구수한 냄새에 새들도 깃을 치며  
방풍림우듬지에 넘나들고...

손수 구운 감자 껍질을 벗기시어  
수행원들에게도 쥐여주며  
탄 껍질을 먹으면 건강에 나쁘다고  
손수 벗겨주는것을 먹으라고 하시며  
장군님께서도 달게 드신  
아, 포전머리 구운 감자식사여

아, 이날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마음을 담아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력사의 날 10월 8일이였다!

시인 리찬동무는 이렇듯 뜨겁고 극진한  
아버이수령님의 사랑속에서 조선로동당원의 영  
예를 지닐수 있었으며 새 조국 건설의 앞장에 선  
일군으로 자기 초소를 지켜나갈수 있게 되었다.

리찬동무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조선혁  
명의 전위대오에 들어서면서 심장으로 한생을 변함  
없이 **김일성**장군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그이께 끝  
까지 충정을 다하리라고 맹세를 다지였다. ...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랑과 믿음속에서 보람찬 삶을 누린 시인 리  
찬동무가 우리결을 떠난지도 여러해가 흘렀다.

하지만 그는 죽어도 잃지 않는 생을 안고 오늘  
도 전진하는 우리 혁명대오와 함께 나아가고있다.

태양의 빛을 받아 못별들이 영원히 빛을 뿌리듯  
이 가장 위대하고 한없이 은혜로운 사랑의 품  
이 있어 시인과 더불어 우리 인민모두는 이 세상  
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값높은 정치적생명  
을 지니고 것처럼 빛나는 삶을 누리고있는것이다.

주체70(1981)년

## 사랑의 대지를 품어안은 위인의 숭고한 세계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2) 《충복》을 읽고 —

권 선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훌륭한 사람의 뒤에는 훌륭한 어머니가 있는 것처럼 지난날 천대와 굴욕 속에 짓밟히던 우리 인민이 세상에서 가장 존엄있는 인민으로 자랑 떨치고있는것은 그들을 승리와 영광, 참된 삶과 행복의 한길로 이끌어주고있는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기때문이다.**》

아름드리거목이 무성한것은 드넓은 대지에 깊이 뿌리내렸기때문이며 작은 시내물의 줄기찬 흐름은 억년 마르지 않는 샘줄기를 가졌기때문이다.

그 나무에 영양소를 주어 싱싱한 잎새와 무성한 아지를 마음껏 펼치게 하는 비옥한 토양처럼 포근한 품, 억만가닥의 물줄기에 끊기지 않는 원천을 이어주는 샘줄기처럼 끝모를 사랑의 품이 있다. 그 품에 안기여 시들은 꽃 한송이, 떡잎진 나무 한 그루 없는 아름다운 내 나라에 그 행복의 화원을 가꾸는 파사로운 해빛은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에 뿔어진다, 드넓은 대지, 비옥한 토양, 웃음 넘친 이 땅에...

세상만물을 품어주는 이 땅을 품어안고 사랑으로, 인덕으로 소중히 감싸안은 파사로운 그 품이 있어 찬눈비, 찬바람을 모르고 사는 우리 인민이다.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도 지니지 못했던 인덕을 지니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로 인간사랑의 대서사시를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은 최고의 인간미와 최상의 인정미를 지니신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는 그 길에서 만나주신 사람들모두가 전설처럼 전하는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한편한편의 소설이 되고 자욱자욱 남기신 가슴뜨거운 일화가 노래로 엮어진 단편소설집(2) 《충복》은 천만군민의 심장에 사랑의 서사시를 끝없이 불러준다.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에 대한 사랑은 정치의 초석이라고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인민대중이 정치의 대상으로부터 정치의 주인으로 된 사회주의사회에서 정치의 본질을 명시해주며 우리 당 정책의 절대적인 기준을 불멸의 진리로 심어준다.

단편소설 《충복》(김병훈 작)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함께 신발전시장을 돌아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지 인민들이 신고 불편을 느끼지 않는 신발을 많이 생산하는것은 신발문제이기 전에 인민에 대한 사상문제라고 강조하시고 자기 지방의 흔한 자재원천인 돼지가죽과 천으로 품위있고 신음직스러운 신발을 생산한 어느 한 지방산업공장의 실패를 로해하시는 이야기이다. 5년동안 수만명주민들의 발을 재서 연구한 김운식기사는 해방직후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과 함께 자기의 고향 고성땅에 오신 어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신께서도 신지 않고 아껴두셨던 새 가죽구두를 신겨주신 소중한 추억을 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대로 우리 인민의 발구조를 연구하여 신발문제를 풀어보려는 불같은 일념을 지닌 평범하고 수수한 사람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민의 불편, 인민의 아픔을 자기의것으로 받아들이고 안타까와하는 김운식의 소중한 마음을 가장 기쁘게 받아들이신다.

《...인민의 복리, 그것은 우리의 모든 활동의 출발점이고 기준이며 행동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일군들에게 인민의 충복이 되라고 타이릅니다. 이것이 우리 수령님의 뜻이고 당의 뜻이며 우리의 확고부동한 의지고 신념입니다. 인민의 충복이 되자는 이 뜻을 같이하고 일생을 바쳐 헌신분투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참다운 동지입니다. ...》

인민의 기쁨을 자신의 더없는 행복으로 여기시고 인민의 아픔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안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인민애는 신발생산이라는 문제를 장군님의 참다운 동지관의 세계로 승화시켰다.

등대섬마을 무선수청년의 안해가 해산하게 되였다는것을 아시고 해상사격훈련시간을 뒤로 미루도록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사랑의 세계를 형상한 단편소설 《설레이는 바다》(김동호 작)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를 지켜주고 보살펴준 은혜로운 그 품, 자애로운 아버지의 품에 대한 강렬철의 주정토로는 그대로 고요한 정적으로 잔잔한 바다를 끝없는 걱정으로 뒤설레게 한 아버지의 크나큰 사랑을 전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사랑속에서 두번다시 태어난 한 지휘자의 운명을 통하여 《참된 삶은 당의 그 믿음에서 시작되고 그 믿음에서 영원해야 한》다는 진리를 천명한 단편소설 《참

된 삶은 어디에》(김봉철 작) 그리고 조국에 대한 사랑을 안고 량심의 등대불을 지켜가는 평범한 등대섬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조국의 불빛, 조국의 숨결을 지키는 혁명가들로 내세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 품을 이 세상 어디에도 비길 수 없는 따사롭고도 은혜로운 사랑의 품으로 격조높이 구가한 단편소설 《조국의 품》(김수범 작)은 감동깊은 형상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준다.

위대한 장군님의 모든 사색은 어버이수령님의 뜻대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힘있는 존재로 내세우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도록 하는데 있음을 사회생활전반에 대한 정력적인 정도의 폭과 깊이로써, 세심한 손길로 보살피고 이끌어주시는 수많은 인물들의 운명에 대한 해명으로 그려주고있다.

단편소설 《사랑의 해발》(김형지 작)에서 김병섭장장, 단편소설 《새벽바다》(신용선 작)의 근혁로인, 단편소설 《위대한 순간》(윤민중 작)에서 전무형사진사는 위대한 사랑의 직접적인 체험자들로서 위인의 숭고한 사랑의 세계를 꾸밈도 가식도 없이 우리모두가 받아안은 사랑의 뜨거움으로 느껴안도록 하는 가장 평범한 인물들이다.

단편소설 《사랑의 해발》은 수천척지하막장에까지 비쳐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사랑은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밝고 뜨겁게 비쳐주시는 위대한 사랑의 해발임을 온 누리를 비쳐주는 태양의 빛발에 비겨 긍지높이 천명하고있다. 10여년전에 광부들의 막장휴게실을 잘 꾸려주라고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교시를 집행하여 그존한 문화후생시설까지 갖춘것으로 만족하였던 김병섭장장은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뵙고서야 그날에 주신 수령님의 교시가 단순히 휴식장소를 잘 꾸려주라는 뜻이 아니였음을 심장으로 절감한다. 막장에서 아무리 많은 광석을 캐낸다고 해도 광부들의 건강과 그들의 가정의 행복과 바꿀수 없다, 우리가 광석을 많이 캐자는것도 인민들의 더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필요하기때문이라고 절절히 이르는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은 광석증산의 참의 미뿐아니라 천만금의 재부와도 바꿀수 없는 평범한 광부들의 귀중함과 그 광부들을 따듯이 품어주시는 사랑의 무한대의 깊이를 격조높이 구가해준다.

그런가 하면 단편소설 《위대한 순간》에서는 한 평범한 사진사가 품고있던 간절한 소원, 그의 마음속에 품고있던 깨끗하고 소중한 소원을 누구보다도 깊이 헤아려주시고 어버이수령님을 사진에 모시는 행복한 순간을 마련해주시는 뜨거운 사랑도 전하고있다. 뜨겁고도 따사로운 사랑과 믿음으로 만민을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품모와 사랑은 전무형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그

런 행복을 마련해주시기 위한 로고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지고있다는것을 확증하면서 그런 순간들이 모여 더욱 광휘로운 우리 인민의 앞날을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단편소설 《새벽바다》는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드시여 몸소 쪽배를 타고 이른새벽 바다에까지 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눈물겹게 창조하고있다. 이 세상에 바다처럼 넓고 깊은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김근혁로인은 바다와 함께 한생을 살며 그 바다에 사랑과 정을 깡그리 고이고 사는 바다사람이다. 바다를 끝없이 사랑하면서도 그 바다를 자식들과 후대들에게 옮겨 물려주지 못한 괴로움을 안고 모태기는 세부들은 바다에 한생을 잇고사는 참된 바다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히 품고있는 애국심을 진하디 진한 감정으로 돌구어내고있다. 바다에서가 아니라 심장에서 고기를 기르고 낚아내는 근혁로인의 웅심깊고 깨끗한 마음을 사시장철 푸른 바다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영웅의 심장은 영원한 청춘을 되찾는다. 근혁로인의 한생에 그렇게 넓고 깊게만 비졌던 그 바다도 인민을 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바다에서 출렁이는 하나의 작은 세계였음을 해뜨는 새벽바다의 웅건한 자태에 비기여 감동깊게 해명하고있다.

수도시민들의 군중시위를 성과적으로 진행하는 이야기를 담은 단편소설 《새 전설》(진재환 작)은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과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기적을 낳고 새 전설을 낳았음을 공화국창건기념일행사와 그치지 않고 내리는 가을비라는 극적인 대조를 통하여 각일각 손에 땀을 쥐게 하는 형상으로 펼쳐나가고있다. 직관물이나 가장물이 비에 못쓰게 될것을 근심하는 일군들에게 진짜문제로 되는것은 수도시민들이 찬비를 맞는것이라고 하시며 그처럼 중요한 행사의 정치적중요성보다도 사람들의 건강에 미칠 영향을 먼저 헤아리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다심한 사랑이다. 행사를 다음날 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날씨가 결정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천기를 내다보신 비범성보다도 그 하늘을 굴복시킨 인민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위인의 숭고한 심종을 깊이있게 개방하고있다.

인민을 하늘처럼 여기라!

그리고 그 인민을 위해 한생을 바치라!

바로 이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신념이며 좌우명이였다.

하다면 그이의 심장은, 만민을 품어주는 무한대의 사랑은 인민의 념원과 의사가 꽃피나는 이 땅을 굳건히 받쳐주는 무쇠기둥, 만년초석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정미는 인간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속에 있다고 밝혀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명언은 인정이 없는 사람은 향기없는 꽃이고 잎이 없는 나무와 다름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있다.

따뜻한 인정미와 뜨거운 인간미!

이것은 주체시대의 인간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적특질의 하나이다. 나라와 민족의 통성번영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깡그리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평도는 조국과 인민, 동지들과 후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 따뜻한 인정이 가져다준 인간미의 최상의 경지, 인간미의 산화폭이다.

산천도 울릴 따뜻한 인정을 깡그리 베푸시는 그이의 인간미!

매혹은 의무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따르는것이다. 평도자의 평도적지위가 아니라 참다운 인간, 위대한 인간의 따뜻한 인정에 저도 모르게 매혹되어 온몸을 다 바치는것이 우리 사회의 고상한 도덕률리로 되었다. 인민의 기쁨앞에서 웃음도 많으신분, 인민의 불편을 두고 괴로움이 크신 그이, 인민의 아픔을 직접 안으시고 눈물도 많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다.

일군들모두가 따뜻한 인정세계를 지닌 다정다감한 인간, 뜨거운 인정미를 소유한 열정의 인간이 되도록 이끄신 사랑의 이야기가 단편소설들인 《햇복숭아》(김정 작), 《어느 한 겨울날에》(백남룡 작)의 화폭으로 펼쳐졌다.

락원거리건설장 지휘관의 한사람인 박웅하가 안해의 문병도, 딸자식의 학교에도 한번 가보지 못하고 일속에 묻혀사는것을 아시고 《일군들이 인정미가 없으면 결국 생산도 떨어지고 당에도 손해를 준》다고 준절히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따사로운 손길은 병원에 가져가도록 몸소 마련해주신 햇복숭아의 과일향기가 풍기는 최고의 인간미, 최상의 인정미로 가슴가슴에 흘러들고있다.

우리의 인민보안일군들에게 계급적원썹들을 끝없이 증오하고 징벌하는 무자비한 계급정신과 함께 자기 인민을 아끼고 뜨겁게 사랑하는 애민정신을 사업의 신조로 세워주시는 단편소설 《어느 한 겨울날에》의 여운도 자못 크다.

단편소설 《행복한 가정》(리장후 작)에서 가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선율이 실어다주는 뜨거운 사랑의 세계는 또 얼마나 거세찬 충격으로 여운을 남기는가, 민족최대의 명절인 어버이수령님의 탄생기념일, 4월 15일을 맞으며 온 나라 아이들에게 선물옷을 안겨주실 원대한 구상과 작전을

펴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대해같은 사랑을 경공업부문의 책임일군인 윤석민의 직접적인 체험과 느낌속에서 감동적으로 펼쳐놓고있다. 눈사태가 쏟아져 선물옷감공급이 늦어지게 되자 직송기를 띄우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유치원아이들의 웃음 그들의 취미와 특성까지 고려하여 만들도록 하시는 다심한 은정으로 심화되다가 멀리 외국에 나가있는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선물옷을 그것도 해당 나라의 기후조건에 맞는 옷을 해입히도록 하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첨증된다. 아이들을 위해 이 세상 천만자식들의 부모들을 대신하여 기우이시는 그 사랑의 폭과 깊이는 외국에 나가있는 아이들의 몸치수를 직접 재여오도록 대책을 취해주시고 선물옷운반을 위한 특별비행기까지 띄우도록 하시는 꿈같은 현실로 증폭시켜 전하고있다. 그 깊이와 끝을 알수 없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이 아이들을 가진 모든 부모들의 심장속에 한 겹두겹 깃들다가 세상에서 가장 따사로운 당의 품을 노래한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로 터쳐진다.

인정미는 인간을 무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뜨거운 심장에 있다. 그 심장으로는 단순히 세태풍속적인 애정률리의 세계가 아니라 생사를 같이하고 운명을 함께 하는 참다운 동지애의 세계를 창조한다.

한사람, 한사람의 마음속 그늘 한가닥도 무겁게 대하고 그들의 아픈 마음 한구석도 크게 안으며 뜨거운 인정미를 지닌 진정한 어머니의 모습으로 확연히 안겨드는 당일군들의 참된 모습뒤에는 훌륭한 자식을 키운 거룩한 어머니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손길이 있다.

용광로대보수전투를 지휘하시며 인간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눈부신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는 무비의 담력과 힘을 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은 단편소설 《어머니의 목소리》(리종렬 작)에서 위인의 사랑은 인간을 영웅으로, 투사로 키운다는 철학적인 형상으로 감명깊게 그려지고있다.

단편소설 《심장의 메아리》(권정웅 작)는 결코 문화예술부문의 책임일군인 박운도 한사람의 심장에 주는 울림만이 아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세상을 떠난 작가의 가정사를 돌보는것을 전우로서 지키는 최대의 의리로 여기고 만족해하는 박운도에게 당일군이라면 마땅히 다른 사람들의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줄 알아야 한다고 하시며 뜨거운 심장을 지니도록 하여주신다.

따뜻한 인정과 뜨거운 사랑으로 슬하의 천만자식모두를 품어안으신 자애로운 그 품속에서 위대한 스승을 닮고 어머니를 닮아 사랑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꿔갈 우리 인민!

그 사랑, 그 위대한 심장은 어머니당의 숨결, 자애로운 그 품이 있어 이토록 뜨겁고 영원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혁명은 인민에 대한 사랑이라고 밝혀주시었다.

불변불휴의 로고를 바쳐 인민의 행복을 가꾸는 여기에 위대한 장군님의 최대의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으며 혁명하는 보람과 락이 있는것이다.

단편소설 《잊을수 없는 화폭》(엄단웅 작)에서는 서해갑문건설이라는 웅대한 대자연개조건설 전투를 통하여 인간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간직하는 인민군대좌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펴나가면서 회상식구성법의 묘미를 살리고 있다.

단편소설집 《충복》에 들어있는 한편한편의 단편소설들은 모두 수령형상창조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리면서도 여러가지 형상수법을 능란히 활용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과 비범한 령도의 고매함을 사랑과 믿음의 철학세계로 빛나게 형상하고있으며 형상의 심도와 구성의 립체성으로 시종 일관한 견인력을 보장하고있다.

단편소설 《목란꽃 피어나다》(백현우 작)에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회억하신 목란꽃나무를 찾아가시면서 산책하실 휴양소구내에 떠돌기도 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잘 보여주시었다. 그 목란꽃은 단순한 꽃나무가 아니었다.

《수령님께서 오랜 세월 못 잊어하시었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찾아주시는 꽃, 피눈물로 얼룩진 조국의 과거만이 아니라 행복의 오늘과 보다 빛날 래일마저 함께 비껴있는 꽃— 그 꽃은 바로 선녀 자기였다.》

한그루 꽃나무에 비껴 한 녀성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래일의 운명사는 명백한 대조를 통하여 《기둥에 업혀 꽃을 보며 울던 동무가 오늘은 이렇게 꽃밭속의 소장이 되었구만.》라고 대견해하시는 아버지수령님의 뜨거운 모습속에 빛나고있다.

본질적이며 특징적인 세부를 탐구리용하여 보다 집약되고 심도있는 형상을 창조한 좋은 례가 단편소설들인 《빛나는 복무》(최성진 작)와 《봄날의 미소》(문상봉 작)이다.

단편소설 《빛나는 복무》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시야에 비껴오는 한그루의 로송에 대한 세부는 30년을 하루와 같이 자신을 바쳐 당과 조국을 위하여 성실하게 헌신적으로 복무한 석창해 인민군대좌의 한생을 웅변적으로 실증하는 유력한 형상이다. 하기에 무성한 수림속에서 위대한 장군님의 눈길에 보여졌던 한그루 로송은 물에 떠내려가던 잣나무모를 건져 함께 심었다는 상등병전사의 이야기와 벼랑에서 노루를 안고 온 사연을 통하여 다시금 석창해대좌의 깨끗하고 성실한 한생으로 비껴들다가 그의 한생을 더욱 빛나게 가꿔

주시려는 위인의 뜨거운 심리세계로 굴절된다.

단편소설 《봄날의 미소》에서도 꽃화분 하나에 인간의 모습이 비끼도록 형상의 초점을 맞추고있다. 인민대학습당 지봉수정방안이 서지 않아 골머리를 앓으며 인생의 조락을 느끼는 건축설계실장 리의천, 그자신이 바로 시들은 꽃화분이였다.

《밝고 아름다우며 희망넘친 생활》을 떠나 서가와 설계실에만 불박혀 시대적정서를 외면했던 그의 정신적허탈과 무력감을 바로 시들은 꽃화분이 잘 보여주고있다.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으로 인간의 참된 삶을 꽃피워주시여 몸도 마음도 젊음을 되찾고 창조의 나래를 활짝 꽃피울 흥분으로 설레이는 리의천의 형상이 위대한 장군님의 따뜻한 미소로 하여 더욱더 밝게 빛난다.

세부형상 하나로 얻어지는 화폭은 그대로 독자들의 심장에 커다란 정서적파동을 실어준다.

단편소설 《도하장부근》(석윤기 작)에서는 아버지수령님께 멋있는 전투장면이 아니라 실전의 분위기속에서의 우리 무력의 실태를 보여드려야 한다는 숭고한 사상을 지니신 군사의 령장으로서의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상을 잘 보여주고있다. 빛나는 예지로 검탄천도하를 둘러싼 탁상공론에 종지부를 찍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위인적형상은 아버지수령님을 모시고 항일전구를 헤쳐온 최석권의 심리세계에 굽이치는 걱정을 통하여 감명깊게 부각되고있다.

단편소설 《영원한 상봉》(현승남 작)은 예상을 뒤집는 전도법을 능숙하게 활용하여 극적흥미와 견인력을 보장하고 작품의 정서적감흥과 여운을 크게 하고있다. 해외교포인 리영준과 인민배우 강철호와의 부자관계를 따뜻한 사랑으로 헤아려보시고 그들의 마음속 그늘을 가져주시려고 마음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은 리영준이 아버지수령님을 가장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만나 뵈도록 해주는데서 심화되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고난 뒤에 리영준의 다른 하나의 소원인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는것은 그 누구에게나 공인된 사실이다싶이 확정적이다. 한 인간의 마음속 괴로움을 남먼저 헤아려보신분도, 수십년간 생사조차 모르고 산 부자간의 정을 이어주시신분도, 리영준을 한번 만나보고싶다고 하신분도, 그가 요구하는것은 그 무엇이나 다 해주시려는분도 바로 우리의 위대한 장군님이시기때문이다. 그러나 뜻밖에도 박성우부부장은 영준선생을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한다. 잘못 들었는가? 리영준의 놀라움과 함께 독자들의 놀라움도 자못 크다.

여기에 조용히 울리는 박성우부부장의 목소리. 《그이께서는 영준선생이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뵈옵고 하늘의 태양을 안은것처럼 여기는데 대해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그러면 됐다고, 영준선생이

# 백 학 들 이 날 아 들 때 면

박 해 출

금물결  
일고이는  
나락의 파도우에  
갈매기런듯 백학이 날아들 때면  
가슴속에 차오르는 장군님 생각

장군님 오셨던  
6월의 그날에도  
그이앞을 빙빙 떼지어 돌고돌았지  
가을날 백학이 날아들 때면  
신암벌의 풍치가 더 멋있을거라시며  
환하게 웃으시던 우리 장군님

오시고  
또 오시여  
사랑만을 베푸시건만  
오늘 오실가  
래일 오실가  
철부지아이처럼 기다리는 마음

새 물길 하도 좋아 찾아왔느냐  
이 벌이 아름다워 날아드느냐  
장군님 오신 길 가신 길 따라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아에는 새들아

너는 그리움의 새

이 마음  
나래에 얹고 날아가고싶구나  
아버지장군님 어디에 계실가  
그 어느 농장포전에서  
신암벌에 날아에는 백학들의 울음소리  
듣고계실지 어이 알라

지평선 저끝까지 행복은 파도치고  
백학들이 날아에는 아름다운 풍경  
이런 날 이런 가을날에  
아버이장군님 모시였으면  
그리움에 설레이는 전야여  
사회주의대지는 장군님의 품

아 이 마음  
경애하는 그이품에 다시 안긴듯  
날아가다오 학들아  
장군님 계시는 그곳으로  
훨훨 날아가 아뢰여다오  
풍요한 가을 펼쳐놓고 장군님을 기다린다고  
낮이나 밤이나 그리움속에 우리 산다고

우리 수령님을 하늘의 태양으로 알게 됐으면 다라  
고 하셨습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하나인것처럼 리영준의 가슴  
에도 하나의 태양, 아버지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  
이 밝게 빛나도록 하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  
큰 충정의 세계는 인간 리영준의 심장을 세차게  
울린다. 그에겐 또 하나의 태양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이 밝게 빛나며 안겨든다.

위대한 장군님을 만나뵈었다는 흥분을 안고, 어  
디 가서든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받들어모시도록  
하시려는 그이의 숭고한 뜻을 대를 이어 지켜갈  
맹세를 품고 가는 리영준의 가슴속 격정을 통하여  
《영원한 상봉》의 의미를 해명하고있다.

극성으로 충만된 상봉의 세계에서 오는 감동과  
여운은 이처럼 크다.

단편소설 《시대의 축복》(박운 작)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내면심리세계에 대한 묘사를 진  
실하게, 격이 있게 펼쳐였다. 자신께서 지니셨던  
아버이수령님에 대한 깨끗한 충정의 마음을 혁명  
가극의 녀주인공의 사상정서세계로 이어놓으시  
는 불멸의 사색속에서 가극의 사상정서적행인

불후의 고전적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의 노래가 태여날수 있었고 그 노래를 부  
르며 성장하는 수백수천의 안영애가 자라날수 있  
었다.

×

눈들어 바라보아도, 귀를 대고 들어보아도, 심  
장을 대여 가늠해도 이 땅 어디에서나 인간사랑의  
대교향곡이 강산을 뜨겁게 진동한다. 이 세상 끝  
어디를 가나 인민을 위한 정책이 실시되고 백천가  
지 일의 중심에 인민의 리익이 놓여지고 병원과  
공원이며 상점에 이르기까지 인민을 위하고 인간  
을 위하여라는 구호가 생활의 좌우명처럼 된 내  
나라!

이 땅, 이 하늘을 품안고 사랑의 서사시, 인간  
중심의 대화원을 가꾸는 위대한 당의 품을 과연  
수백수천편의 소설엔들 담아낼수 있을것인가.

사랑으로 충만된 이 땅에서 부르는 위대한 당,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노래는 세기와 세기를  
넘어 이 세상 끝까지 영원토록 울려갈것이다.

## 경희극 《산울림》은 선군시대 문학예술을 대표하는 기념비적절작

김일성상제관작품 경희극 《산울림》(리동춘작)은 당의 농업정책을 높이 받들고 알곡생산을 늘이고 사회주의농촌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펼쳐나선 어느 한 산간지대 농업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과 보람찬 생활을 펼쳐보이는 작품이다.

1960년대초에 창작공연된 경희극 《산울림》은 작품의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비상한 감화력으로 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계속혁신, 계속전진으로 고무추동하는데 적극 이바지하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높이 평가하신 경희극 《산울림》은 반세기가 되어오는 오늘에도 여전히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고있다고 하시면서 이 경희극을 국립연극단에서 재창조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창조된 경희극은 명랑한 웃음과 재치있는 해학으로 당대의 시대상을 방불하게 반영하고있으며 조국의 통성번영을 위해 애국의 열정을 다 바치며 시대를 주름잡아 달려나가는 천리마시대 우리 인민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숭고한 이상, 불굴의 투쟁력을 생동하게 잘 보여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시대와 함께 전진하는 혁명적문학예술로 되어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대중을 혁명과 건설으로 힘있게 불려일으키는 당의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어야 합니다.》

현실에 뒤떨어지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지 못하는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로동당시대를 투쟁과 위훈으로 빛내여온 전 세대들의 아름다운 인생관을 생동한 예술적화폭으로 펼쳐보인 감동깊은 공연을 보면서 천리마시대의 선구자들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강성대국건설위업에 한몸 다 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있다.

###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의 훌륭한 교본

경희극 《산울림》은 새시대, 선군시대의 요구와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혁명가로 키우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데서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될뿐아니라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

상교양의 훌륭한 교본으로 되고있다.

경희극은 무엇보다도 락천적이며 생활긍정적인 명랑한 색조로 일관된 천리마시대의 행복한 생활 그대로를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사회주의의 본태를 뜨겁게 감수하도록 하고있다.

경희극은 천리마시대의 생활적진실에 엄밀히 립각함으로써 혁명적락관주의로 들끓는 사회주의 현실의 본질을 정확하게 담을수 있었다.

부분적인 일군들속에 남아있는 일시적인 자만도 취가 천리마의 기세로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사람들과의 갈등을 통하여 웃음속에서 선명하게 비판되고있으며 이것은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에게도 많은 교훈을 주면서 자신들을 시대의 발걸음에 보폭을 같이하도록 감성적으로 체득시켜주고있다.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전면적으로 확립되고 전체 인민이 당의 두리에 뭉쳐 한결같이 더 좋고 아름다운 생활을 건설하려고 내달리고있는 우리 사회에서 낡고 보수적인것은 선진적인것과 새롭고 혁신적인것앞에서 정면으로 공개적으로 나서지 않으며 또 나서지도 못한다. 때문에 낡은 기성관념에 의한 갈등의 고식적인 추구로써는 우리 시대의 생활의 본질을 진실하게 반영할수 없다.

경희극 《산울림》에서 기본갈등은 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전진도상에서의 선진적인것과 보수적인것과의 충돌로써 이루어졌다. 이 갈등의 처리는 구체적으로 주인공 석철과 송재, 기타 인물들의 호상관계에서 성과적으로 구현되였다.

경희극의 본질은 희극적인물이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그것을 정당하다고 믿고있는데 있는바 바로 이것이 작품의 문제성을 뚜렷이 규정하고있다.

송재는 옛날에는 정배지였던 자기 마을을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리기 위하여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러나 그는 초보적인 성과에 만족하여 이제는 더 앞을 내다볼줄 모르며 낡은 경험에만 사로잡혀 청년들의 창발적인 제기와 혁명적인 열정, 그들의 꿈과 이상을 리해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가로막는다. 본질에 있어서 선량하며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가지고있으며 그 부정적인 요소로 하여 우리의 전진에 일시적인 저해를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있는것이다.

때문에 우리 당은 적대분자가 아닌 이상 다 교양개조할수 있다고 강조하고있으며 긍정에 의한 부정의 감화를 사상교양에서 중요한 사업방법으로 제기하고있는것이다.

경희극 《산울림》은 우리 당이 제기하고있는



사상사업원칙을 형상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으며 여기에 바로 경희극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있다.

이와 함께 경희극 《산울림》이 사상교양에서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것은 우리 시대의 특징이며 그의 요구인 혁명적락천성과 명량한 웃음과 희열을 극에 진실하게 담은것과 관련된다.

작품에서는 경희극형식에서 지금껏 해결을 요하던 많은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였다. 그 내용에 적응한 형식의 탐구, 이것은 작가들의 창작과정에 실천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이다.

경희극 《산울림》에는 희극형식의 작품창작에서 많은 창작실천적인 문제들을 시사해주고있다.

레컨대 대조적인 성격들이 조성하는 심리상태의 각이한 정황, 해학적수법의 능숙한 활용, 희극적정황속에서 긍정인물들의 처리, 웃음과 극의 유기적인 통일문제, 음악과 무용의 적절한 도입 등은 우리 시대의 본질을 경희극적인 양상에 맞게 진실하게 반영한 본보기로 되고있다.

경희극 《산울림》은 문학예술작품에서 당일군의 형상을 어떻게 창조할것인가 하는 문제에 훌륭히 대답하였으며 모범을 보여주었다.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심장으로 체득한 당일군의 생동한 형상을 창조한것은 경희극 《산울림》이 거둔 가장 큰 공적의 하나이다.

언제나 대중속에서 살며 모든 생활의 중심에 굳건히 서서 생활을 앞으로 이끌고 나가며 공허한 웨침과 따분한 설교로써가 아니라 군중의 심리를 파악하고 각이한 현실적조건에 알맞는 사업방법을 찾아낼줄 아는 세련된 일군, 우리 당의 핵심들과 언제나 앞채를 메고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우리 당 정책의 관철으로 이끌고 나아가는 리당위원장 략주의 형상은 경희극이 사상교양의 훌륭한 교본으로 되는 위력한 근거의 하나로 된다.

참으로 경희극 《산울림》은 천리마시대의 아름다운 현실과 동시대 인간들에 대한 송가, 달성된것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만 내달리는 천리마적기상, 생활공정의 락천성, 전진에서 자만하는 인간들에 대한 가벼운 동지적비판, 이 모든것이 작품에 일관됨으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을 강성대국건설투쟁에서 높은 리상을 가지고 헌신분투하도록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 희극형식발전에서의 혁신적인 성과

현실반영의 수단인 문학예술의 매 형태가 그러하듯이 희극도 자기 발전의 합법칙적요구에 의거한다.

생활이 복잡하고 다양한것만큼 희극적, 정극적, 비극적요소들이 서로 교차될수 있는 그런 작품에서 형태규정은 기본주인공들의 성격과 사건이 진행되는 정황의 특성에 의거하여야 한다.

아무리 웃음이 많다 하더라도 기본주인공들의 성격과 정황이 희극적이 못되면 그 작품은 희극으로 불리울수 없다.

경희극 《산울림》은 희극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옳게 구현함으로써 희극형식개척에서 혁신적면모를 보여주었다고 말할수 있다.

웃음의 근원은 생활의 본질, 사명에 대한 생활현상의 모순에 있다. 즉 계속혁신하고 계속전진하는 천리마시대의 본질, 사명과는 거리가 먼 이러저러한 생활현상에 웃음의 근원이 있는것이다.

경희극 《산울림》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이 소재는 정극으로도 될수 있다. 새것과 낡은것간의 갈등이 심각한 극을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 송재와 달수는 낡은 인물이라는데서 웃음의 대상으로는 되지만 그의 성격과 정황은 희극적일수는 없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희극을 성격과 정황의 통일을 유기적으로 실현한 작품으로 평가하는것이다.

경희극에서 송재와 달수는 희극적인 인물이기는 하나 풍자의 대상은 아니다. 풍자형식의 특성에 비추어볼 때 자기의 소극성을 깨닫고 개변되며 긍정인물을 따르는 이 두 인물은 풍자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관중들의 이들에 대한 웃음은 친근감을 띠고있으며 매우 동지적이다. 한것은 관리위원장 송재, 제2작업반장 달수는 모두가 북청회의 정신, 내각결정 77호의 정신을 받들고 적지 않은 일을 하였을뿐아니라 옛날에는 정배지로 되었던 이 마을을 지상낙원으로 전변시키는 사업의 선봉에 서있었기때문이다. 그들은 지난날 신발이 없어 짚신을 신고 장가든 구차한 사람들이였기에 우리의 사랑을 받을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다. 그들에게 있는 한가지 병집, 그것은 일을 크게 벌리지 말고 오손도손 재미나게 살아가자는 안일병이다. 또한 그들은 당에서 중요하게 강조한 모든 문제들을 제때에 집행하려고 하나 당정책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은 해설과 설복의 교양방법, 알곡보다 사람이 귀중하다는것, 예술에서는 내용이 귀중하다는것, 문제해결에서 혁명적이어야 한다는것도 알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현상은 우리 당의 천리마기상, 계속혁신, 계속전진의 사상으로 일관된 생활의 본질과 사명에 모순된다. 이 모순자체는 아직 웃음으로 될수 없다. 웃음은 그가 생활의 본질과 사명에 모순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제일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서 생긴다. 비정상적인것이 정상적인것으로 되기를 원하며 자기가 바로 그러하다고 생각할 때 그는 무의미한 노력, 성공하지 못한 자기의 의도에 의하여 우리의 웃음을 자아낸다.

이러한 경우에 웃음은 희극적인 인물과 긍정인물들간의 심리적상태의 차이에서 생겨난다. 여기서부터 석철은 이미 만세를 부르고 나앉은 송재,

달수에 대하여 혁신자의 입장에서 불만을 가지게 되며 조합에서 떠나려고 한다. 그러나 송재는 이 마을을 떠나겠다는 석철의 심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도시로 가기 위한 구실로 접수하며 금단에게 석철에 대한 교양을 할것을 분공주기까지 한다.

송재는 이것을 아주 잘한 일로 생각하며 이것으로 인간개조사업이 원만히 될것으로 만족해한다.

이 극적계기는 자기가 정상적이라는것을 확신하고있는 송재의 성격자체로 하여 3막에서 그 고조에 달하는 희극적정황을 낳게 하였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3막에서 다른 성격적측면인 관료주의도 로출시키고만다. 그에게는 잠이 든 사람을 깨워서 한밤중에 산보하러 가자고 할 그런 명분이 없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인간개조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달수와 그의 처를 불러냈다. 그리고는 달수에게 《조합원들이 모두 자고있을 때 간부들이 사업토의하는것이 얼마나 좋습니까.》라고 말한다. 이것은 그의 진심이다. 그러니 관중들에게는 웃음밖에 나올수 없다.

작품의 혁신적성과는 희극적인 요소들이 심각한 것과의 호상교차를 통하여 인간개조사업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데 있다. 이 문제는 석철과 옥음, 기선과 금단간의 호상오해에서 해결된다.

석철이는 옥음을 개조하고 안착시키기 위하여 그와 자주 만났고 일만 잘하면 도예술단으로 가는데 좋은 추천서를 받을수 있다고 거듭 강조하였다. 옥음이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노동의 희열을 맛보았고 선진적인 인간으로 되었다. 이 방법은 송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르다. 석철과 옥음간의 접촉은 석철을 사랑하는 금단, 옥음을 사랑하는 기선으로 하여금 고민을 갖게 한다. 이들의 고민은 심각하며 이로 하여 기선은 사업에서까지 락후해진다. 금단은 사업에서 앞장에 서기는하지만 내심의 고민은 매우 크다.

이러한 설정은 경희극에서 우스운것과 심각한것과의 통일을 보여준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은 정극이나 비극의 수법을 요구하지 않는다. 여기서부터 3막에서 볼수 있는 두 인간의 오해장면이 실감있게 관중들에게 안겨온다. 석철인줄만 알고 한부로 던진 말은 관리위원장과 부딪치게 됨으로써 극적정황을 조성시켰으며 퇴마루에서 옥음이 할아버지와 부딪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다.

경희극 《산울림》은 희극형식에서는 무시하여서는 안되는 과장의 수법이 주로 세부적인 형상을 통하여 리용되고있다.

1막에서 재담을 끝마친 석철의 심리는 송재의 추궁을 받고보니 잠잠할수 없었다. 여기서 작가는 《정치계 똥군.》을 리용하고 극적분위기를 석철에게 불리하게 조성시켰다. 그러나 그다음 기대했던것과는 다른 평가를 받은 석철과 특히 송재의 태도는 각이한 심리상태의 돌변적인 전환으로 하

여 해학적인 특성을 나타내게 하였다.

2막에서 범바위산으로 갔다온 서로인이 꽃뭉음을 송재에게 주는 때의 행동 역시 과장을 통한 희극적요소가 강조된것으로 보아야 할것이다.

경희극에서는 독백, 방백, 반복, 엇듣는 장면, 일부 타당화될수 있는 과장 등 희극에서 요구되는 수법들이 정확하게 리용되고있다.

리당위원장 락주를 적게 등장시키면서 반드시 그가 극적으로 련계될수 있는 장면에서 등장하게 한 수법은 경희극에서 당위원장의 역할을 결정적인것으로 되게 하였다. 더 살기 좋은 무릉도원으로 가는 모든 사람들의 길잡이로서의 당위원장의 그리 많지 않은 등장은 사훈작, 축력제초기의 창안을 성공케 하는 극적과제와 련계되고있으며 따라서 사회주의무릉도원으로 가기 위하여 모든 애로를 박차고 나가는 참된 당일군의 모습으로 안겨와 인상적이다.

경희극 《산울림》은 희극형태의 개척에서 특출한 기여를 한 혁신적인 작품이다. 경희극의 경험은 훌륭한 연극창조에서 문학이 기본이며 작가들의 책임이 크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

## 우리 식 창작방법의 진리성을 확증한 본보기

경희극 《산울림》이 반세기가 가까와오는 오늘에도 커다란 감화력을 발휘하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것은 우리 식 창작방법의 진리성을 사상미학적으로, 창작실천적으로 확증한 본보기이라는것을 보여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희극 《산울림》의 작가가 반세기전에 벌써 오늘을 내다보고 쓴것 같다는 뜻깊은 평가를 주시였다.

사실상 경희극 《산울림》은 무대에 설치된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를 알곡 100만톤증산으로 맞이하자!》라는 구호만 없으면 작품의 주제사상적지향과 인물들의 성격과 극적정황 등이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오늘의 현실과 비슷하다고 말할수 있다.

경희극의 이러한 성과는 작가의 높은 미학적리상과 피타는 탐구와 열정에 기인하지만 작가가 우리 식 창작방법, 주제사실주의창작방법의 요구를 철저히 구현하였기때문이다.

우리는 경희극 《산울림》의 창작과정에 대한 회고를 통하여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을수 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49(1960)년 11월 27일에 작가, 작곡가, 영화부문 일군들과 하신 담화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을 창조하자》**에 접하여 뿜어오르는 창작적충동과 고무를 받고 심장을 불태웠다. 그가 속해있던 강원도립예술극장(당시) 창작가, 예술인들도 같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지난 기간 천리마시의 창작가, 예술인으로서 벅찬 현실을 보다 생동하게

구가해오지 못한 부끄러움으로 하여 저마다 자책감을 가지고 자기들의 창작생활을 비판적으로 총화해보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접한 그들은 자신들이 천리마시대의 벽찬 현실을 뜨겁고 진실하게 심장으로 체험하지 못한데 있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되었다.

작가, 예술인들이 현실속에 들어가야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전진운동과 우리 인민의 높은 정신세계를 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새롭고 의의있는 문제를 찾아내어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약동하는 현실은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이것은 우리 식 창작의 원리이며 명작창작의 근본담보이다.

작가는 마식령을 넘어 심산유곡인 강원도 법동군 어유리 봉화협동조합(당시)을 찾아갔다. 원산에선 살구꽃을 보고 갔는데 이곳에는 아직 눈이 산을 덮고있었다. 그러나 이곳 조합원들은 별방보다 앞서 눈을 헤치고 감자파종에 일떠서고있었다. 작가는 흥분했고 감격했으나 며칠후에 실망했다. 극적소재를 찾지 못했던것이다. 뭉니뭉니해도 극문학의 기본은 갈등이었기때문이다.

작가는 밤에는 조합원들의 집을 찾아 갈등을 찾기 위해 분망했었다. 나중엔 그 갈등을 찾기 위해 유도식이야기도 해보았으나 허사였다.

작가는 생활의 진실을 외곡해서라도 꾸미여보자는 도식적인 틀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다는것을 자각하며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럴 때마다 작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작가, 예술인들에게 주신 교시를 되새겨보곤 했다.

모든 사물현상은 새것과 낡은것과의 투쟁속에서 발생발전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진리이다. 생활이 있는 곳에 갈등이 없을수 없다.

하여 작가는 농민들에게로 깊이 들어갔다. 발머리에서도 일손을 도왔으며 조합원들과 식사를 같이했고 당분조회의를 비롯하여 각종 회의에 참가하는 등 그들과 교락을 같이하였다. 이 과정에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것을 감촉하게 되었다.

그것은 일부 조합원들 가운데 자만자족하는 요소들이 엿보였던것이다. 여기에 작가의 극적흥미가 쏠리게 되었다. 그것도 그럴것이 해방전엔 말할것도 없거니와 해방후에도 지대의 제한성과 특히는 일부 나쁜놈들의 책동으로 하여 이곳 농민들은 오래동안 적지 않은 피해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런 나쁜놈들이 청산되고 위대한 수령님의 강원도현지교시와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의 철저한 구현으로 하여 이곳 조합은 이만하면 세상부럽지 않다는 경지에 이르렀다는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상은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러

는 당의 사상과는 저촉되는것이였다. 더우기 더 살기 좋은 지상락원을 건설하려는 절대다수의 사람들과 특히는 새로 배치되어온 제대군인들의 사상과 엄연히 배치되고있었다. 작가는 지금껏 모색하며 탐구하던 갈등의 실마리를 찾게 되었던것이다.

이러저러한 낡은 사상잔재들이 춤과 노래와 웃음속에서 살고있는 탁천적인 새 인간들의 부단한 혁신의 사상앞에서 슬며시 혹은 돌발적으로 꼬리를 감추고있었다. 이것이 생활이였다.

작가는 바로 여기에 극적소재가 있다는것을 감수하였고 웃음과 랑만이 차넘치는 우리 시대의 생활을 희극으로 처리할것을 결심하였던것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희극은 풍자극, 경희극 등 여러가지로 구분할수 있으나 작가는 대담하게 해학적 형식을 취하였다. 물론 천리마시대의 생활은 너무도 건전하고 소박하기때문에 장막희곡을 웃음으로 일관시키기에는 무리를 일으킬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건전하고 소박한 생활에서의 웃음, 바로 여기에 웃음의 가치가 있지 않겠는가.

많은 작가들과 평론가들이 작가의 창작적지향을 적극 지지하였다. 그리고 진심으로 도와주었다. 여기에 또한 우리 식 창작론리가 은을 내였던것이다. 문제는 정극이든 희극이든 그 작품의 성공여부는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작가의 진지한 현실체험과 탐구, 집단의 집체적지혜의 발동은 지난 시기에 흔히 먼저 사건을 세우고 그 사건에 필요한 인간들을 따라맞추던 낡은 창작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현실에 있는 산 인간들을 원형으로 하여 먼저 중심인물들을 설정하고 그 인물에 성격을 부여하는 우리 식 창작실천적요구를 구현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작품의 중심인물들인 석철과 송재, 달수와 금단이와 옥음이, 리당위원장에게 성격을 부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극적사건이 발생했고 발전하게 되었던것이다.

이처럼 경희극 《산울림》은 우리 당의 일관한 문제정책을 받들고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현실에서 배우고 그곳에서 우리 생활의 본질을 파악한 작가와 창조집단의 피라는 탐구와 노력의 열매이다.

모두가 한사람같이 농민들속에 들어가서 생활전반뿐아니라 그의 세태, 세속적인것까지 진지하고 성실하게 연구체험한 창작태도가 작품을 성공케 하였다. 호상 서로 돕고 농민들과 침식을 같이하고 일도 하면서 천리마기수다운 혁명적인 일본새로 창작한 여기에 작품의 사상예술적수준을 보장하게 한 요인이 있으며 창작과정에 문제가 제기되면 집체적으로 토의하고 더 좋게 완성하기 위하여 기울인 노력이 경희극으로 하여금 시대의 걸작으로 되게 하였던것이다.

당의 문제정책의 요구대로 창작에서 당정책을 틀어쥐고 현실속에 깊이 침투하여 체험한 작가의 탐구와 노력, 창조집단의 집체적토의, 각자의 우

# 내 고향 웅달샘

럼 형 미

내 마음속의 웅달샘  
젓나무아지 설렁거리고  
다래덩굴속에  
퐁퐁 솟구치는 맑은 웅달샘

산촌의 고향 떠나 몇몇해  
생활의 보금자리 옮긴 곳 많았어도  
언제 한번 마음속깊이  
잊어본적 없는 고향집 웅달샘

불노을 피는 철의 도시에서  
온몸이 강괴처럼 달아오를 때면  
그리웠더라  
삼복철에도 이 시리던 그 샘물  
다래꽃잎 내려앉던 샘터

내 때로 지치고 힘들어  
창조의 열정 식을 때면  
꿈결에 떠오르는 웅달샘  
출렁!... 한 조롱박 정히 떠주며  
내 마음 흔드는 엄한 목소리  
—아서라... 어려운 때일수록  
나라를 먼저 생각해야지...

그것은 아버지의 웅글은 음성  
어머니의 정다운 목소리던가  
뭉클한 그리움속에 눈감고  
그 샘물 후련히 마음속에 마시고나면  
애뜻한 추억은 다가오더라

샘터의 미출한 젓나무

우듬지에 매달린 잣송이 향해  
맨발로 기여오르던 별찬 소녀에  
떨어질가 가슴조이며 꾸짖지도 못하시던  
어머니의 걱정어린 눈빛 나를 지켜보시는가

해종일 나무모 심으신 아버지  
샘물에 시원히 얼굴을 씻고  
마라초 비벼 한대 말으시며  
호뭇이 웃으시던 그 눈길  
나를 미더이 바라보시는가

아, 깨끗하고 정결한것만이  
가득차 설레이는 내 고향산촌  
이마에 깊어지신 주름발에  
줄줄 샘의 속삭임 끝없이 흘렀어도  
이 딸에게 하시는 부모님말씀은  
언제 한번 달라진적 없거니  
—장군님만 믿고서 랑심껏 살아라

고향이 키운 그 모습으로  
조국땅 그 어디에 가셔도  
깨끗하게 진실하게 아름답게 살라고  
순간순간 나를 씻어주고 닦아주는  
내 고향 웅달샘이여

아, 너는 나를 비쳐보는 고향의 거울  
한생 묵묵히 애국의 성실한 삶으로  
이 딸의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존경하는 아버지 어머니  
두 로당원의 맑은 눈빛이더라

점을 조장시키고 그의 결함을 시정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참다운 동지애로 융합된 우리 식의 고  
상하고 아름다운 창작론리가 한껏 발양된것은 작  
품이 거둔 성과의 중요한 고리이다.

참으로 경희극 《산울림》이 선군시대 문학예술  
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결작으로 재창조  
된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연극리  
론의 빛나는 승리이며 그이의 비범한 예지와 정  
력적인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우리 작가들은 당의 문예사상의 요구대로 창작  
한 작가의 진지하고 성실한 창작태도를 따라배워  
야 하며 그의 높은 미학적리상을 본받아야 한다.  
작품이 창작된지 반세기가 되어오지만 오늘도 강  
성대국건설대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 천만군  
민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키는 커다란 감화력을 가  
지고있는것은 작가의 높은 미학적리상에 있다.

작가의 미학적리상이 높을 때 주인공들의 성격  
에 숭고한 사회미학적리상을 체현시킬수 있으며  
그러한 성격은 비상한 감화력으로 세월이 흘러도  
사람들을 감동시키는것이다.

경희극 《산울림》의 빛나는 성과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명작창작  
에 탐구와 사색을 기울이고있는 우리 작가들에게  
끝없는 고무와 창조적열정, 신심을 더욱 불리일으  
켜주고있다.

우리는 경희극 《산울림》에서 작품의 양상적특  
성, 갈등과 해결, 희극적주인공의 창조문제, 창작  
수법 등 우수한 경험을 깊이 연구하여 창작에 구  
현함으로써 선군시대가 요구하는 명작창작에서 일  
대 변혁을 가져와야 할것이다.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평론분과위원회



김 혜 인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어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었노?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백두산》중에서)

나는 녀전사의 묘비앞에 오래도록 서있었다.  
비둘우에 정히 놓인 싱싱한 들국화꽃잎마다 깨  
끗한 새벽이슬이 함초롬히 맺혀 구슬처럼 평통하  
게 반짝이고있었다. 다보록한 푸른 잔디가 부드럽  
게 덮인 봉분을 바라보느라니 저도 모르게 가슴치  
며 밀려오는 추억, 추억...

나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근 20년전인 1991년  
봄의 어느 평범한 날 아침으로부터 시작된다.

출근하자마자 사적관 당위원회에서 나를 불렀다.  
신흥군 서곡리 수리봉남쪽릉선에서 미명의 유해  
발굴, 해당지역에서의 정식 의뢰...

제기된 내용은 극히 간단하였다. 하지만 고요한  
수면우에 떨어진 바위같이 나의 마음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기에는 충분한것이였다.

그날로 나는 열차에 몸을 실었다.

역두에 내려서니 갱빳한 몸매에 눈빛이 예리해  
보이는 30대 초엽의 젊은이가 앞을 막아섰다.

《도혁명사적관 학술실장동지이시지요? 제 신흥  
혁명사적교양실 학술연구원 김정혁입니다.》

그는 스스럼없이 손집부터 받아들였다.

《고맙소, 내가 김동훈이요.》

숙소에 잠깐 들린 후 우리는 곧장 현지로 향했다.  
가는 길에 경혁은 사건의 전말을 알려주었다.

《머칠전 군산림경영소동무들이 새로운 수종  
의 나무모를 심던중 그 유해를 발견하게 되였습니다.  
유해는 박달나무판자우에 안치한 녀성의 시신이

였는데 왼쪽어깨와 특골에 두개의 판통상자리가  
나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저희들은 범상치 않은 유  
해로 판정하고 해당 부문에 과학적인 검사를 의뢰  
하는 한편 도에 통보하기로 한것입니다.》

《검사의전서는 나왔겠지요?》

《예, 나왔습니다.》

《사망년대와 유해안치년대는 차이가 없는가요?》

《예,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여년전것으  
로 확정되었는데 허용오차는 ±2년으로 보고있습  
니다.》

50여년전... 그렇다면 1940년대초라는 답이 나  
온다. 나의 심장은 쿵쿵 뛴뛰기 시작했다.

신흥지구는 나에게 있어서 결코 초행의 고장이  
아니였다. 수년전 신흥지구비밀근거지 발굴사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있던 시기 나도 혁명전적지  
발굴조사단에 망라되어 적지 않은 나날을 이 일대  
에서 보냈던것이다. 사업에 착수한 이후 몇달간의  
갖은 신고끝에 마침내 뒤덕봉에서 첫 구호문헌을  
발굴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크나큰 기쁨과 감격에  
휩싸였던가. 환희라는 강렬한 성질의 어휘도 간혹  
지극히 평범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것을 나는 그  
때 처음으로 체험해보았었다. 바로 그러한 사연때  
문에 당위원회에서도 신흥문제가 제기되자 제일먼  
저 나를 불렀을것이다.

《여기 지명을 바른골이라고 합니다.》

숲이 무성해지기 시작한 초입에서 김정혁이 하  
는 말이였다. 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수리봉은 뻣뻣한 침엽수림으로 짙 들어찬 바른  
골의 익측에 위치하고있었다.

바른골은 라골에서 뻗어나간 한줄기의 갈래이  
다. 라골이란 차츰 넓어지는 골짜기라는 뜻이였  
다. 라골의 종점에서 세갈래의 갈림길이 나지는데  
동쪽에는 동라골, 서쪽에는 서라골 그리고 동라골  
과 서라골사이로 바른골이 폭 패여있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시기의 세대의 대원실자리와 다섯점의 구호문헌을 발굴했었다.

불시에 앞이 탁 트이며 온몸에 파스한 기운이 확 끼쳐왔다. 드디어 수리봉정점에 다달은 것이었다. 호듯호듯한 봄별이 숲속으로 살뚝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름모를 매새들이 분주히 울어댔다.

산들산들한 봄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구수한 흙냄새에 해묵은 락엽냄새며 향긋한 송진냄새가 한껏 어우러진 시큼쌔쌔하고 향기로운 숲의 향취가 폐부깊이 스며들었다.

《여깁니다.》

우리의 눈앞에 자그마한 봉분이 솟아있었다. 김경혁이 왜서인지 나의 팔굽을 꼭 잡으며 갈린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 발견했을 땐 평토나 같았습니다. 우연히도 바로 이 자리에 나무를 심으려고 파보았기에 발견했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나는 그가 미처 하지 못한 말을 온몸으로 듣고 있었다. 영영?!... 가슴이 흠칫해졌다.

사실 이 무덤은 그때 우리가 먼저 발견했어야 할 것이었다. 물론 그 당시에 발굴된 밀영들과 너무 상반되는 방향이라는 조건은 있었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책임적으로 조사해보지 못한 것만은 변명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만약 류다른 이 무덤이 피어린 항일혁명투쟁사와 직접 연결된 것이라면?... 아직은 단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스스로 갈마드는 그 어떤 책임감에 마음은 더없이 무거워났다.

나는 묵묵히 검사보고서를 들여다보았다.

《뼈의 총길이 155센치미터, 머리칼의 길이 22~25센치미터, 단발머리채, 박달나무판자우에 봇나무와 참나무껍질로 다섯군데 싸맸음. 총탄의 구경은 대략...》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끝났을 때 해종일 따듯한 해살을 고루 뿌려주던 해님은 벌써 서라폴 쪽 산발우에 걸려있었다. 구름도 하늘도 수림도 노을에 물들어 온통 피빛으로 불타고 있었다.

산발을 내리며 나는 경혁에게 말했다.

《보통유해가 아닌 것만은 틀림없소. 해발 천여메터나 되는 산꼭대기에 정히 안장된 것이라든가 총상자리며 또 녀성의 시신이라고 볼 때 분명 범상치 않은 력사가 이 수리봉밀에 묻혀있다는 예감이 드는구만. 경혁동무, 우리 힘을 합쳐 꼭 진실을 밝혀냅시다.》

《힘껏 돕겠습니다.》

우리는 두손을 꼭 맞잡았다. 하지만 오랜 세월의 두터운 이끼속에 파묻힌 력사의 진실을 밝혀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난관이 앞을 막아나설는지 우리는 아직 다는 모르고있었다.

우리의 조사는 첫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최신평화기술적방법에 의하여 제작된 모상사진을 가지고 현지주민들속에 들어갔으나 해방전부터 이 고장에서 살아온 토배기로인들의 대부분이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한주일나마 헛물만 켜

다가 열흘째 되는 날에야 연고리에서 사는 김기수로인으로부터 귀중한 첫 실마리를 얻게 되었다.

돋보기를 끼고 사진을 세세히 뜯어보던 아바이가 부지중 커다랗게 눈을 흘렸다.

《알겠수다. 암, 알구말구요.》

《그렇습니까?》

나는 경탄에 가까운 환성을 질렀다. 하지만 로인의 다음말은 나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다.

《이 녀잔 아주 나쁜 년이우다. 그때 당시 내가 마소처럼 혹사당하던 신탄목재회사에서 회계원 노릇을 했수다. 뼈속까지 완전한 왜물이 든 악착한 친일분자지요. 헌데 무슨 일루 이 녀잔 조사하는겐지... 혹시 계급교양자료라두...》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렇게 아닙니다. 헌데 아버님, 혹시... 잘못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로인은 펄쩍 뛰다싶이했다.

《잘못 보다니요? 자그마한 키랑, 머리모양이랑 틀림없수다. 그때 소위 신식녀성들속에서 유행된 건 굵실굵실한 파마머리였는데 그 녀잔 앞머리만 약간 지졌을뿐 뒤머린 가지런히 자른 단발이었지요. 그 녀자의 머리모양이 펍 이채로왔다우. 내 비록 늙었지만 아직도 총기 하나만은 잃지 않았수다.》

《적기관에서 복무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고만 볼수 없잖습니까?》

《거야 물론 그렇지요. 하지만 내겐 생생한 기억이 남아있수다. 그때가 아마 온 세상을 들었다놓은 함신철도 특수렬차전복사고가 일어나기 꼭 하루전이였을거우다.》

《육실험.》

김기수는 투덜거리며 질통에 진 잔자갈을 침목사이에 쏟았다. 생각만 해도 분통이 터질노릇이었다. 보잘것없는 임금봉투마저 손에 쥐여보지 못하고 생뚱같은 철길보수에 강제동원된지도 한주일이 넘었다. 게다가 왜놈군대의 삼엄한 감시와 통제속에서 뼈빠지는 고역을 치러야 했다. 《천황》이라도 왕림하는지 퍼라, 다져라, 깔아라 하는 왜놈들의 성화에 귀가 다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이놈들이 왜 이 지랄일가?)

김기수가 생각을 굴리는데 저쪽편에선 한방에서 같이 지내는 양근택이 절반나마 굶은 질통을 지고 흔들흔들 여드레팔자걸음을 하고있었다. 한쪽눈을 깜빡하는걸 보니 꺾렁꺾렁 하자는 눈치다.

김기수는 털썩 페루우에 주저앉았다.

체구가 장대한 리산이 다가와 옆에 앉으며 옆구리를 쿡 찔렀다.

둘아다보니 화려한 쌍두마차에서 신탄목재회사 사장 후지마가 개화장을 질으며 틀스럼게 내려서고있었다. 후지마와 함께 동행한 처녀는 그 회사의 회계원이었다.

몸에 착 달라붙는 승마바지에 검은색만포를 걸친 처녀는 참으로 매력적이었다.

짧은 단발머리카락이 시원하게 목선미를 드러낸 처녀의 말쑥한 목덜미를 반쯤 내리덮고있었다.

리산이 별스레 큰 머리를 기웃거리며 빈정댔다.

《사장이 특별히 좋아하는 아가씨라네. 헌데 여긴 왜 왔을가?》

《거야 뻔하잖아요. 저것들이 행차했을적에야 개코로 돈냄새를 맡은거겠지요.》

말라깽이 후지마의 뒤를 따라 역장실로 들어가는 처녀의 등에 눈총을 박으며 김기수는 마뜩지 않게 대꾸했다. 잠시후 그들이 역장실에서 나왔다.

《저것들이 여기로 오는것 같네.》

양근택이 귀뜸했다. 그러거나말거나 리산은 배포유하게 담배만 뻑뻑 태웠다. 잠시후 연한 향수내가 후각을 야릇하게 자극했다.

《오이, 휴식이나 너무 길다. 빠리빠리 일해야 한다.》

《밤금 앉았수다. 제길, 우리가 뭐 멍에 멘 황소요?》

리산이 통명스럽게 내쫓는 말이었다.

《칙쇼!》

후지마가 대뜸 개화장을 치켜들었으나 리산은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리산! 네놈이나 어느때 봐야 뻑뻑 불손하단 말이야.》

이 일이나 매우 중대한 사업이다. 신탄을 굶는 것에 대비도 안된단 말이다. 알겠는가? 일이 끝나면 상금이나 듬뿍 준다.》

《흥, 고양이 쥐생각이우다. 빨리 함바에나 돌아가게 해주시우.》

리산이 여전히 툭툭 맞대거리를 했다.

바로 이때였다.

노다노다 기운 몽당치마자락이 무릎도 채 가리우지 못한 열서넋난 소녀가 총알같이 새짬에 끼여들었다.

《언니!》

소녀가 부르는 언니란 분명 회계원처녀였다.

온통 새까만 탄면지로 매달릴한 얼굴에 유난히 반짝거리는 두눈만이 간절한 기대와 애원으로 타끓고있었다. 그 애는 집도 없이 역주변에서 떠도는 방랑소녀였다.

두 눈길이 예리하게 부딪쳤다.

그 녀자의 눈에서 새파란 불길이 확 이는듯싶더니 그만에야 깜빡 꺼지고말았다. 그 녀자는 백랍같이 흰 얼굴에 차거운 미소를 담고 소녀를 조롱하듯 내려다보았다.

《흥... 제법인데... 여린 마음을 자극할줄두 알구... 자, 받아. 네 언니가 아니지만 말이야.》

그 녀자는 손목에 긴 미색손가락방에서 지전 한장을 꺼내더니 소녀의 웃고름사이에 찢어넣었다. 그리고는 단호히 고개를 돌려버렸다.

《사장님, 어서 가십시오.》

획 바람을 일쿠며 앞서걷는 처녀를 뒤따르며 후지마가 못마땅한 어조로 투덜거렸다.

《오이, 씹씹이가 너무 험프다.》

《사장님, 주는것도 다 의미가 있지요. 선물은 가까와지려고 주는것이고 동냥은 떼버리려고 주는것이랍니다.》

《그 말도 옳은것이.》

너털거리는 후지마의 웃음소리가 점점 멀어져갔다. 망두석처럼 한자리에 못박힌듯 서있던 소녀는 고름에 찢린 지전을 와락 움켜쥐고 쓴살같이 그 녀자에게로 달려갔다.

《언니, 모르겠어? 나 순녀야, 순녀! 응?》

소녀는 와락 울음을 터뜨리며 처녀의 팔목에 무작정 매여달렸다. 금방 마차에 오르려던 그 녀자의 얼굴이 급기야 무섭게 이그러졌다.

피터질듯 붉어진 얼굴이며 매서운 눈초리... 높지는 않으나 마디마디 서리발이 돌친 차디찬 목소리가 소녀에게로 날아갔다.

《너 미쳤구나. 순순히 물러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테야. 저리 비켜!》

그 녀자는 앞을 가로막은 소녀를 무자비하게 밀쳐버렸다. 소녀는 나자빠지는 서술에 머리를 자갈무지에 짓쪼았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리산이 허궁 그 녀자앞으로 날아온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의 두눈에서 격렬한 증오가 이글거리고있었다.

《당신두 사람이요? 이거야 너무하지 않소?》

그 녀자는 눈썹 한오리 까딱하지 않은채 리산을 뻔히 쳐다보았다.

《그렇게도 불쌍하면 당신이 좀 구제해주지요? 미안하지만 리산씨, 난 거지애의 선심많은 언니가 될 가뜰한 생각을 해본적이 없군요.》

리산의 주먹이 허리어방에서 부들부들 떨렸다. 후지마가 재빨리 눈짓하자 곁에 있던 왜놈군대 몇이 리산에게로 옥 물려갔다.

《칙쇼, 물러서라. 양?》

김기수와 양근택이도 리산의 앞을 막아섰다.

《원, 생각하기조차 괴롭수다. 인정사정없는 년이었지요. 소녀가 제 언니로 착각해서 그랬던건데 그렇게까지 박정할수야... 의협심이 강하구 인정이 많기루 소문난 리산이 소녀를 숙소에 업어다 구완해줬다우.》

다음날 새벽 세상을 들었다놓는 특수렬차전복사고가 일어났수다. 길길이 솟구치는 화광이 사방에 충천하구 무시무시한 폭발소리가 온 천지를 진감했지요. 신간교철길이 뭉칭 두동강이 나면서 길다란 특수렬차가 순식간에 강물속에 처박히는걸 보구 우린 너무 기빠 환성을 올렸다우. 그렇게 통쾌한 복수가 어디 있었겠수?

이때라 머리우에선 뼈다들이 막 날아내렸수다.

《왜놈들이 망할 날이 멀지 않았다!》

《동포들이여, 일치단결하여 일제를 때려부시자!》

이런 격동적인 구호들이 글썽 철길우를 새하얇

게 뒤덮었다니까요. 우리는 심장을 부글부글 끓이는 뼈라들을 두손에 짊 움켜쥔채 검붉은 연기가 타래쳐오르는 신간교미를 내려다봤습니다.

뜻밖의 이 사건으로 우리는 소녀를 더 돌볼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놈들이 사건조사를 한답시구 철길보수에 동원되었던 인부들을 전부 다 잡아가두었으니까요.》

나는 수첩에 로인의 말을 빠짐없이 기록하고 나서 다시금 물었다.

《그 여자를 마지막으로 본게 언제니까?》

《1943년, 그러니까 해방이 되기 꼭 이태전이우다. 쥐도새도 모르게 갑갑같이 사라졌지우. 쉬쉬 떠도는 말이 악착한 그년을 미워하던 어느 사상가가 몰래 팡 했다고 합디다.》

나는 말없이 긴숨을 내쉬었다. 이쯤 되해보면 이 사건은 다른 기관에서 취급해야 할 문제라는 결론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학술연구원들의 본분과 책임감은 그것을 쉽사리 용인할수가 없는것이였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여자의 이름이 대체 무엇이였습니까?》

《이름 말이웬까?》

로인은 주름깊은 눈가를 잔뜩 찌푸렸다. 한참이나 끙끙거리다가 끝내 도리머리를 저었다.

《생각나지 않는구만요. 하두 오래된 일이라서...》

나는 몸을 일으켰다.

《바쁜 시간을 빼앗아 죄송합니다. 후에라도 새로 기억나시는것이 있으면 꼭 알려주십시오. 부탁하겠습니다.》

《이거 안됐수다. 내 꼼꼼히 다시 생각하리다.》

로인은 대문밖까지 따라나왔다. 내가 울바자 옆으로 꺾어드는 순간에 로인이 숨차게 부르짖었다.

《선생님, 잠깐 게 서시우.》

《?!...》

《이제야 생각났수다. 그 여자의 이름을 호시에라구 했수다. 후지마라는 사장놈이 늘 그렇게 불렀지요. 이름까지 〈창씨개명〉한걸 보든 나쁜년이 틀림없다니까요.》

《이거 정말 고맙습니다, 아버님.》

김기수로인과 헤어지면서 나는 이 사건이 어쩌면 예상외의 결과로 끝날수도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갈마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마음은 갑절 무거워졌다.

미지의 인물 호시에?!

그는 과연 누구일까?!

한달이 지났다. 우리는 발이 닳도록 현지주민들을 찾아다녔다. 증언자들이 하나둘 늘어날수록 호시에의 정체는 더욱 적라라해졌다. 호시에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틀림없는 나쁜 년이라고 증언하였던것이다.

게다가 영웅리에 나갔던 김정혁에게서 이를 립증하는 새로운 자료가 입수되었다.

《일흔다섯살난 신복례할머니는 해방전 신한목재회사 함바에서 식모노릇을 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의 증언에 의하면 그 여자의 이름은 아까이마 호시에이며 악질적인 친일분자였다고 합니다. 증언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낮이였다. 구정물버치를 들고 부엌밖으로 나가던 신복례는 하마트면 버치를 떨굴번 하였다.

호시에가 앞설을 열어제긴 밤색가죽잠바를 걸치고 다급히 프락으로 들어서고있었던것이다.

《빨리 함바문을 열어요!》

호시에는 명령조로 말했다. 신복례는 이 여자앞에만 서면 소스라치는 공포와 함께 또다른 그 무엇을 느끼곤 하였다. 나이에 비해 퍼그나 세련되고 현숙한 행동거지며 마디마디 땃힌 웅골찬 목소리, 턱을 약간 쳐들사하고 다니는 도고하고 자신만만한 몸가짐에서 쉬이 범접하기 어려운 기상이 만만치 않게 풍겨오고있었다.

이 몸매 작은 처녀가 어떻게 되어 회사를 줄안에 넣고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것일까? 신한목재회사에 취직하거나 한자리 따지면 후지마가 아니라 호시에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말까지 향간에서 쉬쉬 나돌만큼 그 여자의 영향력은 대단했다. 아닌게 아니라 호시에에게 붙었던 사람들은 레외없이 일자리를 얻곤 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거들먹거리기 좋아하는 후지마조차 그 여자앞에만 서면 코펜 송아지마냥 고분고분해가지고 찢찢매는것이였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은 왜서 루추한 함바에 나타나 문을 열라고 하는것일까?

그때 후지마가 불쑥 나타났다.

《호시에, 혼자서 일없겠나?》

《괜한 걱정! 사장님은 저쪽함바나 말으세요.》

신복례는 그제야 사태를 깨달았다.

(수색을 하려는구나.)

신새벽에 노동자들을 한명도 빠짐없이 산속으로 내몬것은 바로 이런 쪼간때문이였다.

두달전 신간천상류속에 꼬르륵한 특수렬차전복사건은 곧 끔찍한 수색소동으로 번져갔다. 죄없는 술한 사람들이 잡혀갔으나 놈들은 끝내 쥐꼬리만 한 단서도 잡지 못하고말았다.

후에 알려진데 의하면 일제가 최대의 극비에 붙였던 특수렬차는 조선인민혁명군을 《토벌》하기 위해 국경지대로 가던 군수렬차였다. 술한 《토벌대》와 군수물자가 순식간에 물고기밥이 된것은 대본영까지 벌칙 뒤집힐만큼 어마어마한 중대사건이였다.

바빠맞은 일제는 신흥군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와 경찰, 특수들까지 죄다 동원하다못해 이제는 제놈들의 앞잡이들까지 《불온분자》색출에 꺼리낌없이 내모는 판이였다. 그 일환으로 지금 함바에 대한 불의의 수색이 단행되고있



는것이다.

호시에는 첫방부터 구체적으로 수색하기 시작했다. 쿼퀴한 땀내가 배인 토스레웃보통이며 천정에 이르기까지 뒤지고 찾고 번지고 찢어보고 하면서 잔잔히 살피고서야 다음방으로 넘어갔다.

어느덧 마지막방 차례가 왔다. 신복레는 가슴이 화다닥거려 견딜수가 없었다.

그 방에는 김기수, 양근택을 비롯한 형제계의 주요인물들이 들어있었기때문이다. 신복레는 형제계성원은 아니었지만 양근택의 애인이었다.

근래 리산이 그 방으로 옮겨오면서부터 매일과 같이 공산이요, 타도요 하는 청놀은 웨침이 꺼리낌없이 새어나오곤 하는걸 가슴조이며 들어온 신복레로서 자연 마음이 조마조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신복레는 숨소리마저 죽이고 방안의 동정을 살폈다.

아닌게 아니라 쾅쾅 동여맨 베보자기를 풀어헤친 호시에게 이것저것 뒤지면서 한참이나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것이였다. 신복레는 온몸에 진땀이 바질바질 내뿜는것을 느끼며 살그머니 문가에서 물러섰다. 갑자기 호시에게 큰소리로 찾았다.

《이봐요.》

《예에?》

신복레는 화들짝 놀라 급히 호시에앞으로 다가갔다.

《놀라긴? 누가 잡아먹겠대요? 이걸 누구거지요?》

천만뜻밖에도 호시에게 손에 《어머니 모》자가 새겨진 책 한권이 들려있었다. 양근택을 따라다니며 아라사사람들을 계급투쟁으로 이끈 《어머니》라는 소설이라는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신복레로서 그것이 왜놈들이 눈을 밝히는 《불온서적》이라는것쯤은 모를리가 없었다.

신복레는 쿵덕쿵덕 뛰는 가슴을 가까스로 누착히며 설레설레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럼 이걸요?》

호시에는 베보통이에서 큼직한 개털모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신복레는 금시 심장이 밖으로 툭 튀어나올것만 같았다.

그것은 분명 대갈바우라는 별명으로 불리우는 리산의 털모자였던것이다. 초겨울부터 한시도 벗지 않고 푹 눌러쓰고 다니는 류다르게 큼직한 그 털모자를 누가 모르겠는가.

《모르겠어요. 그런 모자 본일이 없어요.》

《그래요?》

호시에게 얼굴에 야릇한 미소가 스쳐지나갔다.

《술치 못하군요. 할수 없지요. 판 방법을 택할수밖에... 그럼 안녕!》

베보자기를 통채로 안고나가던 호시에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저만치에서 멈춰섰다.

《남의 일 같지 않아 하는 말인데 근택씨에게 말해주요. 리산이와 밀려다니지 말라고! 그러한

큰코 다쳐요!》

호시에는 도고하게 머리를 쳐들고 대문밖으로 사라졌다. 또각또각 목구두소리가 멀어지기 바쁘게 신복레는 종주먹을 부르짖고 산판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시바빠 이 사실을 양근택에게 알려야 했다.

하지만 립지에 채 달기도 전에 일이 터졌다. 손목에 수갑을 찬 리산이 경찰들의 총탄에 밀려 끌려오고있었던것이다. 그뒤를 호시에게 의기양양해서 천천히 따르고있었다.

리산이 참고 참았던 분을 터뜨렸다.

《아, 하늘도 무심쿠나. 인간의 탈을 쓴 역적년을 감히 이 땅우에서 머리쳐들고 살게 한단 말이뇨? 어허...》

《그후 리산은 〈불온서적〉 사건으로 한달나마 류치장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물론 김기수, 양근택을 비롯한 한방에 있던 사람들도 끔찍한 취조와 닥달질을 받았구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말없이 앞탁우에 놓여있는 자료를 다시금 한장한장 들추기 시작했다.

...시신을 관통한 총탄의 구경으로 볼 때 당시로서는 11년식경기관총과 38식보총에 사용가능한 총탄이다.

그때 신흥인민무장대에는 두정의 11년식경기관총이 있었는데 무게로 보아 개인저격무기로는 적합치 않다.

38식보총은 당시 토통, 칠성자, 양포와 같은 구식총이 적지 않았던 무장대에 있어서 많지 않은 신식무기들중의 하나였다. ...

자료를 보고있는 나에게 경혁이 말했다.

《가령 그 녀성을 애국자라고 칩시다. 그렇다면 적들이 왜 그를 은밀히 체포하지 않았는가 하는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또 추격끝에 사살했다고 해도 무엇때문에 사용하기 불편한 38식보총을 썼는가 하는것입니다. 적들에게는 리용하기 간편한 신식권총이 얼마든지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추정해볼 때 십중팔구 산속에서 활동하던 우리 사람들에게 의해 처단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반박할 여지가 없는듯 한 추리였지만 결코 확정적이라고는 볼수 없었다.

《그렇다면 내 말 좀 들어보오. 첫째, 혁명가들에 의해 처단된 원쑤의 시체를 누가 그렇듯 좋은 자리에 정성껏 안장했겠는가, 둘째는 호시에게 왜서 수리봉으로 올라갔는가 하는것이요. 우리는 이에 대해 아직 정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청신하고 상쾌한 봄풍경이 유정하게 펼쳐져있었다.

《경혁동무, 우리는 간고하고 시련에 찬 조선혁명의 역사를 고증하는것만큼 사소한 경술성이나 주관도 그리고 일을 수월히 맺음해버리려는 안일

한 태도역시 추호도 용납치 말아야 하오.

서둘러 내린 잘못된 결론때문에 력사의 진실이 오도된다면 그 이상 엄중한 일이 어디 있겠소?»

이리하여 우리는 바른골방향으로 조사방향을 새롭게 돌리게 되었다. 수리봉으로 올라가는 각종 락도들을 만들어놓고 가정들을 세워본 결과 12개나 되는 길이 나졌다.

우리는 해방전 신탄목재회사가 자리잡았던 곳에서부터 하루에 한길씩 걸어보기로 작정하였다. 일정한 차이는 있으나 하루에 왕복 70리이상의 산길을 뚫아야 했다. 며칠이 지나자 힘에 부쳐나기 시작했지만 이를 악물고 해묵은 락엽층을 파헤치고 무거운 너럭바위를 들어올리기도 하였다. 일은 더디고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다. 그야말로 술술에서 바늘찾기였다. 일곱번째 길을 통과하던 날 나는 구질구질 비내리는 진창길에 미끄러지면서 뽕죽한 바위에 세게 부딪혔다. 살점이 뭉쳐 떨어져 나간 팔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렸다.

《이 몸으론 안되겠습니다. 어서 내려갑시다.》

전예없이 완강한 경혁의 어조에서는 《이젠 안됩니다. 그만둡시다.》라는 자포자기의 심리가 다분히 풍겨오고있었다. 사업에 대한 의욕도, 진취성도 강한 사람... 그러나 아직은 자신의 본분에 갇든 철리를 다는 모르고있는 젊은이...

나는 상처를 싸매주는 경혁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경혁동무, 오늘 지나간 이야기 하나 해줄가?》

나는 의아하게 쳐다보는 그의 어깨우에 다정히 손을 얹었다.

《벌써 수년전 일ियो. 우리가 뒤덕봉에서 한참 조사발굴에 열중하던 때였지. 동무도 알다싶이 뒤덕봉은 밀영지로서 매우 명당자리였소.

랑견에는 반원형을 지은 산봉우리들이 솟아있고 뒤에는 부전고원이 펼쳐져있어 유격활동에 유리한 데다 또 앞은 낭떠러지여서 적들이 발붙이기 힘든 곳이었지. 주변에는 고사리, 참나물, 곰취를 비롯한 산나물이 무진장하고 곳곳에 맑은 샘이 솟아나와 생활에도 펍 유리한 곳이었소.

이러한 조건으로 보아 당시 이곳에 밀영이 있을수 있다고 판단한 우리는 끈기있게 이 일대를 조사했으나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했소.

나는 당시 예순이 켜 넘은 판록있는 학술연구원 아바이와 한조가 되어 맹렬하게 산을 훑었댔소.

백역산이며 불개미재, 장굴에 파견된 발굴조에서는 런던 혁혁한 소식들이 날아오는데 우리는 두달이 가까웁도록 사소한 징후조차 발견하지 못한 상태였지. 산발을 타느라 몸은 지치고 흙과 돌, 나무와 씨름질하느라 손톱끝에는 피멍이 들었소. 젊은 내가 지쳤으니 아바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그러다가 끝내 사가리(얼음판에서 미끌지 않게 신발에 끼우는것.)쪼박과 귀떨어진 쇠가마한개를 발견하게 되었지. 기뻐하기는 일렀소. 파

학적인 고증이 필요했던거요.

사가리는 무장대성원들의것임을 인차 고증했지만 쇠가마는 그렇지 못했소. 두루 수소문하던 끝에 김새복이라는 할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소.

그 할머니는 녹슨 쇠가마를 한참이나 어루쓸어 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게 아니겠소.

〈그러니 이 가마를 밀영자리에서 찾았다는거외까?〉

〈예, 그렇습니다. 어머니, 좀 도와주십시오. 이 가마가 낫익지 않습니까?〉

김새복의 주름깊은 눈가에 일순간 감회의 빛이 어리는듯싶었소. 눈시울은 붉어지고 입술은 바르르 떨리고있었소. 하지만 다음말은 천만뜻밖이었지.

〈난 모르외다. 내 가마가 아니요.〉

한가닥 희망이 그렇게 사라지고말았소. 기억도 헛겨주고 호소도 해보았으나 매번 같은 대답일뿐...

그날저녁 기분이 처진 우리가 천막속에 일찍 누웠는데 불쑥 아바이가 다시 일어나질 않겠나.

〈아무래두 그 할머니에게 다시 가봐야겠네.〉

〈관둡시다. 모른다질 않습니까?〉

〈아니, 그 눈빛에는 뭔가 있었어! 뭔가?!...〉

아바이는 부득부득 발길을 나섰지. 나는 하는수없이 따라섰네. 관절염이 심해 절뚝거리는 아바이를 부축하여 30여리의 산길을 내려서 김새복의 집을 찾아갔으나 패썹하게도 문전거절을 당하지 않았겠나? 돌아오면서 나는 공연히 헛걸음을 하게 한 아바이를 탓하며 풀풀댔네. 한 시오리 축냈을가, 갑자기 아바이가 걸음을 멈추지 않겠나?

〈자넨 먼저 가 쉬게. 도무지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누만. 인츰 따라서지.〉

나는 혼자서 천막으로 돌아오는수밖에 없었소.

아바이가 왜 그리도 고집을 부리는지 통 이해할수가 없더군. 뒤덕봉중천에 해가 한발이나 퍼진 아침에야 장아바이는 희색이 만면해서 돌아왔소.

〈이보게, 끝내 받아냈어.〉

〈뭘 말입니까?〉

〈뒤킨 뭐야? 할머니의 고증서지.〉

〈예?! 그게 정말입니까?〉

대문가에 쭈그리고 앉은채 새벽을 맞은 장아바이가 김새복의 심금을 울려 끝끝내 알아낸 진실은 이러했소. 당시 새색시였던 김새복은 어느날 산에서 숲구이한다는 두사람이 찾아와 가마를 빌려달라기에 시집올 때 가져온 그 쇠가마를 내주었다고 하오. 며칠후 그들이 다시 찾아와 가마를 팔라고 했다오. 짜지게 가난한 시집살이의 맘머느리구실을 해야 했던 그는 미안스러웠지만 굳이 내미는 돈을 받고 그 가마를 팔았던거요.

아바이는 김새복의 지장이 찍힌 고증서를 들여다보며 눈을 습벅거렸소.

〈그 할머니 내 손을 잡구 막 흐느껴울더구만. 남들은 피와 목숨을 바쳐 유격대를 원호했는데 자기는 돈받고 가마를 판 천추에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고 말이요.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지.

설사 할머니가 그 가마값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도 그들은 꼭 값을 치르었을 겁니다, 감자 몇알을 캐고도 발머리에 돈을 놓는것을 철칙으로 삼아온 우리 투사들이 아닙니까? 울지 마십시오, 우린 오히려 고맙게 생각합니다, 할머니가 이 사실을 고증해주었기에 또 하나의 귀중한 혁명력사가 세상에 빛을 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일세. > 경혁동무, 난 정말이지 얼굴을 들수 없었소. 그 할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물러섰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겠소?》

김경혁은 숨소리도 없이 붉게 상기된 얼굴로 나의 말을 듣고있었다.

《경혁동무! 앞을 보오. 그리고 뒤를! 또 땅속 밑을! 이 땅에 수많은 혁명선열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소. 그 고귀한 피방울의 주인공들을 한명도 남김없이 후세에 전하고 후대들의 피와 살에 새겨넣어주는것이 바로 우리 사적일군들의 본분이 아니겠는가? 물론 사회적인간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자기의 본분이 있소. 그가 농민이라면 나라의 쌀독을 책임져야 하는것이며 그가 과학자라면 조국의 과학발전을 담당해야 하오. 허나 우리의 본분은 단순히 직업적인 책임감이 아니요.

왜냐하면 우리 혁명의 력사는 항일의 피바다만리를 헤치시여 오늘의 행복을 마련해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력사인 동시에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뿌리이기때문이요. 만일 우리가 사소한 편견이나 실수로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에 단 한점의 빈 공백이나 티끌 같은 오점이라도 남기게 된다면 력사가 우리를 용서치 않을것이요.

경혁동무! 설사 아까이마 호시에가 친일분자라고 할지라도 우리 끝까지 밝혀내자구. 력사에는 오직 진실만이 기록되어야 하오. >

《실장동지! 절... 절 용서하십시오. >

《경혁이! >

우리는 와락 부둥켜안았다. 그 포옹은 열렬했고 불같이 뜨거웠다.

나는 《로동신문》을 읽고있었다. 6면에 실린 커다란 표제가 류다르게 눈길을 끌었다.

《70여년의 붉은기는 내리워지고마는가? >

사회주의배신자들로 말미암아 붕괴위기에 직면한 쏘련의 정치적혼란과 비참상을 생동한 사실자료로 서술한 쏘련전쟁로병의 글이었다.

필자는 마감을 이렇게 맺고있었다.

...아, 70여년의 붉은기는 이렇게 내리워지고마는가. 한줌도 못되는 사회주의배신자들을 우리는 과연 이길 힘이 없단 말인가?

젊은것들이 부르조아날라리바람에 물젖도록 우리는 과연 어떤 교양을 했단 말인가? 피어린 투쟁으로 쟁취한 레닌의 위업과 쓰팔린의 전통을 고수하기 위해 우리는 정녕 얼마만큼 애써왔던가?...

나는 창가로 다가갔다. 금방 본 글줄들이 아프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도 모르게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울긋불긋한 봄차림으로 아름답게 단장된 거리로 퇴근길에 오른 사람들이 끊임없이 물결치고있었다.

토끼무늬가방을 달랑거리며 한무리의 1학년생들이 네거리에 세운 대형구호판을 읽어보느라고 야단법석이다.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 >

절로 생각이 깊어졌다. 너희들은 아직 그 구호의 의미를 다는 모를수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게 될거다. 부디 잊지 말어라.

사회주의는 이 땅을 심장으로 받아들여올린 혁명선열들의 뉘트로 빛난다는것을, 그 어떤 검은구름도 덮지 못하는 너희들의 꿈과 미래의 푸른 하늘과 잇닿아있다는것을!

문득 푹푹푹 하는 문기척소리에 나는 창가에서 물러섰다. 뜻밖에도 김기수로인이 할머니 한분을 앞세우고 들어섰다. 나는 무작정 반가웠다.

《아니, 아버님이 어떻게?... >

《이 댁은 신복레라구 하우다. 어서 말씀드리라구요 >

김기수의 독촉을 받은 신복레는 찾아온 사연을 두서없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그 녀자의 무덤때문에 신경을 쓴다는 말을 이 아주버니에게서 듣구 곰곰히 생각해보니 피똥 떠오르는게 있어서요.

8년전이었지요. 령감과 함께 러발을 가꾸다가 우연히 이런 얘기를 들은적이 있수다. >

《개자식, 범이나 콧 물어가라. 날더러 이 무시무시한 탕귀흙에서 나무를 찍으라구?... >

양근택은 계두덜거리며 토목수건으로 질끈 동인 까칠까칠한 더벅머리를 솔뚜쟁같은 손으로 북북 긁었다.

요즘 후지마의 가혹한 착취가 더욱 우심해졌다. 제국의 운명이 칼도마우에 올랐는데 군수물자가 잘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트집이었다.

원래 신탄목재회사는 신흥재벌인 노구찌가 흥남 지구에 조선질소비료주식회사와 군수공업회사들을 런이어 창설하면서 그 운반에 필요한 목탄차용 신탄수요를 충족시킬 목적으로 세운것이였다.

주로 참나무를 숲으로 구워 신탄을 만들었기때문에 이 일대의 참나무는 거의 전멸되다싶이 했다. 참나무원천을 확보하라는 후지마의 집요한 등살에 못이겨 누구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탕귀흙으로 들어오기는 했으나 일할 생각은 표물만치도 없었다.

양근택은 탕귀흙을 따라 올라가다가 깎아지른듯한 칼벼랑이 나지자 에돌기 시작했다. 그는 얼마쯤 더 가다가 눈판우에 벌렁 드러눕고말았다. 에라 모르겠다, 왜놈들이 망할 날도 멀지 않았다는데 절렁절렁 시간이나 보내구말자. 이상한 말소리에 벌떡 자리를 차고 일어난것은 잠시후였다.

《자자, 조심히 이쪽으로.》

혁띠를 띠고 각반을 두른 여럿의 산사람들이 힘겹게 구렁이를 파고있었다. 양근택은 멀찌감치 나무뒤에 숨어 언땅을 까내고 웬 시신을 파묻는것을 놀랍게 바라보았다. 한줄 또 한줄 언흙을 덮는 그들의 얼굴에서 눈물이 비오듯 흘러내리고있었다. ...

《우리 령감은 재작년에 병환으로 사망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틀림없을겁니다. 그인 1943년 정초였다고 정확히 적어말했거든요.》

김기수가 련이어 설명을 달았다.

《옛날에는 바른골을 이 지방 사투리로 탕귀흙이라고 했수다. 탕귀란 도적이라는 말인데 골짜기가 하도 한적하구 으스스하기때문에 도적이 둔을 치기에 적합한 곳이라면서 그렇게 불렀지요.》

나는 재빨리 속구구를 해보았다. 바른골을 따라 그냥 올라가다가 벼랑을 만나 에돌았다면 수리봉 좌측릉선이 된다. 바로 미지의 유해가 발굴된 그 장소이다. 산사람들은 필경 무장대성원들일것이다.

《됐습니다. 이젠 됐습니다.》

나는 너무 기뻐 김기수로인을 와락 그러안았다. 가슴이 울컥해지고 눈곱이 화끈 달아올랐다.

대중의 힘은 무한하다. 그 힘이 우리를 떠밀어주는 한 수리봉은 자기의 소중한 문을 반드시 열어주고야말것이다.

우리는 신흥지구에서 활동하던 무장대성원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렇지 않아도 조사의 폭을 더욱 넓힐 결심이었던 찰나였다.

많은 사람들이 최후결전시기와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전사했거나 그후 로환으로 사망하였다. 나는 반세기라는 결코 무시할수 없는 장구하고 무정한 세월의 흐름을 뼈아프게 느꼈다.

마침내 한 무장대성원이 수도에서 살고있다는것을 알아냈다. 나는 즉시 평양으로 올라갔다. 당시 신흥인민무장대 1소대 소대장이었던 백남석과의 담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백남석:잘 모르겠소. 아니! 우리 소부대에서 한 일은 아니요. 1943년 정초라면 혹시 《붉은 오각별》 조가 아닌지...

나:예?! 《붉은 오각별》 이요?

백남석:그런 대호를 가진 혁명군 비밀소조가 있었소. 해방을 몇해 앞두고 조장이 뜻하지 않게 희생되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오.

나:조장이 혹시 녀성이 아니였습니까?

백남석:그건 모르겠소. 적들속에 깊이 침투하여 활동한것만큼 련락체계도 매우 짜였던가 보오. 우리 무장대성원들도 전혀 모르고있었으니까. 그들은 전진항쟁준비에 필요한 가치있는 정보와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밀영에 보내오곤 했소. 적들의 경계가 삼엄한 속에서 어떻게 그리도 많은 《통제품》들을 마련했는지 우리로서도 대단히 놀라운 일이었소. 적정자

료밀에 붉은색연필로 오각별을 그렸던것이 지금도 눈에 선하오.

나:혹시 그들속에 아직 생존해계신분들은 없을까요?

백남석:유감스럽지만 없소. 그건 내가 담보하오.

조원전원이 1943년 2월 두무봉밀영에 나오시었던 어버이수령님의 신변안전보위를 위해 싸우다가 장렬하게 최후를 마쳤소. 밀정때문에 아까운 희생을 댔다는 소문도 있었는데 정확한것은 잘 모르겠구만. ...

한편 해당기관의 문서고에서 찾아낸 일제의 관헌기록은 다음과 같다.

《김일성부하 신흥간첩단 추적과 소멸방도

○○○○조선인의 령수 김일성은 종래부터 항일 불령책동에 ○○중인데 그의 부하 망책 모가 최근 신흥일대에 잠입하여 목하 지하공작에 맹활약인바 현재까지 입수한 잠입목적과 활동정형은 다음과 같다고 보아진다.

1) 잠입목적: 제국의 군수물자조달 방해 및 파괴와 일쏘개전시 조선에서의 후방교란을 위하여, ※ 중요하게는 공산군의 국내진출시 그 활동을 보좌하기 위함이 우선임.

...

3) 차후방도:비밀리에 미행과 감시를 조직하고 확실한 단서를 잡은 후에 체포처형할것이다.

특고월보 내무성 경보국 보안과 소화17년(1942년) ×월분》

《극비: 함경도 경찰부 고등경찰과 나까모도 기꾸찌 귀하얏

금일 신흥지구일대에서 김일성공산군의 유령들이 배회하는바 신탄목재회사에서 11월 18일과 23일 두차례에 걸치는 방화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과 수천립방의 목재가 불타고 수만엔의 손실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충실한 벗인 〈사꾸라〉의 보고에 의하면 큼직한 비적간첩망이 축수를 뻗치고있다고 합니다. 흥미있는것은 이 간첩망이 공산군의 국내에로의 진출을 음으로, 양으로 뒤받침하고있다는 사실입니다. 〈사꾸라〉는 근래에 공산군이 신흥지구진출을 반드시 단행할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유는 신흥지구가 함흥, 흥남을 비롯한 조선인 로동자들이 집중된 큰 공업도시들을 직접 끼고있는 중요한 요충지이기때문입니다. 망책은 미모의 녀성으로 추측되는바 아직은 확실한 단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화17년(1942년) ×월 ×일 신흥군 경찰서장 사사끼 마쓰오》

소득은 대단히 컸다. 《사꾸라》?! 《사꾸라》는 과연 어떤 인물일까? 나의 머리속에서는 이 하나의 의문이 집요하게 자리잡고있었다. 현지에 돌아오니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나를 기다리고있

었다.

김경혁이 자못 흥분된 어조로 말했다.

《실장동지가 출장간 동안 아까이마 호시에에 대한 해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새로운 문제점을 잡아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호시에에 대하여 좋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것입니다.

전 군상업관리소 부소장을 하던 사람인데 해방 전 그가 후지마의 사무소에서 심부름군노릇을 했기때문에 호시에를 잘 알고있더군요. 그의 기억에 의하면…》

…백명식은 허리를 굽식하며 어줍게 사정했다.

《아씨, 한번만 좀 도와주세요.》

《명희가 앓는단 말이지요?…》

호시에는 딱 잘라 다짐을 받았다.

《이번뿐이에요! 날 따라와요.》

선선한 수락에 비해서 어조에서는 뽕기가 풍겼다. 명식은 후 하고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차거운것 같으면서도 인정이 많은 여자라는것을 그만은 너무도 잘 알고있었던것이다. 왜놈 《토벌》에 집값고 정처없이 빌어먹으며 여기까지 흘러온 그들 오누이를 호시에가 회사에 취직시켜주었다.

외관상 너동생을 몸종처럼 부리는것 같아도 진작 찾아서는 일을 시키는것이 아니라 먹을것이나 옷가지 같은것을 주곤 하였다. 하기에 행동은 쌀쌀해도 친언니같이 느껴진다고 말버릇처럼 외우던 동생이었다. 그 명희가 지금 열병에 시달리고있는 것이다. 호시에의 뒤를 따라가던 명식은 그만 주춤했다. 그 여자가 거침없이 사장방문을 두드리고있었던것이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요.》

방안에 들어간 호시에가 후지마와 나누는 말소리가 명식의 귀에 푹푹히 들려왔다.

《뭘이? 무슨 돈을 그렇게 많이?…》

《이제 보니 당신은 소인이군요. 그렇게 아까우면 그만뒤요.》

《호시에양, 성이나 내지 말아. 사정이나 있다나. 며칠전에 검열왔던 총독부판리가 회사자금이나 교묘하게 빠져달아났다구 된옥을 하구 갔다.

에또— 우리 회사에서 나간 수형이나 금지된 통제품을 구입하는데 리용되었다는 신소가 제기되었다고 한다.》

《흥, 제법 부처님 행세네. 쌀가진 놈 쌀 때먹고 권력가진 놈 권력 휘둘러먹는게 이 세상 리치예요.

칭렴결백을 운운하는 총독까지도 군수물자통간으로 제 배를 불리는 판인데 우리가 어쨌다는거예요? 별스레 우리 회사를 코에 걸고 압박하는걸 보니 전번에 찢려준건 벌써 다 불어먹은 모양이지요?》

《어쨌든 주의하는것이 좋을것이다. 아직 렬차 전복사건의 후파가 채 가셔지지 않은 상황이다. 에또, 이 일대에 큼직한 비적망이 틀고있었다는

정보도 있다. 이것은 아주 믿을만 한 첩자가 보내오는것이라고 마쯔오서장이나 말했다. 그러니…》

《그 〈영웅〉 이 누군데요?》

《나두 모르지. 마쯔오서장이나 알겠는지… 자자, 돈이나 어서 가져가라. 성이나 풀고… 헤헤…》

후지마의 방에서 나오는 호시에의 얼굴에는 근심이 짙게 어려있었다. 한동안 서있던 호시에는 그 어떤 결심을 한듯 고개를 흔들고나서 명식에게 돈을 내밀었다.

《어서 가요. 때를 놓치겠어요.》

명식은 후더운 눈길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뭇루?…》

《정 그렇다면 래일 우리 집에 와요. 일이 좀 있어요.》

《다음날 백명식은 몇몇의 인부들과 함께 호시에의 집에 쌀마대를 메여날랐다고 합니다.

후지마의 생일잔치에 쓸 찻쌀이라고 했는데 우연히 귀터진 자루 하나를 나르다가 뜻밖에 소금이 들어있는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군요.

그새 저는 아까이마 호시에가 행방불명된 날자도 따져보았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호시에가 행불된 그날에 리산이 총상을 입고 병원에 실려왔다가 삼일후 영문모르게 살해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병원간호부였던 한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리산은 복부에 총상을 입고 실려왔었다고 합니다. 특별환자라면서 경찰들이 이중삼중의 경계망을 뒀는데 어떻게 되어 감쪽같이 살해당했는지 참 놀라운 수수께끼였다고 하더군요. 잔등에 시퍼런 비수가 꽂혀있더랍니다.》

나는 불시에 눈앞이 번쩍 트이는것을 느꼈다.

리산! 리산이야말로 호시에문제에 매번 함께 얹혀돌아가고있지 않는가? 나는 왜 그에게 미쳐 주의를 돌리지 못하였는가? 리산이, 그가 흑시?…

땡땡 벽시계가 열두점을 쳤다. 날이 밝도록 우리는 새롭게 제기된 자료들을 분석하고 새로운 가설을 세우며 사색을 모으고 지혜를 합쳐갔다.

푸름푸름 하늘이 희벗해지기 시작했다. 바야흐로 렬명이 밝아오고있었다.

비취색하늘은 맑게도 열렸다. 온몸에 새힘이 솟구쳐오르게 하는 화창한 날씨였다.

분비나무, 이깔나무가지들에 감겨 백발을 흘날리는 송라들을 아침해살이 희롱하기 시작했다. 축축히 젖은 폭신폭신한 골짜기바닥에 뽕얇게 이슬을 머금은 냉이와 씀바귀들이 파랗게 돌아났다. 색조가 째쨌한 물향철우에서 한쌍의 까치가 깍깍 울어대고있었다. 등싯하게 잘생긴 해님은 벌써 푸른 하늘 한복판을 헤엄쳐가고 숲속에는 싱그러운 봄냄새가 가득찼다.

나는 상긋한 숲향기를 들이키며 칼벼랑을 향해 걸고있었다.

수리봉사건은 아직 적지 않은 미해명문제들을 안고있었다. 가장 큰 난문제는 아까이마 호시에게 왜서 수리봉릉선에 올라갔으며 어떻게 최후를 마쳤는가 하는 것이었다. 수리봉은 바른골에서 20리, 두무봉밀영에서는 60리되는 지점에 솟아있다.

당시 바른골은 뒤덕봉밀영과 백역산밀영의 중간 연락장소로 리용되였었다. 소부대성원들은 밀영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 항쟁조직간의 연계도 여기서 맺게 했고 개별적으로 찾아오는 지하조직책임자들의 휴식도 여기서 보장하게 하였다. 특이한 경우 꼭 필요한 성원들만 밀영으로 들어보냈다.

하다면 그는 바른골로 가려 했을가? 하지만 그곳으로 통한 길이야 전혀 다른 곳이 아닌가?

어느덧 나는 칼벼랑중턱에 이르렀다.

품속에서 보풀이 인 락도를 꺼내어 펼쳐보니 길은 이곳에서 끝나있었다.

나는 이미 수리봉으로 향한 12개의 길을 빠짐없이 다 걸어보았었다. 성과가 있다면 이 칼벼랑의 어느 로송밀에서 세발의 탄피를 발견한것뿐이었다.

나의 사색은 현재에서 과거어로 끊임없이 뻗어나갔다. 어떻게 되어 밀영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이 벼랑턱우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을가? 격전후엔 어디로 사라졌을가?

나는 벼랑꼭대기에 올라서서 주변을 둘러보았다. 놀랍게도 곧추 수리봉릉선이 바라보였다. 그렇다면?... 불시에 섬팡이 번쩍했다. 서둘러 나는 벼랑밑으로 내려갔다.

해묵은 락엽무지와 땅속을 정신없이 파헤쳤으나 아무것도 찾아낼수 없었다. 손땀이 탁 풀렸다.

불쑥 눈앞에 집채같은 둥굴바위가 웅크리고있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나는 그밑을 살살이 뒤지다가 놀랍게도 새까맣게 녹이 쓴 탄피 한개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는 신심있게 주변을 뒤지면서 한치한치 앞으로 전진해갔다.

그렇게 우리는 불같은 나날들을 보냈다. 끼니를 건넌줄도 몰랐고 잠을 자는 법도 잊었다. 칼벼랑에서 수리봉릉선까지의 무한대한 수림지대를 참빗질하듯 훑고 또 훑었다.

이름없는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덧없이 굴러가는 돌맹이 한개에도 우리의 세심한 눈길과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란 거의나 없었다.

마침내 피타는 노력은 빛나는 결실을 맺었다.

이 일대의 조사에 착수한지 꼭 7일만에 묘소주변의 한 소나무밑동의 껍질이 벗겨져있는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었다.

전문가들이 그 부위를 현출해본 결과 놀랍게도 각종 부호들이 나타났다. 나무에 새겨진 부호는 다음과 같았다.

×←★山×

검사결과 부호는 잉크와 피를 섞어 썼다는것이

판명되었다. 우리는 즉시 수수께끼의 암호해독에 달라붙었다. 머리를 맞대고 논의가 분분했다.

맨 처음 내가 입을 열었다.

《동그라미안에 오각별을 새긴것은 혁명의 사령부를 의미한다고 보오. 내가 알고있기에는 당시 지하조직들이 사령부를 이렇게 표시하군 했소.》

《지나친 억측이 아닐가요? 〈붉은 오각별〉조라는 의미일수도 있지 않습니까?》

김경혁의 반박이었다. 나는 화살표를 꼭 짚었다.

《문제는 오각별앞에 그은 화살표식이요. 곰곰히 위치를 따져보면 화살표가 가리킨 방향이 삼흥덕쪽이라는걸 제격 알수 있소. 바른골에서 삼흥덕은 30리가량 되지. 당시 이곳은 밀영후보지로서 수령님을 모실 사령부자리로 내정되였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구... 아까이마 호시에게 행불된것이 1943년 1월이라고 볼 때 그해 2월에 수령님께서 두무봉밀영에 나와계시였소.

또 한발자국 앞으로 나가봅시다. 그 화살표앞에 다름아닌 곱하기표식이 있다는건 뭘 말해주는것 같소?》

부지중 경혁이 환성을 질렀다.

《아, 그러니까 삼흥덕밀영위치가 적들에게 로출되었다는...》

《그렇소, 바로 그거요. 밀영위치가 로출되었다는걸 명백히 알고있단 말이요.》

김경혁이 흥분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웁습니다. 그래서 두무봉밀영으로 은밀히 위치를 옮겼을것입니다.》

이로써 암호의 절반은 푼셈이었다. 문제는 뒤에 남은 부호의 해독이었다.

《되 산》자는 과연 무엇을 말하고있을가?

백역산, 오봉산, 고대산... 이 일대의 크고작은 산이름들을 다 짚아보았으나 신통하게 짚이는 데가 없었다. 가만있자. 《산》이라... 분명 귀에 익은것 같은데... 부지중 나는 무릎을 칠씩 쳤다.

번개같이 리산의 이름이 피뚝 떠올랐던것이다.

아, 그렇다면 마지막 곱하기표식은 리산이 나쁜놈이었다는걸 암시하고있는게 아닐가?

조장의 연락을 통해 리산이 밀정이였음을 알게된 《붉은 오각별》조원들이 그놈을 처단하였을것이다. 그렇다면 리산은 내부에 박힌 《사꾸라》가 틀림없다! 이름할수 없는 환희가 가슴속에 그들먹이 차올랐다. 오랜 암흑끝에 본 광명의 눈부심을 무슨 말로 다 표현할수 있을것인가?

김경혁이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을 말했다.

《이건 우연히 생각해본건데 혹시 억측일수도 있습니다. 〈아까이마 호시〉라는 이름에서 맨 마지막글자들을 떼버리면 〈아까이 호시〉로 됩니다.

우리 말로 번역하면 〈붉은 별〉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아, 《붉은 별》! 《붉은 오각별》!

《경혁동무!》

나는 젊은 학술연구원을, 처음 만났던 그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진 김정혁을 와락 부둥켜안았다.

드디어 반세기라는 력사의 두터운 안개속에 파묻혔던 진실이 자기의 모습을 깡그리 드러내놓았다. 모든것이 끝간데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처럼 선명해지고 한줄에 꿰인 구슬알처럼 일목요연해졌다. 우리의 눈앞에 력사에 전혀 기록되지 않은 불멸의 이야기가 영화화면처럼 방불히 재현되기 시작했다. ...

《오후 다섯시 비상련락장소에서 만나요.》

조원들과 헤어진 《호시에》는 곧장 회사로 향했다.

그는 요즘 갑자기 사라진 리산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것에 불안을 금할수 없었다.

그때 함바수색에 동원되었던 《호시에》는 리산의 방에서 나타난 《불온서적》들이 한번도 번져보지 않은 새것임을 간파하게 되었다. 형제계사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때부터 그를 의심해온 《호시에》로서는 리산의 정체를 최종적으로 확인해볼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절대로 놓칠수 없었다. 더우기 지하조직망을 찾아내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날뛰는 적들의 마수로부터 《붉은 오각별》조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그것은 필수불가결의 문제였다. 아닌게아니라 적들에게 《체포》되어 류치장공밥을 먹고돌아온 리산의 얼굴에 살이 오르고 개기름이 번지르르 돌고있었다. 《호시에》는 자기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었다. 후지마가지껄인것만 보아도 리산이 바로 우리 가까이에 박힌 밀정이 확실한데 바로 그놈이 갑자기 사라진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아닐수 없었다. 밀영의 안전을 백방으로 담보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사령관동지를 삼흥덕밀영에 모실수 없었다.

리산, 이놈이 어디로 갔을가? 어디로?

그는 간편한 승마복을 갈아입은 후 말을 끌고 나갔다. 사냥을 나가는척 하다가 삼흥덕쪽으로 질풍같이 말을 질쳐몰았다. 《호시에》는 산기슭에 말을 매놓고 은밀히 산발을 타기 시작했다.

아닐세라 밀영으로 통하는 골짜기입구에서 수상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야야, 너희들은 저쪽으로 올라가라! 난 이쪽을 수색하겠다!》

(앗, 적들이 밀영을 찾고있구나.)

더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잠관목숨사이로 쉴수런 개털모자가 얼른거리는 순간 《호시에》는 권총을 뽑아들었다. 땅, 땅 두방의 총성이 울렸다.

두놈의 경관이 나자빠졌다. 그다음엔 치렬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호시에》는 적들을 뒤에 달고 밀영과 전혀 다른 반대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회친회친한 어린 봇나무들이며 자작나무들이 꿈속에서처럼 휘휘 뒤로 물러갔다. 잠간사이에 온몸이 물주머니로 변했다. 적들은 집요하게 추격해왔

다. 단발머리카락을 펄펄 날리며 정신없이 달리던 《호시에》는 그만 발을 헛짚으며 나동그라졌다.

허공 눈판에 휘뿌려진 그는 데굴데굴 아래로 내리굴기 시작했다. 하늘과 땅이 빙빙 맞붙어 돌아갔다. 가까스로 몸을 일으키는 찰나 왼쪽어깨가 섰는데왔다.

바로 그 순간 《호시에》는 너무나도 낯익은 모습을 보았다. 리산! 적들속에 섞여있는 리산을 본것이다. 가슴 한복판에 무거운 돌이 쿵- 하고 떨어지는듯싶었다. 역시 내가 헛보진 않았구나. 아, 왜 진작 저놈을 처리해버리지 못했단 말인가.

그는 무자비하게 총탄을 날렸다. 경관들이 하나, 둘 쓰러졌다. 악에 받친 리산이 총구를 빼드는 순간 《호시에》는 맞받아 방아쇠를 당겼다.

오악- 배때기에 총탄을 맞은 리산이 피거품을 물며 나가너부러졌다.

(네놈이 감히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어렵도 없다!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 전사들이 살아있는 한!)

이를 욱물고 다시한번 방아쇠를 당겼으나 철컹컹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호시에》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음을 깨달았다. 등뒤에는 깎아지른듯 한 칼벼랑이 시커먼 아가리를 짙 벌리고있었던것이다.

포위망은 점점 좁혀들었다. 그는 주저없이 피호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아찔한 벼랑밑으로 몸을 날렸다. 팡팡팡 총성이 몰방으로 터졌다. 순간 등허리가 뜨끔해남을 느끼며 그만 정신을 잃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호시에》는 가까스로 눈을 떴다. 수북이 쌓인 눈무지우에 진득한 피자욱이 꺼렇게 굳어져있었다. 그는 이발로 속적삼을 물어찢어 힘겹게 상처를 싸매고는 한치두치 기여가기 시작했다.

붉은 선혈이 티없이 깨끗한 흰눈을 점점이 물들이고있었다. 온통 굵히고 찢겨진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달아올랐다.

(조금만 힘을 내주렴, 조금만...)

백설에 묻힌 숲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어디선가 살을 에이는 칼바람이 불어와 이마를 내리덮은 앞머리카락 몇오리를 가볍게 흔날렸다.

뿌연게 흐려지는 망막속으로 지나간 나날의 슬픔과 기쁨이, 시련과 환희가 주마등처럼 서서히 흘러가기 시작했다.

간도의 차디찬 눈보라... 불길에 활활 휩싸인 초가집... 정처없이 건느던 압록강의 처량한 물소리... 백두산전설을 자장가처럼 들으며 가슴을 들먹이던 그 밤이며 지하조직의 첫 성원이 되던 날 소중히 받아안던 《조국광복회10대강령》과 혁명가요수첩... 그다음엔 살을 에이는 적후의 칼바람... 총검의 숲... 려명... 머리우를 밝게 비치는 따뜻한 사랑의 해살...

불현듯 오래전에 헤어진 동생모습이, 얼마전 애

절히 부르며 매달리던 순녀의 얼굴이 가슴을 에이며 되새겨졌다.

순녀야, 사랑하는 내 동생아. 이 언닐 옥해다오.

그렇게밖에 달리는 할수 없었던 이 못난 언닐 말이다. 그 시각 내 눈에서 타오르던 불길은 너에 대한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동생아, 부디 알아다오. 잊지 말아다오. 이제 조국이 광복되는 날 너를 품에 꼭 껴안고 그때에 미쳐 할수 없었던 수많은 사연을 밤을 새워가며 속삭이려고 했건만...

왜서인지 안될것 같구나. 이젠 늦은것만 같구나. ...

하지만 우리에게겐 장군님이 계신단다. 이 몸은 죽어 한줄 흠이 된대도 그이의 전사로 싸웠기에 한이 없는거란다. 그리운 고향으로 뗏목이 돌아갈수 있는거란다. 사랑하는 순녀야...

그는 혼신의 힘을 모아 숲속을 둘러보았다. 산길을 오가면서 그리도 친숙해진 봇나무며 이깔나무, 가문비나무들이 자기의 피어린 자욱을 눈물을 머금고 지켜보고있는듯싶었다.

그는 기고 또 기었다. 한치, 또 한치...

마침내 수리봉통선의 독립수결에 이르렀다.

불의의 정황시 조원들과 긴급연계를 맺군 하던 비상련락장소였다. 《호시에》는 끝이 뚝뚝한 돌맹이를 찾아들고 급히 소나무껍질을 벗기기 시작했다.

동지들에게 비상사태를 알리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는 그였다. 《호시에》는 가까스로 만년필을 틀어 방울방울 떨어지는 잉크방울을 왼손바닥에 받았다. 어깨의 상처에서 흐르는 붉은 피줄기가 푸른 잉크에 섞여들었다. 그는 최후의 기력을 깡그리 모아 한자두자 부호를 새겨나갔다.

(동무들! 리산은 밀정이에요. 사령부의 안전을... 안전을 부탁...)

갑자기 숨이 켜 막혀왔다. 녀전사의 애끓는 눈가에서 단 한점의 불꽃이 파들거리고있었다.

삐직삐직 타들어가는 초불마냥 일순간 밝게 타오르다가 점점 스러져가는 생명의 그 불꽃... 불현듯 녀전사는 눈을 가느스름히 떴다. 간절한 소원에 찬 빛을 가득 담고 머리우를 쳐다보았다. 소소리높은 나무우듬지사이로 노을이 비껴가는 저녁하늘이 아름답게 바라보였다.

차츰 짙은 붉은색으로 변해가는 하늘... 하늘... 아, 붉은 하늘... 사령부귀틀집 지붕우에 휘날리는 붉은 기폭과 똑같은 빛갈의 저 하늘...

그지없는 평온이 심신을 따뜻하게 감싸안았다.

생명의 마지막불꽃이 가물거리는 그 순간 녀전사는 진정 무엇을 생각했을까. 장군님의 품에 안겨산 부끄럼없는 삶에 대하여 생각했을까 아니면 그리운 동생을 얼싸안고 감격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광복의 그날을 그려보았을까.

녀전사는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굳게 믿었다. 몸은 비록 천고의 산중에 이름 석자도 없이 흩어져도 녀는 기어이 그리운 장군님의 품에 안기리라는 것을! 혁명전사의 녀이 묻힌 이 땅우에 보란듯이

일떠설 새 조선이 김장군 만세를 높이 부르며 가장 강대한 나라로 세기에 우뚝 솟으리란것을! 불쑥 녀전사는 눈물이 막 솟구쳤다. 한없는 그리움의 눈물이 터슬터슬한 나무결에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령관동지! 그림습니다. ... 살아서... 뵙고싶습니다. ...)

그는 진정 많은 말을 하고싶었으나 통 입술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아릅드리 소나무를 짜악 그리안고 목메여 목메여 부르짖었다.

《장... 군... 님...》

스르르 눈이 감졌다. 탐스러운 단발머리카락을 어깨우에 첩첩 흘리며 녀전사는 조용히 고개를 떨어뜨렸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있었으나 그는 웃고있었다. 고요한 미소가, 그지없는 삶의 희열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녀인의 얼굴에 해빛처럼 어려있었다. ...

그해 여름 이 사실을 보고받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붉은 오각별〉이란 말이지...》

그이의 안팎에 먼 추억을 불러오는 감회로운 빛이 숭엄하게 어려있었다.

《그래, 생각나. 혁명군을 〈토벌〉하려던 적들의 기도를 대담하게 짓부신 특수렬차전복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을 때 나는 적들속에서 파감한 활동을 벌리고있는 그들에게 마음속으로 감사를 드렸소.

누구도 명령한 사람은 없었소. 스스로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해나선 그들이었지.

두무봉밀영에 가면 그리도 충직하고 견실한 적후의 별들을 꼭 만나보리라 결심했던만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나를 기다릴줄 어찌 알았겠소?

조원들마저 나의 신변안전을 위해 두무봉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짜밀영을 지어놓고 적들을 유인하다가 전원 희생되었던거요 이름도 남기지 못하고...

그들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았으나 끝내 알아내지 못하였소. 〈혜산사건〉때 체포희생된 권영벽이만 살아있었다더라면 그들은 이미 우리 혁명력사의 한페이지에 당당히 기록될 그런 투사들이었지.》

장내에는 엄숙한 정적이 깃들었다.

수령님께서는 뒤짐을 지신채 오래도록 창밖을 내다보시었다. 구름 한점없이 맑게 개인 푸른 하늘가에 흰새 한마리가 높이 떠있었다. 자유로이 깃을 퍼덕이며 훨훨 나래치는 아름다운 흰새...

《어쩐지 오늘따라 조기천의 시 한구절이 떠오르누만.》

수령님께서는 갈리신 음성으로 조용히 시를 읊으시었다.

이 나라의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버이라—  
우리 선렬의 령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조기천이가 〈백두산〉 시를 써가지고 와서 이 대목을 읊을 때 기천이도 울고 나도 울었댔소.

그 대목을 듣노라니 만주광야의 이름모를 산야에 무덤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나간 전우들 생각에 가슴이 막 미여지는것 같더구만. 적이 항시적으로 뒤따르는 속에서 눈무덤이나 돌무덤을 해주는것은 그래도 잘해주는것이였지. 그럴 겨를조차 없을 땐 겨우 술가지나 덮어주고 영결하자니 좀처럼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였소. 특히 녀대원들이 희생될 때가 제일 가슴 아프군 했소. 아직 망울도 헤쳐보지 못한 그 꽃같은 얼굴우에 한줌, 두줌 흙을 뿌릴 때 어느 장사인들 손이 떨리지 않았겠소?》

삼시에 장내에는 세찬 흐느낌이 터졌다. 수령님께서도 눈가에 손수건을 가져가시였다.

《잘 안장해줍시다. 비석에는 〈조선인민혁명군 무명전사 묘〉라고 크게 새겨넣는게 좋겠소.

무명전사! 얼마나 고귀한 이름입니까? 오늘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이 하루아침에 붕괴되는 비극적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이때 그러한 무명전사의 묘가 발굴된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입니다.

그들의 숭고한 넋이 깃든 이 땅에서 행복만을 누리며 자라난 새 세대들이 누구나 다 찾아와보게 합시다. 혁명전적지답사로정에 이 묘를 꼭 포함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남들이 어떤 길을 가든 피와 목숨을 바쳐 이 땅을 찾고 지켜낸 혁명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헛되이 할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을 위해 웃으며 생을 바친 수천수만의 무명전사들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습니다.》

...

별이 떴다. 혁명을 위해 타끓던 순결한 심장이

고이 잠든 여기에도 여름밤은 소리없이 찾아오고 있었다. 나는 사연깊은 푸른 소나무에 기대여 갖가지 못별들이 반짝이는 밤하늘가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큰 별, 작은 별, 밝은 별과 희미한 별들이 멀리 혹은 가까이에서 다투어 반짝이고있었다.

녀전사의 별은 과연 어느것일까? 태양의 빛을 받아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는 수령결사옹위의 붉은 오각별은? 어디선가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비둘우에 정히 놓인 꽃다발에서 진하디진한 향기가 풍겨왔다.

어찌 그것이 꽃향기일뿐이라.

《조국광복을 위한 항일혁명성전에서 희생된 녀전사에게 영광이 있으라!》

수령결사옹위의 고귀한 생애가 단 한줄의 비문속에 함축되어있었다.

불멸의 혁명력사란 다만 흘러가버린 투쟁의 과거가 아니다. 후세가 비춰보아야 할 참삶의 거울이기도 하다. 아, 어느때나 비춰볼수 있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거울을 가진 우리는 얼마나 긍지높은 새 세대들인가.

그래로부터 세월은 많이도 흘러갔다. 어느덧 나의 머리우에도 고령의 백발이 없혀졌다.

이제는 나의 손자손녀들이 강성대국건설대전의 당당한 참전자로, 위훈자로 되고있다.

혁명의 대가 바뀌고 세월이 흐를수록 그네들의 삶에 과연 그 무엇이 절대불변의 신념으로 심어져야 할것인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이 겹쌓여도 우리 혁명의 력사는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령결사옹위의 력사라는 바로 그 확고부동한 진리이다. 끝으로 부언하건대 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는것이 아니다.

아직도 반드시 찾아야 할 《붉은 오각별》들이 이 땅에 수없이 묻혀 남모르게 빛뿌리고있기때문이다. 아울러 그 빛을 거울로 수천수만의 새로운 별들이 대를 이어 영원히 빛나야 하기때문이다.

## 가 사

# 축포의 불보라

## 조 성 관

우리 평양 밤하늘에 일만경치 수놓으며  
쏟아지는 별무림가 휘뿌리는 구슬인가  
아름다워라 장군님 안아오신  
승리의 그 환희가 네 모습에 비겼구나  
아, 주체조선 내 나라 축포의 불보라여

선군장정 천만리가 축포속에 어려와서  
신비경의 불꽃바다 불수록 눈물겹네  
눈부시여라 장군님 가꿔주신

락원의 별천지가 네 모습에 비겼구나  
아, 선군조선 내 나라 축포의 불보라여

강성대국대문을 열 그날의 축포성을  
한가슴이 벅차도록 이밤에 새겨보네  
황홀하여라 장군님 열어주신  
조국의 만년미래 네 모습에 비겼구나  
아, 태양조선 내 나라 축포의 불보라여

# 인연과 뿌리

김은희

길, 전야에 누런 벼이삭파도가 훈풍에 설레이던 길...

길, 온 산천에 붉고누른 잎새들이 가을해빛에 찬연히 빛나던 길...

그 길을 걸어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이 조국으로 돌아가고있었다.

하늘에선 해빛이 따뜻이 내려비치고 땅에서는 떠나는 마음과 바라는 마음들이 뜨거운 열기를 내뿜고있었다.

《잘 가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시 만납시다!》...

오가는 인사말들도 눈물에 젖었는가, 울먹임의 파도...

함께 전쟁을 이겨내고 미제를 쳐부신 인연들이 석별의 정을 누르지 못해 잡은 손들을 놓지 못한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조선의 기상이 충천하고 천리마운동의 선풍이 온 나라를 휩쓰는 가운데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은 형제국가에 대한 국제주의적의무를 성스러이 마치고 조국으로, 조국으로 돌아가고있었다.

수도 평양에서 공부하고있는 한 제대군인대학생처녀도 가을국화꽃무늬를 들고 환송연도에 서있었다.

혹시 자기가 아는 얼굴이라도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기도 하고 지나치는 전사들의 손도 잡아흔들어주는 처녀의 마음속엔 떠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끝없이 고개치고있었다.

고마운 사람들, 어려울 때 포연 휘몰아치는 전호가에 조선인민과 나란히 서서 미제를 쳐부신 전우들.

일제를 때려부시는 항일의 그 나날에 우리 수령님께서 중국혁명을 돕고 중국인민과의 국제주의적의무를 다하는 길에서 중국의 혁명가들과 맺으신 우정은 조종친선의 역사적전통으로 되었고 뿌리로 되었다.

그 뿌리가 있어 미제가 도발한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중국인민의 수령인 모택동동지는 공동의 원수를 타승하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라고 하

면서 자신의 아들을 비롯한 중국인민의 충실한 아들딸들을 조선전선에 보내주었다.

두 나라 령도자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를 본받아 중국인민지원군 전사들은 조선인민군 장병들과 힘을 합쳐 조선의 산과 강, 전야에 청춘과 생명을 아낌없이 바쳐 미제를 쳐부셨다.

그 나날에 얼마나 많은 미거들이 태어났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친선의 역사를 엮었던가.

이런 생각속에 처녀는 뜨거운 정을 담아 꽃무늬를 흔들었다.

어이 알랴, 저 전사들속에 처녀의 군사복무시절 언덕너머에 주둔하고있던 지원군부대와 편환모임을 가질 때 서툰 조선말로 《아리랑》노래를 2중창했던 산둥지방출신의 병사랑 그 중대원들이 혹시 있을지...

대학생처녀에게는 그 편환모임때 2중창을 부른 지원군전사가 기념품으로 주었던 탄피등잔이 소중히 간직되어있었다.

지나가는 대렬속에서 끝내 그 전사의 얼굴은 찾지 못하였지만 처녀는 꽃을 흔들며 뜨거운 마음으로 속삭였다.

(지원군동무들! 우리 인민은 정말 그네들을 잊지 않을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잊지 않겠어요.)

...

이것은 언젠가 나의 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이야기이다. 어머니가 **김일성**종합대학에 입학한 첫해에 있는 일이라니까 그때로부터 세월이 많이도 흘러 이제는 세기가 바뀌어졌다.

추억만 남은 나이에 이른 어머니는 종종 다른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도 잊지 않고 드문히 하곤 하였다.

그러던것이 지난 8월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성과적으로 끝마치고 돌아오신 후 편집방영된 기록영화를 보는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회억에 잠겨 이 이야기를 다시 꺼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말씀하셨다.

《난 정말 그때 일을 잊을수 없구나. 이 엄마만 이 아닌 술한 사람들이 친형제같은 그런 감정

으로 그들을 바래왔단다. 엄마가 체험했던 이런 개인적인 인연도 두 나라 친선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의 작은 세부라고 이 엄마는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맺으신 우리 나라와 중국의 친선의 뿌리깊은 전통을 우리 장군님께서 오늘날에도 련련히 이어오시는구나.》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렇다! 이것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마음이고 감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비공식방문을 끝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소문도 없이 조용히 떠나가셨다가 조용히 돌아오신 그이의 소식이 텔레비전과 신문, 방송을 통해 온 나라에 전해졌을 때 뜨거운 격정과 환희를 터치던 인민들의 감정이었다.

길림에서, 장춘에서, 할빈에서 우리 장군님 짙어가신 자욱자욱에 새겨져있는 뜨거운 사연들...

동북지방은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꼭 다시 한번 와보겠다고 하시였던 사연많은 고장이라고, 그 소원을 안고 오늘 우리가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

길림 육문중학교에 모셔진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을 우러르실 때, 80여년이란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옛 교정의 구내에 울려퍼지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들으실 때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 서리서리 뜨겁게 고패쳤을 만단심회가 인민의 가슴가슴을 흔든다.

정녕 어버이장군님의 이번 중국방문의 길, 그 길 역시 우리 수령님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길, 우리 인민을 위한 길이였다.

그 길은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조중친선의 전통적인 뉴대를 새로운 높이에 올려세우신 역사적인 길, 오늘날이 아니라 먼 미래까지 내다보고 조중친선의 든든한 기초를 다짐으로써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 인류의 자주화위업을 위한 활로를 열어놓으신 의의깊은 원정이였다.

길, 우리 장군님 다녀오신 중국방문의 길...

그 길에 잇닿아있는 수많은 길들이 마음속에 우렷이 떠오른다.

어버이수령님 항일의 그 나날에 걸으신 중국동북산야의 크고작은 길들...

우리 장군님 중국방문을 끝마치시고 압록강을 넘어오실 때 처절씩, 처절씩 다리기등을 치던 유정한 물소리...

나의 어머니 발돋움하며 환송의 꽃뭉치 흔들던 중국인민지원군전사들의 귀국의 길...

그 길들을 마음속으로 하나, 둘 어루쓸며 나는 생각한다.

어버이수령님 그 시원을 마련하시고 우리 장군님께서 다져가시는 조중친선의 그 역사적전통이 있어 지나간 나날의 그 많은 작은 세부들과 인연들도 다 새록새록 잊혀지지 않는것이 아닐가...

아, 조중친선의 역사적전통은 세기에 세기를 이어 날로 튼튼해진다.

## 지 원 군 환 송 대 회 에 서

곽 말 약 (중국)

박 흥 병 역

조선에서 여러 해  
한식구로 지냈으니  
리별 아니 서러우랴  
용사들도 눈물을 뿌리어라

인민들의 환호속에  
초목들도 설레이고  
피끓는 마음  
파도처럼 물결치누나

하늘땅과 함께 있음이  
우리 인민의 우의여라  
해와 달처럼 높음이  
그 또한 국제주의정신이여라

정은 깊어 바다같으니  
혈육인들 이럴소나  
승리는 영원히  
우리의것이로다

## 중국고전소설 《량산백과 축영대》

중국고전소설 《량산백과 축영대》는 동진시기(317년—420년)의 민간전설을 소설화한 중국의 이름있는 작품의 하나이다.

소설의 이야기는 봉건적가부장제도와 결혼제도의 최악과 반인민성을 폭로비판한 민간전설에 기초하고있다.

전설은 생겨난 동진시기로부터 1 600여년동안이나 전해져오면서 중국인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소설은 한마디로 남복차림을 하고 항주로 공부하러 갔던 축영대와 량산백의 비극적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주제로 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문학은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내세우고 그것을 사람의 본성적요구에 맞게 해결하여야 인간학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

소설의 중심주인공인 축영대는 절강성 상우현일대에서 큰 부자로 소문난 축공원의 아홉째 딸로 태어난다. 가정을 엄하게 다스린다고 하는 아버지 축공원도 축영대의 어리광만은 다 받아준다.

축영대는 오빠들을 따라 서당에 다니면서 《4서 5경》을 깨쳐 붓을 들면 문장이 되고 입만 벌리면 시가 되는 정도로 학식이 높아졌다. 그는 부모들을 존경하고 오빠들, 형님들과 화목하게 지낸다.

한편 축영대는 어려서부터 오빠들과 한데 어울려 지낸것으로 하여 남자들처럼 강의하고 용감한 성품을 지니고있다.

어느날 그는 항주로 공부하러 간다는 서생들을 보자 자기도 공부하러 가리라 굳은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녀자는 재간이 없는 것이 덕》이라고 하면서 막아나서는 아버지로 하여 실현되지 못한다. 그후 축공원은 남복을 하고 서라도 공부하러 가겠다는 딸의 강경한 요구를 꺾을수 없어 할수없이 승인하게 된다.

축영대가 길을 떠나 초교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역시 항주로 공부하러 간다는 량산백이라는 젊은 선비를 알게 된다.

량산백은 축영대의 고향 상우현과 린접해있는 회계현사람이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랐고 지금은 더 많이 배워 가문을 빛내라는 어머니의 분부로 항주에 공부하러 간다고 자기 소개를 한다. 축영대가 자기 가정형편과 자신도 항주로 공부하러 간다는데 대하여 말하자 량산백은 량부모가 다 계시고 형제들이 많은것을 부러워하면서 결의형제를 맺자고 제기한다. 축영대도 그의 제기에 승인한다.

항주에 도착한 후 량산백과 축영대는 축영대의 아버지 축공원의 친구인 주세장이 경영하는 학당에서 열심히 공부한다. 축영대는 나이가 아래인 자기를 언제나 잘 돌봐주는 량산백의 따뜻한 인정미와 높은 학식에 감복하여 자기도 모르게 그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어느날 축영대는 어머니가 중하게 앓고있으니 빨리 오라는 아버지의 편지를 받고 길을 떠난다.

량산백은 십 팔리정각까지 따라나와 바래워준다. ...

축영대가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마태수의 아들 마문재에게 시집가라고 강요한다. 축영대가 어머니를 통해 항주에서 량산백과 사랑을 약속한데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으나 축공원은 단마디로 거절하며 7월 7석날을 잔치날로 정한다.

축영대와 헤어진지 두달만에 량산백이 축영대네 집으로 오게 된다. 축영대의 어머니는 이전처럼 남복을 입고 그와 만나라고 한다. 그러나 축영대는 벌써 3년동안이나 남복을 하고 그를 속였는데 이제 더는 그럴수 없다고 하면서 녀자옷을 입고 만난다.

량산백은 눈앞에 서있는 아릿다운 처녀가 축영대라는것을 알아보지 못한다. 축영대가 항주에서 남복을 하고 공부하게 된 사연을 이야기하고나서 아버지가 자기를 마태수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하는데 대해 말하자 량산백은 갑자기 머리가 쭈서나고 다리가 나른해지더니 고열이 나기 시작한다. 집에 돌아간 후 량산백은 상사병으로 생사의 기로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죽고만다. 죽기 전 그는 축영대에게 꼭 한번 묘지에 왔다가라는 말을 전해줄것과 자기를 남산기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량산백의 하인 사구가 축영대네 집에 와서 도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것과 그의 유언을 전달한다.

드디어 잔치날이 되어 마문재네 집에서 요란한 신부맞이행렬이 온다. 축영대는 어머니에게 내가 소복을 입을수 있게 해달라, 신부를 태운 꽃가마가 성안으로 들어갈 때 초교진을 에돌아 남산기슭으로 지나가게 해달라, 또 내가 량산백의 무덤앞에서 한번만 제를 지내게 해달라는 세가지 요구조건을 마문재에게 전해달라고 말한다. 마문재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중매군 구로파의 감언리설에 속아 축영대의 요구조건을 받아들인다.

축영대가 량산백의 묘앞에서 제를 지내며 통곡하고있을 때 비소리와 번개, 우뢰소리, 울음소리, 마씨네가 어서 떠나자고 신부를 부르는 고탈소리

가 한데 어울려 들려오는 가운데 갑자기 쿵— 하는 둔중한 소리가 들리며 량산백의 묘가 쩍 갈라진다.

순간 축영대는 량산백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가 묘지안으로 뛰어든다. 또 한차례 둔중한 소리가 들리더니 묘지가 다시 합쳐진다. 바로 그때 폭풍우도 우뢰도 번개도 다 멎고 먹장구름이 가셔지더니 파아란 하늘에서 찬란한 해빛이 쏟아져 내린다.

잠시후 두마리의 아름다운 꽃나비가 무덤위에 나타나 팔랑팔랑 춤추며 날아여기 시작한다

은심(축영대의 하녀)과 사구는 그 한쌍의 꽃나비를 보며 아씨와 도련님은 끝내 같이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절을 한다.

작품에서 축영대는 먼저 총명하고 슬기로우며 강의한 성품을 지녔을뿐아니라 봉건적가부장제도에 대한 반항정신이 강한 인물의 형상이다.

소설에서 축영대는 한번도 경솔한 행동을 한적이 없는 슬기롭고 총명하며 성품이 강의한 녀성으로 형상되고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태수의 아들과 결혼시키려 하자 《난 아버님이 마태수에게 내시체를 실어다바치게 할테어요!》라고 말하는것은 그가 봉건적가부장제도에 커다란 반감을 품고있다는것을 잘 말하여주고있다.

축영대는 또한 봉건적결혼제도를 반대하고 결혼의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중국녀성들의 지향을 체현한 형상이다.

작품에서 축영대의 아버지가 딸을 억지로 문벌

이나 재산이 대등한 가문끼리 결혼시킬 목적밑에 태수의 아들과 살게 하려는것을 단호히 물리치고 속세를 떠나 녀승이 되려고 결심하며 나중에는 죽음으로 항거하는것은 봉건적결혼제도를 반대하고 결혼의 자유와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중국녀성들의 지향을 반영한 주인공을 통하여 보여주는 생동한 형상이다.

소설에서 축공원은 《남녀유별》이나 《옛사람들의 혼제와 조종의 례법》을 내들고 젊은이들의 참된 사랑을 짓밟아버리고 봉건가문의 《가풍》을 고수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봉건주의자의 형상이다.

중국고전소설 《량산백과 축영대》는 사상예술적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소설은 봉건주의의 죄악을 신랄하게 폭로비판하고있으며 결혼의 자유와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갈망하는 중세중국인민들의 지향을 잘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소설은 예술적측면에서도 부녀사이에 설정된 갈등이 예리한것, 사건발전단계가 뚜렷하고 그 흐름이 순조롭게 되어있는것, 생동한 자연묘사와 서정시들이 비교적 많이 쓰인것으로 하여 서정적인 색채가 진한것 등의 특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있다.

중국고전소설 《량산백과 축영대》는 지난날 봉건주의의 죄악을 예리하게 폭로비판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에 대한 중국인민들의 지향과 념원을 생동하고 깊이있게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식교양적 가치가 큰 작품으로 되고있다.